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주 영 애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외국인 유학생대상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연구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이 리 경

외국인 유학생대상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연구

주 영 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이 리 경


인 준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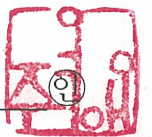
이리경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0월

심사위원장 최 배 영 

심 사 위원 고 성 의 

심 사 위원 김 선 주 

심 사 위원 주 영 애 

심 사 위원 이 노 혜 숙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감사의 글

옛 것을 지키고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낸다는 뜻으로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노래와 춤과 시로 읊으며, 소망하고 애원하던 애뜻하고 가슴 찡한 그 ‘수려하고 엄숙한 제의(祭儀)’가 그림자만 남기고 어쩔 수 없이 사라져 가려고 한다. 그리움과 더불어 안타까움이 진하게 번져 두고두고 아쉬움이 쌓여갈 것이다. (본문에서 인용)

따뜻한 우리의 품성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순응하는 삶에서 배우고, 나눔이 사랑으로 전해지고,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 이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문화에 대한 늦깎이 공부에 ‘인생이란 늦었다는 때는 없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 한국세시풍속문화를 연구주제로 정하고 내내 행복했었고,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가슴 한 켠 뿌듯한 마음이 깊이 파고든다.

외국생활에서 피폐했었던 시절, 한국인으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 사명감으로 시작한 공부가 이제는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해야 할 역할이 더 넓어지면서 눈을 더 크게 뜨게 되었다.

오랜 시간 항상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시던 지도교수님 주영애 교수님의 배려와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일일이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읽을 수 있는 깊은 마음 쓰심에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최배영 교수님의 사랑어린 마음으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스템 활용에 도움을 주었던 박성미 교수와 든든한 동기들과 후배교수들의 격려와 사랑에 고마움을 전한다.

구순을 앞둔 친정어머님께서 어린 시절 우리가족의 절기마다 세시풍속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려주시고, 본 연구에 힘을 실어주시던 어머님께 고마움과 사랑을 전한다. 또한 힘든 과정에서도 옆에서 저를 끝까지 지켜주며 항상 응원해주는 남편과 밝고 든든한 두 아들과 새 식구에게 이 논문을 바친다.

2016년 12월 이 리 경

논문개요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대상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에 관하여 한국인의 일상을 담은 세시풍속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콘텐츠의 필요성을 제고하며, 문헌연구와 실태파악을 토대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한국문화교육 실시에 필요한 실용적인 체험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체험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체험교육이 한국어의 한 부분으로만 다루어져 온 실정이다. 이에 한국인의 삶을 반영한 계절의례인 세시풍속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세시풍속 관련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별·계절별·월별 특징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세시풍속 관련 실태파악은 서울소재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국제어학원의 한국문화교육 체험학습 실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외국인 대상 한국민속문화체험 현황, 한국관광공사 K-Style Hub 한국문화전시관, 각 지역문화원의 축제행사 등에서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한 내용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대상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를 구안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절별 분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으로 하였으며, 봄의 절기는 설, 대보름, 삼짇날, 한식이며 여름의 절기는 초파일, 단오, 유두이며, 가을의 절기는 칠석과 추석이다. 겨울의 절기는 상달, 동짓달, 선달 등의 절기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콘텐츠별 분류는 의례, 음식, 놀이, 예술, 축제 등의 다섯 분류로 나누었다. 다섯 분류는 오덕(五德)의 의미를 담아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반영하였다. 오덕(五德)의 의미는 의례에는 예(禮), 음식에는 의(義), 놀이에는 지(智), 예술에는 인(仁), 축제에는 신(信) 등으로 재조직하여 분류하였다.

오덕(五德)의 의미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를 통하여 한국인의 역사성, 시대성, 사상성과 삶의 전반적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오덕(五德)의 내용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례에서 예(禮)는 계절적인 변화의 시기마다 국가적인 “제(祭)” 의례와 가정에서의 조상숭배의 효(孝)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둘째, 음식에서의 의(義)는 자연에 순응하는 제철음식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려는 조화와 공존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셋째, 놀이에서 지(智)는 선인들의 생활 속에서 슬기롭게 창조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해학적 놀이문화로 승화시키는 지혜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넷째, 예술에서 인(仁)은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삶 속에서 희노애락(喜怒哀樂)의 노래와 춤으로 수용한 사랑과 평등적 가치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축제에서 신(信)은 마을의 축제체험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깨닫고 협동하는 삶의 지혜를 성찰하는 것으로 어울림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의 분석 결과를 통해 의미적 가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인의 삶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과 문화예술로의 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으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이에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가 세계로 향한 한국생활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4
3. 용어의 정의	11
4. 한국문화교육 선행연구	14
II. 한국 세시풍속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30
1. 한국 세시풍속문화의 역사적 배경	30
1) 세시풍속의 정의와 기능	30
2) 세시풍속의 역사적 변천	31
2. 한국 세시풍속문화의 내용	45
1) 계절별 24절기 풍속	45
2) 월별 세시풍속	47
3. 한국 세시풍속문화의 지속과 변용	59
1) 세시풍속에 대한 인식변화	59
2) 세시풍속에 따른 오늘날의 새로운 형태	63
III. 외국인 유학생대상 한국문화체험 실태	66
1.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체류 현황	66
2.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체험 실태	68
1) 서울시 소재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체험	68
2) 국립민속박물관 외국인의 한국문화체험	73
3) K-Style Hub 외국인의 한국문화체험	76
4) 지역문화원의 한국문화체험	78

3.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체험 한계성	80
IV. 외국인 유학생대상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구안	83
1.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의 구안절차	83
2.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의 오덕(五德)	85
1) 예(禮)의 의례문화	86
2) 의(義)의 음식문화	87
3) 지(智)의 놀이문화	89
4) 인(仁)의 예술문화	90
5) 신(信)의 축제문화	91
3.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의 사계절(四季節)	92
1) 봄 세시풍속문화	93
2) 여름 세시풍속문화	98
3) 가을 세시풍속문화	101
4) 겨울 세시풍속문화	104
V. 외국인 유학생대상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의 가치	110
1. 한국인의 삶의 의미	110
2. 문화예술로서의 의미	112
3. 한국생활문화의 확산의 의미	114
VI. 결론 및 제언	116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I-1> 단편집과 고서 목록표	5
<표 I-2> 연도별 한국 세시풍속 문화교육 관련 연구	15
<표 I-3> 세시풍속 관련 연구 분류표	18
<표 I-4> 세시풍속 이론적 고찰 및 인식 연구	20
<표 I-5> 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구	22
<표 I-6> 문화콘텐츠 개발연구	24
<표 I-7> 외국인 대상 문화교육 연구	26
<표 I-8> 비교문화연구	29
<표 II-1> 고려시대의 속절(俗節)과 관리급가(官吏給暇)	34
<표 II-2> 조선시대 세시풍속에 따른 문헌	40
<표 II-3> 조선시대 절기별 농가 행사와 주요 세시풍속	41
<표 II-4> 근대사회의 월별 명절 및 절기 분류표	44
<표 II-5> 계절별 24절기 풍속	46
<표 II-6> 세시풍속에 따른 오늘날의 새로운 형태	65
<표 III-1> 유학형태별 유학생 수	67
<표 III-2> 주요 국가별 유학생 수	67
<표 III-3> 외국인 유학생 전담기관 처	68
<표 III-4> 서울시 각 대학별 한국어학당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71
<표 III-5> 국립민속박물관 외국인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74
<표 III-6> 지역별 지역문화원 세시행사	78
<표 IV-1> 세시풍속 체험콘텐츠의 오덕(五德) 분류	86
<표 IV-2> 예(禮)의 의례문화	87
<표 IV-3> 의(義)의 음식문화	88

<표 IV-4> 지(智)의 놀이문화	90
<표 IV-5> 인(仁)의 예술문화	91
<표 IV-6> 신(信)의 축제문화	91
<표 IV-7> 콘텐츠 분류에 따른 계절별 교육계획안	92
<표 IV-8> 봄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내용	93
<표 IV-9> 설,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94
<표 IV-10> 대보름,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95
<표 IV-11> 삼짇날,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96
<표 IV-12> 한식,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97
<표 IV-13> 여름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내용	98
<표 IV-14> 초파일,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99
<표 IV-15> 단오,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100
<표 IV-16> 유두,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101
<표 IV-17> 가을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내용	102
<표 IV-18> 칠석,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102
<표 IV-19> 추석,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103
<표 IV-20> 겨울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내용	104
<표 IV-21> 상달,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106
<표 IV-22> 동짓달, 체험교육콘텐츠 교육안	107
<표 IV-23> 선달,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108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의 구성	10
[그림 III-1]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66
[그림 III-2] 성신여자대학교 외국인학생 대상 한국문화체험	72
[그림 III-3] 국립민속박물관 외국인 한국문화체험	75
[그림 III-4] K-Style Hub 한식문화관 프로그램	77
[그림 III-5] 지역별 한국의 축제	79
[그림 IV-1] 외국인 유학생대상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구안절차	84
[그림 IV-2] 추석의 농악놀이	104
[그림 IV-3] 한국의 축제	10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기존에 개발된 문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문화 체험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교수지원 자료’ 등 한국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¹⁾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 확대 및 인재 유치 차원에서 신흥 국가 출신의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세계의 유학생 수는 1975년 80만 명에서 2000년 210만 명, 2012년에는 45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7% 정도 성장하고 있다.²⁾ 그러나 한국은 국내 전체 대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이 3% 이하이다. 2000년 이후, 급증하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11년부터 정체되기 시작하면서³⁾ 정부에서는 국가 및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한 인재 확보와 저 출산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안, 재정 확보의 차선택 등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⁴⁾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전 세계 확산을 위하여 2013년과 2014년에 ‘한국문화 교육과정 개발’ 및 ‘한국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사업’ 등을 시작하면서 문화교육에서의 표준 교육과정을 제안하고,⁵⁾ 외국인 수업을 위한 체험 중심의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1) 교육인적자원부 사이트: www.moe.go.kr

2) 국제 유학현황 점유율 변화추이(2014,OECD), 교육부

3) 연도별·과정별 유학생 현황, 교육부

4) 교육부, www.moe.go.kr

5) 이승연·김희선·이동은, 국외 한국문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방안, -세종학당 체험중심문화 프로그램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이중언어학, (59), 197-220, 2015.

서의 문화교육 효과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는 과학시대이고 지구촌시대이고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자기문화를 지키지 못하면 세계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그 민족은 소멸하고 만다.⁶⁾ 그렇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든지 교육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부단히 가르치고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정민(2007)의 연구에서 현재까지는 한국어수업에서 한국문화를 체계적 또는 일관성 있게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문화 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문화 학습의 필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⁷⁾

문화학습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문화는 언어수업의 일부로서만 다루어지기 보다는 그 내용과 방법에서 좀 더 실천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현장적용의 가능성을 두고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교육을 교육 내용으로 정하고 이를 체계적인 학습으로 다룸으로써,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 문화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문화 체험교육은 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 즉 전통과 현대문화 모두를 이해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 문화의 제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용이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문화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양지선(2012)의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실시되는 문화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학습자들이 50% 이상이 만족했으며, 학습자는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나 교수자가 설명을 회피하여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⁸⁾

6) 장재천, 세시풍속의 사회교육적 의의, 한국사상과 문화, (47), 187-214, 2009.

7) 이정민, 세시풍속을 이용한 문화수업 모형개발-문화수업자료 개발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3(2), 155-179, 2007.

8) 양지선, 외국인 학습자에 따른 한국문화 인식조사. 한국언어문화학. 9(1), 129-152, 2012,

이연수(2012)의 연구에서는 어학당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박물관 프로그램을 의뢰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매 급수마다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2급을 다시하게 된 학생들의 경우는 프로그램이 반복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⁹⁾ 또한 문화수업에서 한자용어나 전문용어가 많아 외국인들, 특히 한국어를 배운 지 몇 달이 채 안 된 미숙한 외국인 교육생에게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¹⁰⁾ 이는 문화교육을 하는 데 있어 문화교육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암시하는 바이다.

문화수업이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비디오, 사진 등의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문화수업을 가장 선호하였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문화수업을 원하였다.¹¹⁾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문화체험을 시행하고 있는 곳을 찾아보면 시청각 수업과 체험수업이 전시실과 연계되지 못한 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¹²⁾ 이를 보더라도 문화수업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인의 일상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세시풍속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복합문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계절별·월별·연간체험교육 콘텐츠의 개발은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외국인 유학생으로 하여금 한국문화 체험교육 콘텐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방안에 따라 유학생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한국문화를 세계로 옮길 수 있게 확산시키는 기틀을 준비하는 초석으로 한국세시풍속을 활용한 체험교육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기를 목적으로 한다.

9) 이연수, 외국인 대상 박물관 교육의 총체적 접근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0) 이연수, 위의 연구, 2012.

11) 양지선, 앞의 연구, 129-152, 2012.

12) 이연수, 위의 연구, 2012.

2. 연구 방법 및 연구범위

1) 문헌연구

본 연구는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을 하기 위하여 한국 세시풍속의 역사적 배경과 계절을 중심으로 한 세시풍속의 특징과 주기전승적 의미를 이해하고, 세시풍속의 지속과 변용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현대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먼저, 세시풍속 자료인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峯類說)」(1614)을 보면, 24절 후에 따른 세시풍속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고, 유득공의 「경도잡지(京都雜志)」(1779)에서는 서울의 문물제도와 풍속과 행사를 기술하고 있다. 김매순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1819)는 한양의 연중행사를 기록한 책으로 서울의 풍속을 기술하였다. 세시풍속의 고서인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1849)에서는 정월부터 선달까지 일년간의 행사와 풍속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월내라는 항목을 넣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그 달의 끝에 넣어서 설명하고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세시풍속의 기원을 비롯하여 민속놀이, 민간신앙, 의식주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편찬한 조선대 세시기와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를 위주로 고찰하였으며,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출간한 『조선대세시기』 I, II, III, IV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2003~2006),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전기시대, 조선후기시대, 근대신문·잡지편과 현대 신문·잡지편을 중심으로 세시풍속의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별·계절별·월별 특징을 분류하였다. 또한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출간한 『세시풍속자료집- 경상남·북도 편』, 『충청남·북도 편』, 『전라남·북도 편』, 『경기도 편』, 『강원도 편』, 『제주도 편』, 『총괄 편』 등 각 지역별

세시풍속의 계절별, 월별 특징을 고찰하였다. 근대에서 일제 강점기, 현대까지 나타난 세시풍속의 지속과 변용 편은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학위논문과 학회지 논문을 활용한 연구는 선행연구<표 I - 2>에서 정리하였다. 단편집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발췌하였다.

<표 I -1> 단편집과 고서 목록표

저자	연도	제 목	발행처	특 징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 시대 편)	민속원	삼국시대의 세시풍속은 왕실중심의 국가의례와 관련된 세시풍속이 많이 등장한다. 삼국의 시조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신화적인 왕족의 신성성이 제천의례로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의 주몽신화, 백제의 동명제사, 신라의 시조묘와 신궁제사 등이다.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고려 시대 편)	민속원	고려시대 세시풍속은 고려초기의 불교적의례, 고려중기의 유교적 의례, 고려후기의 성리학적 의례가 각각 왕실과 지배층, 그리고 민간에서 행해졌다. 고려시대는 산천과 천지제사, 조상제사가 중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2006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근대 신문·잡지편)	민속원	19세기 말부터 1945년 사이에 발행된 신문과 잡지에 나타난 세시풍속에 관한 기사와 사진을 집성한 것이다. 근대세시풍속은 농촌에서는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도시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전통 세시와 충돌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노동리듬과 시간인식이 출현한다.
국립민속박물관	2007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현대 신문편)	민속원	1946~1970년까지는 한국사회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급변하던 시기였다. 1960대에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구정이나 추석을 지내고자 도시에서 철도나 버스를 이용한 귀향이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국경일, 기념일등 증가하면서 그에 맞는 새로운 세시풍속들도 나타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전국 각 도별 세시풍속 (9개도와 총괄편)	문화재청	전국 각 도별 세시풍속 행사를 사진과 기록으로 남겼으며, 해설을 붙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다. 각 지방마다 설풁경이나 놀이도 모두 다르게 기록해 놓은 자료집이다.

국립민속박물관	2003 ~2007	조선대 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농가십이월속시」, 「한양대세시기」, 「세시잡영」, 「세시기」(『추재집』), 『면암집』의 「세시기속」, 「명절풍속」(『해동죽지』)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수록한 책
국립민속박물관	2003 ~2007	조선대 세시기 II	국립민속박물관	학계에서 「기속시」 혹은 「풍속사」라 불리는 것으로 「세시잡영」 「원조희락」 「비년사」 「도도곡」 「우오절」 「농제속담」 「상원리곡」의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수록한 책
국립민속박물관	2003 ~2007	조선대 세시기 III	국립민속박물관	세시풍속 연구 활성화를 위해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를 국역하여 세시풍속 기초자료 보급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내놓은 책.
국립민속박물관	2003 ~2007	조선대 세시기 IV	국립민속박물관	세시풍속 연구 활성화를 위해 「동경잡기」를 국역하여 세시풍속 기초자료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모한 책
김영태	2009	옛마을 세시·절기 풍속	한국학술정보	세시풍속의 절기에 따른 유래와 의미, 내용을 상세하게 삽화로 설명한 책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원	2014	세시풍속의 지속과 변용	채륜	한국민속문화 전통의 원형을 살피고, 우리고유의 색채를 띠고 있는 세시풍속이 시대가 바뀌면서 지속과 변용의 의미를 평가하고 전통의 정체성 해명과 형성과정을 담은 책
안혜숙·주영애 외	2002	한국 가정의 의례와 세시풍속	신정	24절기와 계절별 세시풍속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세시놀이와 세시음식을 설명해 놓은 책
윤숙자·강재희	2012	아름다운 세시음식 이야기	질시루	새해 설날부터 선달그믐까지 우리선조들이 세시풍속과 함께 즐긴 음식에 관한 세시이야기가 들어있는 내용
이광렬	2005	우리나라 세시풍속	청연	세시풍속 12개월의 유래와 의미, 놀이 등 만드는 방법과 놀이방법 등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
이영혜	2012	아름다운 한국음식 세계를 향해 날다	쿠드	계절별 한식음식을 한국적인 이미지의 도자기에 담아 색채와 음식의 정갈함과 품격있는 구성으로 (주)쿠드에서 세계속에 내놓은 한식의 세계화에 어울리는 책
이정진 외	2013	한국축제 50선	대왕사	전국 축제 개최지역의 특성 및 콘텐츠와의 관련성과 각 축제의 주요일정 등을 제시하였다.
임기중	1993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	전국 세시풍속의 노동요와 다양한 노랫가락을 실은 책.
장주근	2013	한국의 세시풍속	민속원	일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한국인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 월별 세시풍속의 특징을 잘 서술하고 있다. 민속학 학문이 계속 자라나고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다.
장현석	2010	충북민속예술	일광	충북의 농악, 민요, 민속놀이의 연구를 바탕으로 충북인의 민속예술속에 투영된 충북인의 생활모

				습을 통해 범고창신의 가치를 기술하고 있다.
이창익	2013	조선시대 달력의 변천과 세시의례	창비	조선후기 역사와 세시기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역사가 시간과 관계된 의례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양한 시간주기의 복합성 및 인간의 시간, 공간, 행위를 연구 관찰한 책
정승모	2012	한국의 농업세시	일조각	농가월령과 절기, 농업세시의 지역적 다양성, 세시와 의례, 세시와 의식주, 놀이, 신앙, 속담, 설화 등 실은 책
조완복	2006	우리민족의 놀이문화	정신세계사	민속놀이 개개의 놀이에 얽힌 사연과 우리의 생활습속을 줄거리로 삼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한 책. 놀이의 유래와 놀이 방법등 서술.
한호철	2016	세시풍속 이야기	지식과교양	매년 그때에 반복적으로 행해 왔던 우리선조들의 반복적인 일상의 삶을 통해 생활의 편리성 및 환경변화의 적응성을 담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한호철	2016	24절기 이야기	지식과교양	24절기의 이해와, 구성형태, 현실성 등 기록한 책
현경실 · 강향숙	2016	전통음악으로의 초대	성신여대출판부	국악 교육용 교재로서, 주제별로 '학습활동'을 넣은 학생중심 활동중심 교재이다. 이 교재에서는 전통음악을 콘텐츠화 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체험하는 과정들을 눈여겨 볼 수 있었다.
홍석모 저 정승모 역서	2009	동국세시기	풀빛	우리나라 세시풍속을 1년간 월별로 순서대로 기록하고, 특히 윤달의 풍속도 함께 기술하였다. 서울및 지방의 세시풍속 자료를 집대성 하였다. 조선대세시기의 동국세시기를 알기쉽게 풀이하였다.
홍양자	2002	전래동요를 찾아서	우리교육	우리 전래동요부터 현대의 놀이 동요를 수록한 책

2) 실태조사연구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문화 및 세시풍속 체험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울소재 각 대학의 국제어학원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과 박물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체험교육,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식체험교육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서울소재 각 대학 국제어학원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실태를 다섯 분

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둘째, 박물관교육으로 시행되는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교육을 하고 있는 박물관 네 곳을 조사하였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궁중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프로그램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과 주제가 맞는 국립민속박물관을 정하였다. 본 연구자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사진자료와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담당 직원의 도움으로 박물관 사이트의 자료를 수집 활용하였다.

셋째,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K-Style Hub 한식문화관의 외국인들의 한국음식문화 체험 실태조사는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 하였으며, 담당직원의 도움으로 문화체험관과 체험사진 자료들을 제공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넷째, 지역문화원과 보존회, 협회에서의 세시풍속체험 실태는 농경기에 맞춘 세시풍속을 축제로 거듭나 지역을 알리는 활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3) 체험교육콘텐츠 개발 연구

고문헌 및 선행연구고찰, 체험교육 실태조사를 근거하여, 세시풍속 체험교육 콘텐츠 개발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는 조선후기부터 현대까지 전승되고 있는 세시풍속을 의례, 음식, 놀이, 예술, 축제로 다섯 가지의 내용으로 분류하여 개발하였다.

의례문화는 현재에도 행해지고 있는 설과 추석을 중점으로 각 가정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의례를 위주로 구성하였고, 음식문화는 세시에서 행해지는 음식을 위주로 하였으며 현대에서 활용되고 있는 음식으로 제한하였다. 놀이문화는 가정이나 마을단위의 놀이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술문화에는 노래와 시를 포함하였고, 축제문화는 각 지역별로 행해지는 계절별 세시축제를 중

심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현장 견학하여 직접 참여하는 체험학습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체험교육콘텐츠는 계절의 특성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계절별·월별 통합체험교육으로 재분류하여, 봄 세시풍속문화 체험, 여름 세시풍속문화 체험, 가을 세시풍속문화 체험, 겨울 세시풍속문화 체험으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세시풍속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시풍속의 역사와 특징, 세시풍속의 지속과 변용에 대한 의의를 논하고,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실태 및 현황과 한계점을 밝히고, 한국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밝혔다.

제4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개발의 절차와 체험교육콘텐츠를 분류하고 그 내용을 계절을 중심으로 적용을 위한 교수목록을 제시하였다. 이 내용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세시풍속문화에 대한 흥미를 끌어내고 세시풍속에 대한 현장성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시기의 의례, 음식, 놀이, 예술, 축제문화로 나누어 계절별·월별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를 구성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며 외국인 유학생대상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의 가치에 대하여 논하고, 세계 속 한국생활문화의 확산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 그림 I - 1 】 연구의 구성

3. 용어의 정의

1) 세시풍속

세시풍속은 농사의 풍농을 예축(豫祝)·기원·감사하는 의례로서 인간의 삶과 직결되어 복을 비는 의례였다.¹³⁾ 이는 풍요를 기원하는 의존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의 마디로서 생기를 북돋우고, 생존력을 도모하므로 신명을 푸는 축제적인 행사이기도 했다. 그리고 세시풍속은 해마다 같은 양상으로 반복되기에 재생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계절별·월별 세시풍속으로 나누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시풍속으로 나누었으며, 봄 세시풍속은 음력으로 1월에서 3월까지로 정하고, 여름 세시풍속은 4월에서 6월까지, 가을 세시풍속은 7월에서 9월까지, 겨울 세시풍속은 10월에서 12월까지로 나누었다. 봄 세시풍속에는 설, 대보름, 삼짱날, 한식이 있으며, 여름 세시풍속으로는 초파일, 단오, 유두가 있다. 가을 세시풍속으로는 칠석, 추석이 있으며, 겨울 세시풍속으로는 상달, 동지, 선달로 나누어 세시풍속을 정의하고자 한다.

2) 오덕 (五德)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을 오성(五性)으로 표현한 것은 후한 광무제가 편찬한 『백호통의(白虎通義)』 『정성편(情性篇)』에서 시작된다.¹⁴⁾

인(仁)은 사람이 잘 살도록 베풀어 주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의(義)는

13) 장재천, 세시풍속의 사회교육적 의의, 한국사상과 문화, 47, 187-214, 2009.

14) 『백호통의(白虎通義)』 『정성편』. 五性者何謂 仁.義.禮.智.信也. 仁者, 不忍也, 施生愛人也. 義者, 宜也, 斷決得中也. 禮者, 履也. 履道成文也. 智者, 知也. 獨見前聞, 不惑干事, 見微者也. 信者, 誠也. 專一不移也.

‘마땅함’으로서 결단을 내리고 진실을 얻는 것이며, 예(禮)란 ‘실행하는 것’으로서 도(道)를 실행하고 문화를 이루는 것이며, 지(智)는 ‘아는 것’을 잘 드러내는 것, 신(信)은 ‘진실함’으로서 한결같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⁵⁾ 이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덕성을 말하며 즉 도덕성을 의미한다.

위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오덕(五德)을 세시풍속 체험교육과 연계하여 구성하는 시도를 하였다. 예(禮)는 의례문화로써 계절적인 변화의 시기마다 국가적인 “제” 의례와 가정에서의 조상숭배 예를 포함한다. 의(義)는 자연에 순응하는 제철음식으로써의 음식문화를 포괄한다. 평화롭게 공존하려는 조화와 공존의 기원을 엿볼 수 있다. 지(智)는 선인들의 생활속에서 슬기롭게 창조하고 지혜롭게 계승해 온 해학적 놀이문화를 포괄한다. 인(仁)은 선인들의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삶 속에서 희노애락으로써 시와 노래를 예술문화에 포괄한다. 신(信)은 공동체의식과 어울림의 문화로써 축제체험을 포괄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오덕(五德)을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세시풍속에 담겨있는 한국인의 삶과 역사를 이해하고, 나아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융합과 교류를 통해 화해와 대동의 윤리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을 제시하였다.

3) 문화체험교육콘텐츠

문화란 ‘총체적 삶의 양식’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문화란 인간에게 습득된 지식, 신념, 기술, 도덕, 관습 및 그 밖의 능력과 습관 등을 포함하는 총합체로 표현되기도 한다.¹⁶⁾

15) 고재욱, 유가윤리의 특성과 오상의 현대적 의미, 태동고전연구, (35), 147-171, 2015.

16) 구준모 외 2명, 「산업의 발전방안」, 서울, 을유문화사, 97, 2000.

미래사회에서는 민담이나, 신화, 전설 등의 상징재가 주축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능숙한 이야기꾼이 미래사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¹⁷⁾ 능숙한 이야기꾼이란 말과 글로써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음악의 선율이나 시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현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 선진국들은 이미 문화산업의 발전과 세계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고유의 문화에 대한 재발견과, 경쟁력 있고 차별화 될 수 있는 이미지를 우리 고유의 전통 소재에서 찾아내는 것뿐 아니라 이러한 소재들에 대하여 독창적이면서도 고유성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찾아 효과적으로 표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¹⁸⁾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서 현대까지 전해져 오는 세시풍속을 활용한 각 가정의 의례와 절기마다 자연으로부터 섭취되어오는 음식과 가정과 마을단위에서 행해지는 놀이, 시와 음악으로 표현하는 예술과 지방 축제 등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영상과 음악과 다양한 시각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통합프로그램

통합교육의 개념에 대한 의미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학자들 간의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학습자의 성격과 학습의 통합을 우선시하고 부분적인 학습들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하겠다. 즉, 부분적인 학습들이 상호 관련성을 맺어 총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게 되고 학습자의 내면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통합교육이다.¹⁹⁾

17) 이민영, 문화콘텐츠의 소구유형에 관한 연구, 디자인과학연구, 49, 2004.

18) 김유경, 액션러닝 기반 패션문화콘텐츠 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모형연구-문화콘텐츠 및 전통문화 콘텐츠 문헌연구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22, 57-66, 2015.

본 연구에서는 세시풍속에 나타난 의례, 음식, 놀이, 예술, 축제를 통합하여 교육함으로써 분리된 내용 영역보다는 통합된 전체경험을 통해 한국인의 일상 속에 들어있는 삶의 철학과 지혜를 배우며 역사성, 주기전승적 의미를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5) 외국인 유학생

세계 각국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래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한국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의 대상으로 다음과 같다.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학생 뿐만 아니라, 외국대학의 한국학과 및 세종학당 학생과 재외동포 및 재외 한국교육원 학생 대상을 말한다.

4. 한국 문화교육 선행연구

한국 문화교육과 관련된 연구로는 학회지를 토대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구 되어진 연구물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총 80편의 자료를 살펴보았으며, 세시풍속 이론적 고찰에 대한 인식연구와 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구, 문화콘텐츠 개발연구, 외국인 대상 문화교육연구, 비교문화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의 학문적 동향은 다음<표 I-2>과 같다.

첫째, 연도별 세시풍속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세시풍속 연구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세시풍속의 이론적 고찰과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세시풍속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시대에

19) 박영자, 유아전통문화교육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2015.

필요한 세시풍속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전통의 한 부분임을 재논의 하고자 이론적 고찰을 제시하였다. 셋째, 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을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넷째,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에서는 문화콘텐츠 연구가 활발하게 연구된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고 그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섯째, 외국인 대상 문화콘텐츠 개발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의 시책과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에 따른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한 정부와 학교, 민간단체에서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했으며, 본 연구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세시풍속체험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비교문화 연구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에 있어서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한국문화 체험을 시행하였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파악해 보고자 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바에 맞추어 분류한 것이므로 이 외의 세시풍속 연구물은 분석 자료에서 제외 되었으므로 추후 세시풍속의 동향 연구를 한다면, 세밀하게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표 I - 2 > 연도별 한국 세시풍속 문화교육 관련 연구

	연도	연구자	논문제목
1	1982	황성모	예절과 풍속의 현대적 의미
2	1985	장명희	한국과 일본의 세시풍속과 세시기의 비교연구
3	1990	임재해	세시풍속
4	1992	김명자	세시풍속의 기능과 그 변화
5	1993	임재해	세시풍속의 변화와 공휴일 정책의 문제
6	1995	김명호	세시풍속과 가정의례에 나타난 한국인의 신앙
7	1998	박정민	고려왕실의 세시의례
8	1998	임재해	동아시아 세 나라의 세시풍속 비교와 문화적 전통
9	2001	정승모	세시관련 기록들을 통해 본 조선시기 조선풍속의 변화
10	2002	김명자	마을사회에서 세시풍속의 조사와 연구
11	2003	김명자	세시풍속의 교육적 의의와 실천화
12	2003	최명림	한국 세시풍속의 변화와 문화콘텐츠 연구

13	2003	천진기	세시풍속의 미래전설
14	2004	박경하	한국의 문화원형콘텐츠 개발 현황과 과제
15	2004	김명자	세시풍속의 전승과 현대화 방안 연구
16	2005	이성숙	세시풍속 및 세시음식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
17	2005	김명자	도시생활과 세시풍속
18	2006	이경란	재북미 한인청소년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개발 연구
19	2007	이정진	축제이벤트 콘텐츠 개발
20	2007	신광철	한국전통음악의 세계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방향
21	2007	정민수	태백시의 단오 세시풍속 연구
22	2007	이창식	단오 문화유산과 문학콘텐츠
23	2007	장정룡	세시풍속과 콘텐츠
24	2008	박경환	기록유산을 활용한 전통문화콘텐츠 개발
25	2008	나정선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육 방법 연구
26	2008	최인학	한·중·일 세시풍속의 비교연구를 위한 제언
27	2008	전경옥	연등회의 전통과 현대축제화의 방안
28	2008	이연정	한식의 세계화 요인이 외국인의 한국 이미지,태도 및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29	2008	천진기	박물관의 조사연구-국립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30	2009	김만태	세시풍속의 기반 변화와 현대적 변용
31	2009	장미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의 생활문화교육콘텐츠 개발 및 구성
32	2009	권호	세시풍속에 나타난 세시풍속의 서술방식과 수용양상
33	2009	신원기	견우직녀 설화의 문학교육적 가치연구
34	2009	김월덕	세시기를 통해서 본 세시풍속의 재구성과 재탄생
35	2009	장재천	세시풍속의 사회교육적 의의
36	2010	김효경	조선왕실의 세시풍속의 맥락이
37	2010	윤나라	전통문화 중심도시 전주지역 주부들의 세시음식에 대한 인지도와 실천도
38	2010	김만태	현대 세시풍속에서 민속놀이의 존재 양상과 향후전망
39	2010	김영아	전통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의 학습모형개발 방안 연구
40	2010	이은숙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험 중심의 한국문화 교육 방안 고찰
41	2010	정남조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 요인 연구
42	2011	윤애숙	주한미군의 문화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43	2011	권오경	한·중 열두달 세시풍속 민요 비교
44	2011	이진하	세시풍속과 연계한 유아국악교육의 지도방안 연구
45	2011	유은목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세시풍속관련 음악의 지도방안 연구
46	2011	이경진	전통축제 체험프로그램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47	2012	이윤수	연등축제의 역사와 문화콘텐츠적 특성

48	2012	이명자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경험 및 요구 연구
49	2012	박소원	세시풍속을 이용한 국악교육 지도방안
50	2012	조성산	18세기후반~19세기 중반 조선 세시풍속서 서술의 특징과 의의
51	2012	이연수	외국인 대상 박물관교육의 총체적 접근에 관한 질적사례 연구
52	2012	양지선	외국인 학습자에 따른 한국문화 인식조사
53	2012	요위위	한·중 단오절 세시풍속 비교 연구
54	2013	서영수	서양인이 본 한국의 세시풍속
55	2013	강향숙	전통음악과 예절 중심의 유아전통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
56	2013	민진영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학업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57	2013	염원희	크리스마스 도입과 세시풍속화 과정에 대한 연구
58	2013	양민정	세시풍속을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이해 교육방안 연구
59	2013	박세아 주영애	대학 내 국제어학원 과정-외국인 학생의 한국생활문화교육 실태 연구-
60	2014	김유선	세시풍속을 활용한 박물관 가족교육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
61	2014	박은정	조선후기 세시풍속 그리고 일상
62	2014	유백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초교양과목 개설 방안 연구
63	2014	신윤미	세시풍속 주제 중심의 교과·통합적 창의인성교육 교수-학습법 연구
64	2014	당홍	한·중 세시풍속 비교 연구
65	2015	양민정	한국·몽골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교육 콘텐츠 연구
66	2015	이가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학 교재개발 연구
67	2015	이승연	국외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
68	2015	김아현	지역문화와 연계한 세시풍속의 교수·학습 방안
69	2015	주영애	세시풍속과 데이 시리즈 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비교
70	2015	김유경	액션러닝 기반 패션문화콘텐츠 융합교육프로그램 개발모형 연구
71	2015	원신애	한국의 전통문화콘텐츠와 기독교 문화콘텐츠의 조우를 통한 기독교 교육 문화콘텐츠의 개발 가능성에 관한 연구
72	2015	이하나	한국 문묘제례의 전통의례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73	2015	배재원	세종 한국어 기반 문화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74	2015	박영자	유아전통문화교육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75	2016	윤영	국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재 개발 방향
76	2016	윤옥경	외국인 교수를 위한 한국어·한국문화교육 요구분석 연구
77	2016	이규찬	외국인의 한국 전통생활문화 체험 관광에 관한 인식 연구
78	2016	강순예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적 활용
79	2016	황인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 분석
80	2016	김경미	문화교육의 도구로서의 세시풍속과 축제 그리고 대동놀이

세시풍속 관련 연구<표 I-3>를 분류해 보면, 세시풍속의 이론적 연구와 인식연구는 28편의 연구를 고찰 하였고, 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구는 12편의 연구를 살펴보았으며, 문화콘텐츠 개발 연구는 13편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외국인 대상 문화콘텐츠 개발 연구는 18편의 연구를 살펴보고, 비교문화 연구로는 9편의 연구를 파악해 보았다.

<표 I-3> 세시풍속 관련 연구 분류표

	세시풍속 관련 연구 분류	연구물
1	세시풍속 이론적 고찰 및 인식연구	28편
2	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구	12편
3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13편
4	외국인 대상 문화콘텐츠 개발 연구	18편
5	비교문화 연구	9편
총		80편

1) 세시풍속 이론적 고찰 및 인식연구

세시풍속 이론적 고찰 연구에서는 28편의 연구<표 I-4>를 살펴보았다.

김명자의 논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대화에 따른 세시풍속의 변동과정」(1989)·「세시풍속의 기능과 그 변화」(1992)·「세시풍속의 교육적 의의와 실천화」(2003)·「세시풍속의 전승과 현대화 방안 모색」(2004)·「도시생활과 세시풍속」(2005)의 연구에서는 세시풍속의 시대적인 배경에 따른 이론적인 고찰과 전통문화의 새로운 창조로 기능하는 문화로서의 세시풍속의 교육적인 의의와 실천화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천진기(2003)의 「세시풍속의 미래전설」 연구에서는 세시풍속은 과거시제가 아니라 현재시제로 조사 기술되어야 하며, 세시풍속의 연구가 전통적인 관행이나 이미 사라진 풍속을 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근에 형성되고 지금 통용되고 있는 세시풍속 또는 연중행사도 다루어야 할 뿐 아니라 현

재의 문화적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속은 과거시제가 아니라 현재시제이며, 아니 미래시제로도 연결되는 것이며, 과거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그것이 후대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래는 과거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세시풍속의 현재적 기술은 필수적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즉 세시풍속연구에서 생활문화연구 관점이 유용함을 나타낸 바를 하겠다.

장재천(2009)은 세시풍속은 없어져야 할 낡은 풍속이 아니고 반드시 계승되어야 할 문화라고 하였으며, 전통문화인 세시풍속의 소멸은 산업화에 따른 농업의 피해에만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업주의문화와 서구문화의 무비판적인 수용도 큰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서영수·장두식(2013)의 연구인 「서양인이 본 한국의 세시풍속」에서 서양인들은 한국의 세시풍속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석전과 같은 호전적인 놀이조차 스포츠로 인식하기도 했다. 개성의 단오날은 ‘신부의 날’로서 가부장적제도 속에 속박 받고 있었던 여성들의 해방일 이었다는 기록은 지금은 계승이 끊긴 세시풍속에 대한 묘사인데 이러한 기록들은 세시풍속의 전통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양인들은 세시풍속과 놀이를 통하여 정체와 은둔이라는 담론으로 이해해 왔던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었다.

주영애(2015)의 「세시풍속과 데이 시리즈 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 비교」 연구에서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시풍속과 데이시리즈 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 비교를 통하여 전통문화인 세시풍속에 대한 계승과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세시풍속의 의미와 가치 전수를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청되며, 기업에서의 세시풍속문화 적용 방안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에서의 교육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며, 세시음식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일상에서 즐기고, 민관학 연계의 세시풍속 지역축제 콘텐츠

발굴이 요청된다고 시사하고 있다.

세시풍속의 시대적인 배경에 따른 이론적인 고찰을 통하여 과거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전통문화의 새로운 창조로써, 세시풍속에 대한 계승과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내고, 이러한 세시풍속의 이론과 인식연구를 기초로 하여 생활문화연구의 관점에서 본 연구의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표 I-4 > 세시풍속 이론적 고찰 및 인식연구

	연구자	연도	논문 제목	출 처
1	황성모	1982	예절과 풍속의 현대적 의미	정신문화연구
2	임재해	1990	세시풍속	한국민속학
3	김명자	1992	세시풍속의 기능과 그 변화	민속연구
4	임재해	1993	세시풍속의 변화와 공휴일 정책의 문제	비교민속학
5	김영호	1995	세시풍속과 가정의례에 나타난 한국인의 신앙	세계의신학
6	박종민	1998	고려왕실의 세시의례	민속학연구
7	정승모	2001	세시관련 기록들을 통해 본 조선시기 조선풍속의 변화	역사민속학
8	김명자	2002	마을사회에서 세시풍속의 조사와 연구	민속연구
9	김명자	2003	세시풍속의 교육적 의의와 실천화	비교민속학
10	천진기	2003	세시풍속의 미래전설	한국문화연구
11	김명자	2004	세시풍속의 전승과 현대화 방안 연구	민속연구
12	김명자	2005	도시생활과 세시풍속	한국민속학
13	이성숙	2005	세시풍속 및 세시음식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
14	정연수	2007	태백시의 단오 세시풍속 연구	강원민속학
15	천진기	2008	박물관의 조사연구-국립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박물관학회
16	김만태	2009	세시풍속의 기반 변화와 현대적 변용	비교민속학
17	권호	2009	세시풍속에 나타난 세시풍속의 서술방식과 수용양상	인문과학연구
18	신원기	2009	견우직녀 설화의 문학교육적 가치연구	박사학위논문
19	김월덕	2009	세시기를 통해서 본 세시풍속의 재구성과 재탄생	민속학연구
20	장재천	2009	세시풍속의 사회교육적 의의	한국사상과 문화
21	김효경	2010	조선왕실의 세시풍속의 맥락이	역사민속학
22	김만태	2010	현대 세시풍속에서 민속놀이의 존재 양상과 향후전망	비교민속학
23	윤나라	2010	전통문화 중심도시 전주지역 주부들의 세시음식에 대한 인지도와 실천도	석사학위논문

24	조성산	2012	18세기후반~19세기 중반 조선 세시풍속서 서술의 특징과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25	서영수	2013	서양인이 본 한국의 세시풍속	사학지
26	염원희	2013	크리스마스 도입과 세시풍속화 과정에 대한 연구	국학연구
27	박은정	2014	조선후기 세시풍속 그리고 일상	동아시아문화
28	주영애	2015	세시풍속과 데이 시리즈 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 비교	유학연구

2) 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구

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구<표 1-5>에서는 학위논문이 많았으며, 한국문화교육 대상으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 2세 청소년 대상의 한국문화 프로그램 연구 등 본 연구와 관련한 내용 총 12편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이경란(2006)의 연구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2세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뿌리찾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체성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내용으로는 태극기, 가족의 호칭, 효, 한국의 민요, 역사, 예절(몸가짐, 식사, 언어), 의례(돌, 성년례, 혼례절차, 제사), 음식(명절, 전통 음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정민(2007)의 연구에서는 언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을 교육 내용으로 정하고 이를 체계적인 학습으로 다룸으로써 이문화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언어학습의 효과를 기대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실에서의 한국문화수업 자료개발의 원리를 살펴보면,

- ① 전통과 현대가 연결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 ② 실제로 활용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자료여야 한다.
- ③ 자료의 체계성 부각을 위해서 대주제와 소주제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학습자의 모국 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 ⑤ 객관적인 시각에서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⑥ 체험과 활동으로 제시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⑦ 학습자의 언어수준에 따라 교사가 알맞게 편집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²⁰⁾

이정민은 이를 토대로 세시풍속을 활용한 문화수업 모형을 만들었으며, 유은목(2011)의 연구는 세시풍속 관련 음악을 초등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를 통한 지도방법을 구안하였으며, 강향숙(2013)의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전통음악과 예절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유아에게 정서지능, 친사회적 행동,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김아현(2015)의 연구에서는 2009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초등학교별 목표에 부합하고자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였고, 박영자(2015)의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세시풍속과 다례를 활용한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의 인식 및 태도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체험교육 모형개발을 하였으며, 외국인 학생들이 이문화에 대한 문화적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교육안을 제시하였다.

<표 I -5 > 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구

	연구자	연도	논문 제목	출처
1	이경란	2006	재북미 한인청소년을 위한 한국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박사학위논문
2	이정민	2007	세시풍속을 이용한 문화수업 모형 개발	한국언어문화교육
3	김영아	2010	전통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의 학습모형개발 방안 연구	인문콘텐츠
4	이진하	2011	세시풍속과 연계한 유아국악교육의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5	유은목	2011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세시풍속관련 음악의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6	이경진	2011	전통축제 체험프로그램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

20) 이정민, 세시풍속을 이용한 문화수업 모형개발, -문화수업자료 개발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3(2), 155-179, 2007.

				생활과학회
7	박소원	2012	세시풍속을 이용한 국악교육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8	강향숙	2013	전통음악과 예절 중심의 유아전통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	박사학위논문
9	김유선	2014	세시풍속을 활용한 박물관 가족교육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10	신윤미	2014	세시풍속 주제 중심의 교과·통합적 창의인성교육 교수-학습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11	김아현	2015	지역문화와 연계한 세시풍속의 교수·학습 방안	국악교육연구
12	박영자	2015	유아전통문화교육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3) 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

세시풍속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연구<표 1-6>는 2007년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학교에서도 다양한 문화콘텐츠학과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최명림(2003)의 연구에서 21세기는 글로벌시대로 자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할 때만이 세계시장에서 절대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세시풍속의 공연예술 콘텐츠화, 문화관광 축제의 콘텐츠화, 스포츠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한국적인 놀이문화를 창출하여 놀이를 멀티미디어화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다양화 된 매체를 통해 한국의 전통놀이 문화를 체계적으로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신광철(2007)은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이 문화콘텐츠 강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적 문화콘텐츠의 창출’을 언급하였다. 한국적 문화콘텐츠의 창출은 ‘우리 예술의 콘텐츠화’로부터 시작된다.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민속악이며, 전통음악의 문화콘텐츠화를 통한 세계화는 단순히 문화상품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전통음악을 세계 시민들에게 나누어줄 문화적 의무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함을 논의하고 있다.

이윤수(2012)의 연구에서는 연등축제를 통하여 문화적 특성과 문화콘텐츠

화를 연구 하였다. 연등축제 속에는 세시풍속의 특성과 종교의식적 특성, 공동체의식 함양의 특성,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담겨 있다고 하였다. 연등축제를 통하여 대동놀이의 공동체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대동놀이에 참여한다는 것은 “축제를 통해 공동체의 신앙체계를 체험”하는 것이고, “민속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한국적인 놀이문화를 창출하여 놀이를 멀티미디어화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다양화 된 매체를 통해 한국의 전통놀이 문화를 체계적으로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유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체험콘텐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안하였으며, 체험과 활동으로 제시하고, 영상물과 시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제시하였다.

<표 I-6 > 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

	연구자	연도	논문 제목	출 처
1	최명립	2003	한국 세시풍속의 변화와 문화콘텐츠 연구	박사학위논문
2	박경하	2004	한국의 문화원형콘텐츠 개발 현황과 과제	인문콘텐츠
3	이정진	2007	축제이벤트 콘텐츠 개발	인문콘텐츠
4	신광철	2007	한국전통음악의 세계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방향	인문콘텐츠
5	이창식	2007	단오 문화유산과 문학콘텐츠	강원민속학
6	장정룡	2007	세시풍속과 콘텐츠	강원민속학
7	박경환	2008	기록유산을 활용한 전통문화콘텐츠 개발	국학연구
8	전경옥	2008	연등회의 전통과 현대축제화의 방안	남도민속연구
9	윤애숙	2011	주한미군의 문화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10	이윤수	2012	연등축제의 역사와 문화콘텐츠적 특성	박사학위논문
11	원신애	2015	한국의 전통문화콘텐츠와 기독교 문화콘텐츠의 조우를 통한 기독교 교육 문화콘텐츠의 개발 가능성에 관한 연구	종교교육학 연구
12	이하나	2015	한국 문묘제례의 전통의례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어문화회
13	김유경	2015	액션러닝 기반 패션문화콘텐츠 융합교육프로그램 개발모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4) 외국인 대상 문화교육 연구

외국인 대상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표 I-7>는 2010년 이후 급속도로 발표되었다. 2015년 정부의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이 제기되면서 2023년까지 20만명의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문화교육은 크게 문화교육과 문화체험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화교육이란 한국문학을 이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을 의미하며, 문화체험교육이란 현장학습을 통한 문화교육 방법을 의미한다.

우선,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중섭²¹⁾은 1980년대부터 2007년까지 발표된 한국 문화교육 관련 연구물 343개를 분석하였다. 이들 문화교육 연구는 대부분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문화체험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장미영²²⁾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의 생활문화교육콘텐츠 개발 및 구성에서 문화캠프 운영사례와 전화로 음식주문하기, 전화로 쇼핑하기, 교환 및 환불 신청하기, 초대하기, 서비스 신청 등 한국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생활문화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또한 장미영은 한국어교육과 한국어능력 검정 시험이 1급~ 6급으로 변별화 되어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여 문화교육도 6단계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①기본생활예절적응 ②문화이해 ③일상생활적응 ④문화수용 ⑤ 가치관의 이해 ⑥문화소통 으로 제안하였다.

서영실·최배영²³⁾의 연구에서 문화교육의 일환으로 한국다도교육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외국인들은 다도교육에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나타내었으며,

21) 김중섭,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이중언어학, (27), 59-85, 2008.

22) 장미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의 생활문화교육콘텐츠 개발 및 구성, 담화.인지언어학회, 57-79, 2009.

23) 서영실·최배영, 외국인 한국어학습자들의 한국 다도교육 요구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차학회지, 13(1), 57-78, 2007.

다도교육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의의를 지닌다고 응답하였다.

이명자²⁴⁾(2012)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문화 요구에 대한 조사에서 한국의 일상에 나타난 한국인의 뿌리에 대한 정신적 가치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륙별, 대상별, 관심분야별 체험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박세아·주영애²⁵⁾ 연구에서는 대학 내 국제어학원 과정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생활문화교육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가 이해나 감상의 객체가 아닌 참여의 주체가 되었을 때 문화체험 학습은 학습 그 이상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경조사예절, 인사예절, 식사예절, 다도예절 등에 관하여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었다.

이승연·김희선·이동은²⁶⁾의 연구에서 세종학당 체험중심문화 프로그램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수업의 틀은 유연성과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교재는 시각성, 간편성이 있으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문화 교구는 실제성, 대표성,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수 지원 자료는 PPT와 편리성, 대체성이 있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문화요구를 분석해보면, 체험중심문화교육이 요구되며, 정신적인 측면을 알 수 있는 한국인의 일상을 통해 뿌리를 알고 싶다고 요구하고 있다.²⁷⁾

<표 I-7 > 외국인 대상 문화교육 연구

	연구자	연도	논문제목	출처
1	나정선	2008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육 방법 연구	박사학위논문
2	이연정	2008	한식의 세계화요인이 외국인의 한국 이미지, 태도 및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3	장미영	2009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의 생활문화교육콘텐츠 개발 및 구성	담화·인지 언어학회

24) 이명자,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경험 및 요구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5) 박세아·주영애, 외국인 학생의 한국생활문화교육 실태연구, 유라시아연구, 10(1), 433-454, 2013.

26) 이승연·김희선·이동은, 국외 한국문화 프로그램 개발 방안연구 -세종학당 체험중심문화프로그램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이중언어학, (59), 197-220, 2015.

27) 이명자, 위의 연구, 2012.

4	이은숙	2010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험 중심의 한국문화 교육 방안 고찰	국어문학
5	정남조	2010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 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6	이명자	2012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경험 및 요구 연구	석사학위논문
7	이연수	2012	외국인 대상 박물관교육의 총체적 접근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박사학위논문
8	양지선	2012	외국인 학습자에 따른 한국문화 인식조사	한국언어 문화학
9	민진영	2013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학업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10	박세아 주영애	2013	대학 내 국제어학원 과정 -외국인 학생의 한국생활문화교육 실태 연구-	유라시아연구
11	유백열	2014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초교양과목 개설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12	이가원	2015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학 교재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13	이승연 김희선 이동은	2015	국외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 -세종학당 체험중심문화프로그램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이중언어학
14	배재원	2015	세종 한국어 기반 문화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15	윤옥경	2016	외국인 교수를 위한 한국어·한국문화교육 요구분석 연구	
16	이규찬	2016	외국인의 한국 전통생활문화 체험 관광에 관한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17	윤영	2016	국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재 개발방향	인류사회과학
18	황인교	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분석	한국언어문화 학

5) 비교문화 연구

시대적 흐름으로 다문화시대가 도래하고 결혼이주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연구들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비교문화적인 연구<표 I-8>가 제시되기 시작했다.

임재해²⁸⁾의 연구에서는 한중일 세 나라의 비교 세시풍속을 다룬 10개항을 말하고 있다.

① 세시풍속을 비교해 보는 눈과 볼거리 ② 국가 차원의 역법 전환과 세시풍속의 지속성 ③ 공식적인 역법과 세시풍속의 길항 관계 ④ 세시풍속을 양력

28) 임재해, 동아시아 세 나라의 세시풍속 비교와 문화적 전통, 인문연구, (28), 359-408, 1998.

화 한 일본과 국가 개혁 ⑤ 세시풍속의 시기와 보름의 시간인식 ⑥ 보름 풍속의 차이와 종교문화의 특성 ⑦ 중·일 명절이 지닌 역법상의 동질성 ⑧ 중·일 명절의 차이점과 문화적 전통 ⑨ 설의 민속과 시작의 시간인식 ⑩ 세시풍속의 차이로 읽는 문화의 차이였으며 이와 같은 비교연구의 목적은 한국 세시풍속의 정체성을 보다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알고자 하는데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권오경²⁹⁾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세시풍속민요는 중국세시풍속민요와 비교한 결과,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것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같은 세시라도 전혀 다른 내용을 노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 중국의 세시풍속 및 그 세시풍속을 인식하는 민중의 의식이 이질적임을 밝혔다.

양민정³⁰⁾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몽골과의 교류를 통해서, 특히 몽골 여성의 결혼 이주 현황이 급증하면서,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으로의 정착, 나아가서는 한국형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상호문화콘텐츠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김경미³¹⁾의 연구에서는 세시풍속 중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전승된 전통 종합축제인 강릉단오제와 세시절기의 가장 대표적인 대동놀이인 줄다리기의 예를 통해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단오제와 줄다리를 비교하였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의 한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동아시아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안된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문화적인 문화를 통하여 문화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외국인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자존감이 상승되고, 그로인해 한국에서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 여긴다.

29) 권오경, 한·중 열두달 세시풍속 민요 비교, 한국민요학, (32), 7-54, 2011.

30) 양민정, 한국·몽골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교육 콘텐츠 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 (52), 5-34, 2015.

31) 김경미, 문화교육의 도구로서의 세시풍속과 축제 그리고 대동놀이,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 11차, 전국학술대회, 333-345, 2016.

<표 I-8 > 비교문화 연구

	연구자	연도	논문 제목	출 처
1	장명희	1985	한국과 일본의 세시풍속과 세시기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2	임재해	1998	동아시아 세나라의 세시풍속 비교와 문화적 전통	인문연구
3	최인학	2008	한·중·일 세시풍속의 비교연구를 위한 제언	비교민속학
4	권오경	2011	한·중 열두달 세시풍속 민요 비교	한국민요학
5	요위위	2012	한·중 단오절 세시풍속 비교 연구	동양예학
6	양민정	2013	세시풍속을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이해 교육 방안 연구	세계문화비교 연구
7	당홍	2014	한·중 세시풍속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8	양민정	2015	한국·몽골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교육 콘텐츠 연구	세계문화비교 연구
9	김경미	2016	문화교육의 도구로서의 세시풍속과 축제 그리고 대동놀이	한국언어문화 교육학회

이상의 선행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현재까지의 한국 문화교육은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의 국제어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의 문화교육은 교과서 내에서 책으로만 설명을 하니 학생들의 이해도와 참여도가 떨어지고, 문화체험 교육은 그 유래와 뿌리에 대한 설명도 없이, 보여지는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아 유학생들의 문화학습에 대한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한국의 일상을 담은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인의 삶과 역사에 대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한국 세시풍속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한국 세시풍속문화의 역사적 배경

1) 세시풍속의 정의와 기능

세시풍속은 한 해를 단위로 일정한 시기에 관습적·주기적·전승적·반복적·의례적으로 거행되는 행동양식 또는 생활행위다.³²⁾ 이는 매년 반복되는 관습으로 일상생활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³³⁾ 옛날부터 세시(歲時), 세사(歲事), 월령(月令), 시령(時令)등으로 불리면서 특히 그 계절성이 강조되었으며, 절일(節日)이라고 하여 명절로 여겼다.³⁴⁾

전통사회에서 주된 생업은 농경이었다. 농경의 주기는 세시풍속의 주기와 맞물려 있다. 세시풍속은 농사의 풍농을 예측(豫祝)·기원·감사하는 의례였으며, 인간의 삶과 직결되어 복을 비는 의례였다.³⁵⁾ 이때 즐기는 놀이는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기원하는 의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세시명절은 일상의 날과 구별되는 날이다. 이 날 행해지는 세시풍속은 생활의 마디로서 생기를 북돋우고, 생존력을 도모한다. 그래서 세시풍속은 신명을 푸는 축제적인 행사이기도 했다. 그리고 세시풍속은 해마다 같은 양상으로 반복되기에 재생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선달 그믐날 수세로 불을 밝히고 대불을 놓는 것은 묵은 한해를 폐기시킨다는 의미가 있다.³⁶⁾

32) 민속학회 편, 「한국민속학의 이해」, 서울:문학아카데미, 108, 1994.

33) 안혜숙 외, 한국가정의 의례와 세시풍속, 신정, 2002.

34) 정승모, 한국의 세시풍속, 학교재, 10, 2001.

35) 장재천, 세시풍속의 사회교육적 의의, 한국사상과 문화, 47, 187-214, 2009.

36) 정승모, 한국의 세시풍속, 학교재, 10, 2001.

2) 한국 세시풍속문화의 역사적 변천

우리나라 세시풍속의 역사는 문헌상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상고시대부터 이미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서 조선,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세시풍속 역사의 흐름을 문헌을 통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1)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세시풍속

삼국시대 세시풍속을 알 수 있는 문헌자료는 매우 한정적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가 대표적인 문헌이며, 이 시기의 세시풍속이 전면적으로 수록되어 있지는 않다.

삼국시대의 세시풍속을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문헌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왕실 중심의 국가의례와 관련된 세시풍속이 많이 등장한다.

신라의 국가의례 중에서 세시풍속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시조묘(始祖廟)의 사시제(四時祭)이다. 고대인에게 시조묘에 대해 정기적인 제사를 춘하추동의 사계절에 한번씩 행한다는 것은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삼국지·위서』 왜인전(倭人傳)에는

“정세(正歲)나 사계절을 모르고 다만 봄갈이와 가을걷이를 기억하여 이로써 연기(年紀)로 삼는다.” 는 기록이 있다.³⁷⁾

이것은 농사와 관련하여 작물의 변화상을 통해서 일 년의 주기를 이해한다는 뜻이다. 시조묘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제사를 지낸 사시제는 중국의 의

37) 『三國志·魏書』·倭人傳, 不知正歲 但記春耕秋收以爲年紀

례가 수용되기 이전에 신라왕실에 있었던 세시풍속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백제에서는 왕이 매년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하늘과 오제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백제왕실의 국가의례 중에서 세시풍속으로 자리 잡은 것은 제천과 오제신 제사라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의 제사조 기록에는

“『책부원귀』에 이르기를 백제는 매년 사계절의 중간 달인 사중월(四仲月)에 왕이 하늘과 오제(五帝)인 동·서·남·북·중앙의 다섯 방면의 오방신에게 제사를 지냈다.”³⁸⁾

고구려의 동맹(東盟)은 왕실에서 행한 연례의 세시풍속으로 의미가 있다. 즉 고구려에서는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로 국중(國中)에 크게 모이는데 왕이 몸소 제사를 지낸다. 동맹은 왕실이 주도한 국가의례의 하나로 신라의 시조묘 제사, 백제의 천제 및 오제제사와 동격의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여에서는 12월에 국중대회로 영고(迎鼓)라는 행사가 열렸다. 이때에는 형옥(刑獄)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고 한다.

“은력(殷曆) 정월인 납월(臘月, 12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로 국중(國中)에 크게 모이는데 여러날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춘다. 이를 영고라고 한다.”³⁹⁾

동예에서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해마다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니 이를 무천(舞天)이라 한다.”⁴⁰⁾

38) 『三國史記』 卷32 雜誌 第1 祭祀條

冊府元龜云百濟 每以四仲之月王祭天及五帝之神 立其始祖仇台廟於國城 歲四祠之

(按海東古記 或云東明 或云始祖優台 北史及隋書皆云東明之後有仇台立國於帶方 此云始祖仇台 然東明爲始祖 事述明白 其餘不可信也)

39) 『後漢書』 卷85 東夷列傳75 夫餘國, 以臘月祭天 大會連日飲食歌舞 名曰迎鼓 是時斷刑獄解囚徒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夫餘, 以殷正月祭天 國中大會連日飲食歌舞 名曰迎鼓 於是時斷刑獄解囚徒

40) 『後漢書』 卷85 東夷列傳75 濊, 常用十月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가야에서는 매년 7월 29일에 수로왕에 대한 제사가 거행되었다.⁴¹⁾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세시풍속의 특징으로는 신라의 사시제, 백제의 제천과 오신제, 고구려의 동맹 등 왕실에서 주도한 국가의례가 특징이었으며, 부여의 영고, 동예의 무천, 가야의 수로왕에 대한 제사 등 제천의 의식과 시기별로 제 의례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2) 고려시대 세시풍속

고려시대에 중요하게 인식된 세시풍속에 대해서는 『고려사』 형금(刑禁)조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민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고려의 9대 속절(俗節)로는 원정(元正), 상원(上元), 한식(寒食), 상사(上巳), 단오(端午), 추석(秋夕), 중구(重九), 동지(冬至), 팔관(八關) 이 있다.⁴²⁾ 9대 속절과 관리의 휴가일을 정하는 기준<표 II-1>을 보면 그 방식에 태음력과 태양력이 두루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기본은 태음력이지만, 태양력인 24절기도 중요하게 쓰였다.

『고려사절요』에는 24절기의 특정 일자가 지닌 속신(俗信)에 대해 서술한 기록도 보인다.

“윤달에 문하시중 유진 등이 아뢰기를,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음양이 고르지 못한 것은 모두 형정이 시기에 맞지 않아 일어난 것입니다. 삼가 「월령(月令)」을 참고하건대, 3월

41) 『三國遺事』 卷2 駕洛國記條, 此中更有戲樂思慕之事每以七月二十九日 土人吏卒陟乘帖 設帷幕 酒食歡呼 而東西送目 壯健人夫 分類以左右之自望山島駿蹄駸駸而競溱於陸 鷁首泛泛而相推於水北指古浦而爭趨 盖此昔留天神鬼等望后之來急促告君之遺述也

42) 원정(元正)은 새해 첫날이며, 상원(上元)은 정월 대보름으로 태음력에 기초한 것이다. 한식(寒食)은 동지(冬至)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청명절 바로 다음 날이든지 같은 날에 해당되는데, 태양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사(上巳)는 음력 3월 3일을 가리키며, 단오(端午)는 음력 5월 5일, 중구(重九)는 음력 9월 9일, 추석(秋夕)은 음력 8월 15일로 모두 태음력을 근거로 날짜를 정했다. 팔관회는 보통 11월 15일에 개경에서 열렸다. 역시 태음력이 기준이다. 동지(冬至)는 24절기의 하나로 대한(大寒)과 소한(小寒) 사이에 있는데, 태양력을 근거로 계산을 한다. 『고려사』 권84 제38권 형법1 금형.

의 절(節)에는 옥을 줄이고 질곡(桎梏)을 제거하며 함부로 매질하지 않고 옥소를 중지하며, 4월의 중기에는 죄가 무거운 죄수에게는 관대하게 하고 가벼운 죄수는 내보내며, 7월의 중기에는 옥을 수리하고 질곡을 갖추며 가벼운 형을 결단하고 작은 죄를 처결해야 한다.” 고 했다.⁴³⁾

< II-1 > 고려시대의 속절(俗節)과 관리급가(官吏給暇)

속절명(俗節名)	월 일	관리급가(휴가일수)
원정(元正)	1월 1일	7일
상원(上元)	1월 15일	3일
한식(寒食)	동지로부터 105일	3일
상사(上巳)삼진날	3월 3일	1일
단오(端午)	5월 5일	1일
추석(秋夕)한가위	8월 15일	1일
중구(重九)	9월 9일	1일
동지(冬至)	11월 절기	1일
팔관(八關)	11월 15일	3일

출처: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편, 국립민속박물관, 2003.

24절기는 한반도가 중국적 세계 질서에 편입되기 시작한 이후,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민간에도 널리 퍼졌을 가능성이 많다. 고려시대 세시풍속은 불교의 영향, 유교의 영향, 중국의 영향, 그리고 토착적인 세시풍속의 습합과정이 일정하게 완성되는 단계로 보면 좋을 듯하다.⁴⁴⁾ 이것이 조선시대에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전통적인 세시풍속이라 하는 명절로 자리를 잡는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세시풍속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측면은 불교와 관련된 행사가 일반 민(民)의 세시풍속이기 보다는 왕실 중심으로 국왕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였다. 연등회, 석가 탄생일, 우란분재, 팔관회가 가장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고려의 팔관회는 신라와 태봉의 팔관회가 도입·계승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 태조 때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43) 『高麗史節要』 第2卷.玄宗顯文大王 戊午 九年四月, 閏月門下侍中劉瑄等 奏民庶疫癘 陰陽愆伏皆刑政不時所致也謹按月令 三月節 省囹圄 去桎梏 無肆掠 止獄訟四月中氣 挺重囚出輕癘 七月中氣 繕囹圄 具桎梏 斷薄刑 決小罪 又按獄官令 從立春至秋分 不得奏決死刑 若犯惡逆不抱此令然恐法吏未盡審詳請令後內外所司皆依令旅行 從之

44) 국립민속박물관, 고려시대 세시풍속연구, 정구복 외, 4, 2006.

“11월에 팔관회를 베풀었다. 유사가 아뢰기를, 전대의 임금이 해마다 중동(仲冬)에 팔관재(八關齋)를 크게 베풀어서 복을 빌었으니, 그 제도를 따르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짐이 덕이 없는 사람으로 왕업을 지키게 되었으니 어찌 불교에 의지하여 국가를 편안하게 하지 않으리요. 하고, 드디어 구정(毬庭)의 한 곳에 윤등(輪燈)을 설치하고 향등(香燈)을 곁에 벌여 놓고 밤이 새도록 땅에 가득히 불빛을 비추어 놓았다. 또 가설무대를 두 곳에 설치하였는데 각각 높이가 5장 남짓하고 모양은 연대(蓮臺)와 같아서 바라보면 아른아른 하였다. 갖가지 유희와 노래, 그리고 춤을 그 앞에서 벌였는데 사선악부(四仙樂部)의 용(龍), 봉(鳳), 상(象), 마(馬), 차(車), 선(船)은 모두 신라의 고사였다. 백관이 도포를 입고 홀(物)을 들고 예를 행하였으며, 구경하는 사람이 서울을 뒤덮어 밤낮으로 즐기었다. 왕이 위봉루에 나가서 이를 관람하고 그 명칭을 부처를 공양하고 귀신을 즐겁게 하는 모임이라 하였는데, 이 뒤로부터 해마다 상례(常例)로 삼았다.”⁴⁵⁾

연등회는 대체로 태음력 2월 15일에 개최되었다. “2월 보름날에 불교의 풍속으로 연등(燃燈)을 하는데 중국의 상원절(上元)과 같다.”고 적은 중국기록도 있다. 즉 중국의 상원절 연등행사와 유사하지만, 그것이 불교적인 색채를 지니지 않은데 비해 고려에서는 불교행사로 연행되었다.

“신라 풍속에 해마다 2월이 되면 초 8일부터 15일까지 서울의 남녀가 다투어 흥륜사의 전각과 탑을 도는 것으로써 복회(複會)를 삼았다.”⁴⁶⁾

2월에 복회를 행했던 신라의 전통이 고려에 이어져서 연등회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고려도경』에는 연등회는 봄이 오는 길목에 행해진 세시풍속으로 봄의 소식과 함께 불거리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를 좋아하여 2월 보름에 모든 절에서 촛불을 켜는데 극히 변화하고 사치스럽다. 왕과 비빈이 다 가서 구경하고 개경 사람들이 도로를 시끄럽게 메운다.”⁴⁷⁾

45) 『高麗史節要』. 第1卷. 太祖 辰星大王戊寅 元年 十一月, 十一月說八關會 有司言前王每歲仲冬 大設八關齋以祈福 乞遵其制王曰 朕以不德 遵守大業 盍依佛教安輯邦家送於毬庭 置輪燈一所 香燈旁列滿地光明徹夜 又結綵棚兩所 各高五丈餘狀若連臺 望之縹緲 呈百戲歌舞於前其四仙樂部 龍鳳象馬車船皆新羅故事 百官袍笏行禮觀者傾都晝夜樂焉 御威鳳樓觀之 名爲供佛樂神之會 自後歲以爲常

46) 『三國遺事』 卷五感通第7金現感虎條, 新羅俗每當仲春 初八至十五日都人士女 競逸輿輪寺之殿塔爲福會

47) 『高麗圖經』 卷17祠宇. 又俗喜浮屠 二月望日諸僧寺煙燭極繁侈王與妃嬪皆往觀之 國人喧闐道路

고려시대 불교적 세시풍속으로 사월 초파일의 있다. 축하의 의미로 연등도 했다. 사월 초파일에는 호기동(呼旗童) 놀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풍속으로 전해져 내려오기도 했다.

“왕이 부처의 생일에 궁중에서 연등하고 중 1백 명을 밥 먹이고 기악을 연주하며 구경하였다.”⁴⁸⁾

“왕이 호기동(呼氣童)의 놀이를 대궐 뜰에서 구경하고 베 1백 필을 내려 주었다. 나라 풍속에 4월 8일 석가의 생일에, 집집마다 등불을 달고 여러 아이들이 종이를 오려서 장대에 붙여 기를 만들어 성중의 거리로 돌아다니고 소리치면서 쌀과 베를 구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였는데, 이를 호기(呼旗)라 하였다.”⁴⁹⁾

당나라의 문화적 영향 하에 있었던 통일신라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옛 제도에는 생신과 원정(元正) 동지에 백관이 하례할 때에 재상으로는 입직한 사람만이 반열(班列)을 거느릴 뿐, 그 밖의 재상은 반열에 참여하지 않는다. 근래에 송나라 조정의 의식 제도를 들으니, 무릇 하례하는 날은 그 예가 조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니, 이제부터는 송나라 조정의 의식과 꼭 같게 하라.”⁵⁰⁾

고려 왕실의 세시풍속의 특징을 살펴보면 불교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던 시대적 분위기와는 달리 유교적 특징을 많이 보이고 있다.⁵¹⁾ 이는 성종이 유교적 기반으로 고려를 통치하려 한 의도와 고려 후기 송나라의 영향이 미쳤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의 세시풍속은 고려초기의 불교적 의례, 고려중기의 유교적 의례,

48) 『高麗史節要』 第26卷恭愍王 壬辰 元年 四月, 王 以佛生日 燃燈禁中 飯僧一百 奏妓樂以觀

49) 『高麗史節要』 第28卷恭愍王 丙午 十五四月 八日, 王歡呼旗童戲於殿庭賜布百匹國俗 以四月八日 是釋迦生日 家家燃燈 群童剪紙 注竿爲旗 周呼城中街里求米布爲其費謂之呼旗

50) 『高麗史節要』 第6卷 宣宗四爻大王 癸酉 十年 八月, 八月制曰 我國舊制生辰 元正 冬至 百官賀禮 唯宰相入直者一員 押班其餘宰相 並不就. 近聞宋朝儀制 凡放賀日其禮 與坐殿日不殊自今一依宋朝儀式

51) 박종민, 『고려왕실의 세시의례』, 민속학연구, 제5호, 국립민속박물관, 219, 1998.

그리고 고려후기의 성리학적 의례가 각각 시대적으로 왕실과 지배층, 그리고 민간에서 행해졌다.⁵²⁾

민간에서 중요한 명절로 여긴 원정·상원·한식·상사·단오·중구·동지·추석 등의 명절 역시 조상제사와 관련된 유교적 명절이다. 특히 유학자들은 상사·한식·답청의 세시풍속을 통해 부모에 대한 효와 유희적 자연관을 실천하려 노력한 듯하다.⁵³⁾ 이런 면에서 중국적 세계관이 이들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

(3) 조선시대 세시풍속

조선전기에는 주자의 『가례』를 수용하여 유교적 세시의례를 강조하면서, 설·한식·단오·추석 등 사명일(四名日)에 유교적인 사당제와 전통적인 묘제를 절충하여 실천하려는 유학자들의 노력을 볼 수 있다. 조선은 유교사상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삼아 수신과 치국의 방법으로 예를 중시 했지만 국초에는 예의 본질과 의의 보다는 예제의 확립과 예의 시행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제도적 성격이 강한 『주자가례』를 도입하고 보급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시행은 예에 의한 교화를 강조하기 시작하는 중종 대부터이다.

조선전기에는 세시라는 표현 이외에 ‘명절(名節)’, ‘명일(名日)’, ‘유명일(有名日)’, ‘(영절)승절’, (주절)‘佳節’, ‘속절(俗節)’, ‘절기(節氣)’, ‘절령(節令)’, ‘절일(節日)’ 등도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영절은 세시 중에서 국가로부터 영(令)을 부여받은 날로, 정사(政事)가 베풀어지는 날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경축일에 해당되는 날로, 하례(賀禮)를 베푸는 날도 역시 영절이라 하고, 임금과 세자의 탄일도 영절(令節)이라 한다.⁵⁴⁾ 유교이념이 강조된 조

52) 정구복·주영하, 고려시대 세시풍속연구, 국립민속박물관, 32, 2003.

53) 정구복·주영하, 위의 연구, 33, 2003.

54) 고영진, 위의 연구, 45, 1995.

선왕조에서 고려시대의 상원 연등이나 11월의 팔관회 등의 국가 행사는 사라지고, 4월 초파일의 등석 또는 연등 풍속으로 민간화 되었으며, 유학자들도 이를 속절로 여겼다.⁵⁵⁾

조선후기 세시풍속은 다양하고 다채롭게 존재하면서 당시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살찌웠다. 조선말 개화기를 거치면서 태음력중심의 생활에서 태양력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로 바뀌고 또한 일제강점기를 맞게 되었고, 그리고 광복 후 6.25와 같은 한국전쟁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늘날과 같이 서구적 생활방식에 익숙해지면서 대다수는 전통적인 삶의 가치는 그 힘을 상실해왔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있어 중요한 세시일은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직도 조선후기의 생활문화와 맥이 닿아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문화, 그 중에서도 특히 민속예능을 살찌우고 키워내는 모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현존하는 민속 문화는 많은 경우 그 뿌리가 조선후기의 세시명정, 혹은 세시풍속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⁵⁶⁾

조선후기에 창작된 대표적인 세시기는 『경도잡지(京都雜志)』,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이 있다.

경도잡지(京都雜志)는 조선영조·정조 때의 문신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이 18세기 말 서울 사람들의 각종 생활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였다. 2권 1책으로 되어 있다. 제1권은 풍속편(風俗篇)으로 의복, 차와 담배, 과일, 노래와 광대, 시문, 시화(詩畫) 등 당시의 여러 풍속과 문물제도를 19항목으로 나누어 약술하였고, 제2권은 세시편으로 정월부터 세밑까지 각 세시풍속의 내용을 당시 한양의 세시를 19항목으로 분류하여 약술하고 있다.⁵⁷⁾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는 조선 순조(純祖) 때 김매순(金邁淳, 1776~1840)이

55)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조선전기문집편, 국립민속박물관, 13, 2004.

56) 한시준, 「세시풍속의 지속과 변용」,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6, 2014.

57)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Ⅲ, 동국세시기, 42, 2007.

1819년 한양의 연중행사를 기록한 책으로 1권으로 되어 있다. 이 책에는 서울의 세시풍속 80여 종을 월별로 구분, 해당절후 및 그에 따른 풍속이 함께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주로 서울의 풍속을 다루었는데 연원을 중국의 풍속에서 찾았다.⁵⁸⁾

정월에 입춘(立春)·원일(元日)·인일(人日)·상해일(上亥日)·상원(上元), 2월에 삭일(朔日)·육일(六日), 3월에 한식(寒食)·삼일(三日)·곡우(穀雨), 4월에 초파일, 5월에 단오와 십일(十日), 6월에 보름과 복일(伏日), 7월에 중원(中元), 8월에 중추(中秋), 9월·10월에 이십일(二十日), 11월에 동지, 12월에 납일(臘日)·제석(除夕)의 세시풍속이 기록되어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는 조선 순조(純祖)때의 학자 도애(陶厓) 홍석모(洪錫謨, 1781~1850)가 지은 것으로 1책으로 되어 있다. 세시풍속 연구자들이 세시기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다. 책의 맨 앞에 있는 이자유의 서문이 헌종 15년 9월 13일에 쓰여진 점으로 보아 이 책은 1849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책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세시풍속들을 월별로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단오·추석 등과 같이 날짜가 분명한 것들은 모두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설명하였고, 날짜가 분명하지 않은 풍속들은 매월마다 월내라는 항목을 만들어 그 안에 기술하고 있다.⁵⁹⁾

『경도잡지(京都雜志)』와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서 ‘경도(京都)’와 ‘열양(洌陽)’이 서울을 뜻하는 바와 같이, ‘서울’이라는 한계성이 있지만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는 전국을 대상으로 세시풍속에 관한 자료를 집성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아래 내용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나와 있는 각 지방별 보름날 풍습을 살펴본 것이다.

“시골 사람들은 보름 하루 전날에 짚을 군대깃발인 독기 모양으로 묶고 그 안에 버·기장·

58)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Ⅲ, 동국세시기, 99, 2007.

59) 이수자. 조선 후기 세시풍속의 양상과 특징,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원, 35, 2014.

피·조의 이삭을 넣어 싸고 목화를 그 장대 끝에 매달아 집 곁에 세우고 새끼를 사방으로 벌려 고정시킨다. 이것을 버 날가리라고 하며 이것으로 풍년을 기원한다.”⁶⁰⁾

<표 II-2 > 조선시대 세시풍속에 따른 문헌

제목	저자	내용
경도잡지 (京都雜志)	유득공(柳得恭) (1748~ 1807)	서울 사람들의 각종 생활상에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책으로 제1권은 풍속편으로 19항목으로 기술하였고, 제2권은 세시편으로 19항목을 기술하고 있다.
열양세시기 (洌陽歲時記)	김매순(金邁淳) (1776~1840)	서울의 세시풍속 80여 종을 월별로 구분, 해당절후 및 그에 따른 풍속이 함께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주로 서울의 풍속을 다루었는데 연원을 중국 풍속에서 찾았다.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	홍석모(洪錫謨) (1781~1850)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세시풍속들을 월별로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다. 날짜가 분명하지 않은 풍속들은 매월마다 월내라는 항목을 만들어 이 안에 기술하고 있고 윤달의 풍속도 기술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세시풍속에 관한 자료를 집성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세시풍요 (歲時風謠)	유만공(柳晩恭) (1793~ ?)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을 소재로 하여 정월부터 선달까지의 계절변화에 따른 갖가지 생활모습을 담은 200여 수의 시를 지었다.
농가월령가 (農家月令歌)	정학유(丁學遊) (1786~1855)	정월부터 선달까지의 순서에 따라 농가에서 해야 할 일과 매 달마다 알아두어야 할 세시풍속을 세밀하게 다루었다. 24절기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Ⅱ,Ⅲ, 2007. 본 연구자가 표로 구성함(2016.10)

“산골 풍속에는 가지가 많은 나무를 외양간 뒤에 세우고 곡식 이삭과 목화를 걸어두면 아 이들이 새벽에 일어나 해가 뜰 때까지 나무 주위를 돌면서 노래를 부르며 풍년을 기원한다.”⁶¹⁾

조선시대의 세시풍속의 특징을 보면, 조선전기에는 주자의 『가례』를 수용

60) 『朝鮮代歲時記 Ⅲ』, 『東國歲時記』 196, 鄉里人家以上元前日 東藁如轟狀包禾黍稷粟之穗 又懸木綿花 冒於長竿之首建屋傍張索把定 稱禾積以祈豐

61) 『朝鮮代歲時記 Ⅲ』, 『東國歲時記』 196, 峽俗立多枝木於牛宮之後 掛穀穗綿花 小兒曉起繞樹而行歌以 祝之至日出

하여 유교적 세시 의례를 강조하였으며, 조선말 개화기를 거치면서 태음력중심의 생활에서 태양력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로 바뀌고, 오늘날과 같이 서구적 생활방식에 익숙해지면서 대다수는 전통적인 삶의 가치는 그 힘을 상실해왔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있어 중요한 세시일은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직도 조선후기의 생활문화와 맥이 닿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현존하는 민속 문화는 많은 경우 그 뿌리가 조선후기의 세시명절, 혹은 세시풍속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조선시대 절기별 농가의 행사와 세시풍속을 담은 주요 일정을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를 기초로 정리하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 조선시대 절기별 농가 행사와 주요 세시풍속

음력	24절기	농가 행사	주요 세시풍속
1월	입춘 우수	농기구 정비, 소 보살피기, 보리밭 거름 주기, 눈밭둑 태우기	설빔, 차례, 세배, 복조리, 세화, 횡수막이, 쥐불놀이, 토정비결, 직성 보기, 과수 나무 돌 끼우기, 널뛰기, 윷놀이, 연날리기, 입춘채 붙이기, 오곡밥 먹기, 달붙이, 안택고사, 복토 훑치기, 부럼, 귀밝이술, 더위 팔기, 용알 뜨기, 개보름 쇠기, 달맞이, 줄다리기, 석전, 답교, 기세배 벗가릿대
2월	경칩 춘분	봄보리갈이, 목화밭갈이, 담배모종, 과수 나무, 뽕나무 옮겨심기	영동 할머니 벗가릿대 허물기, 머슴날, 큰 볍기, 쯤생이 보기
3월	청명 곡우	가래질, 썩래질, 못자리 준비, 기장·조·콘 심기, 들깨 모종, 보리밭 김매기, 뽕밭관리, 과수 접붙이기	한식, 묘제, 삼짱날, 화전놀이, 장 담그기
4월	입하 소만	목화·뽕나무 관리, 수수·참깨 관리, 풀베어 거름 만들기, 무논 썩래질, 이른 모내기	초파일, 연등, 등 띄우기, 줄불놀이
5월	망종 하지	보리타작, 모찌기, 누에치, 모내기, 들깨 심기, 담배 모종	산맥이, 단오, 단오부채, 썩호랑이, 천중부적, 단오치장, 창포, 그네뛰기, 씨름, 봉숭아 물들이기.
6월	소서 대서	보리·밀·귀리 베기, 콩·팥·조·기장 갈이, 김매기, 삼매기	유두천신, 삼복, 천렵
7월	입추	풀 베기, 허수아비 세우기, 밭거름 주기, 무·배추 갈이, 목화밭 관리.	칠석 고사, 백중날, 백중놀이, 호미씻이, 우란분제, 두레 길쌈

	처서		
8월	백로 추분	목화·고추 말리기, 박따기, 참깨·담배·녹두수확, 보리밭 갈이	벌초, 추석차례, 거북놀이, 소놀이, 근친, 강강술래
9월	한로 상강	벼 베기, 조·팥·콩 거두기, 이삭줍기, 목화타기, 기름짜기	중양절, 중앙제사
10월	입동 소설	무배추 거두기, 기망, 메주 쭈기, 꽃감 만들기	말날, 시제, 성주고사
11월	대설 동지	가마니 짜기, 외양간 살피기	동지, 동지고사, 동지차례
12월	소한 대한	술 빚기, 두부 만들기	납일, 제석, 목은세배, 나례, 수세

출처: 홍석모 저, 정승모 역, 동국세시기, 우리나라 세시풍속, 풀빛, 253, 2009, 재구성한 것임(2016).

(5) 근대 세시풍속

이 시기에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세시풍속도 변화하는데, 많은 전통 세시풍속은 사라지고 있지만 설이나 추석 등은 여전히 유지됨을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세시풍속이 생겨남도 관찰할 수 있다.⁶²⁾

근대 세시풍속의 특성으로는 구한말이나 일제 강점기에도 농촌에서는 세시의 변화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시에서는 여러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전통 세시와 충돌하기 시작하였다. 즉 새로운 노동리듬과 시간인식이 출현하였다. 현대인의 생활 리듬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의 리듬은 일주일이기 때문이다.⁶³⁾

근대 세시풍속 자료는 19세기 말부터 1945년 사이에 발행된 신문과 잡지에 나타난 세시풍속에 관한 기사와 사진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집성한 자료를 참고하여 기록하였다.

일본은 19세기에 서양에서 태양력을 받아들여서 일본 세시풍속은 이후에는 태양력이 기준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의 일반 민중들

6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근대 신문.잡지편(1876~1945), 618~ 642, 2006.

63) 국립민속박물관, 위의 연구, 618~642, 2006.

세계는 태양태음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1930년대 후반이 되면서 각 도시에서 윗놀이대회가 열린다는 보도가 많이 등장한다. 도시에서 많이 등장한 사회결사체에서 음력설을 보내는 방식의 일환으로 개발된 형식으로 보인다.⁶⁴⁾

정월 대보름에는 전라남도 광주군에서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시작한 줄다리기가 차차 커져서 수기옥정과 루문리 사이의 큰 줄다리로 발전했다고 한다. 이 때 구경꾼만 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한다.⁶⁵⁾

한식이 그 당시에는 현재보다 훨씬 중요한 세시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성묘를 가는 상황들이 보도되고 서울 주변의 공동묘지 등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초파일에 대한 기록을 보면, 1933년 5월 2일자를 보면 사월초파일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중적으로 지키는 일 년 중의 큰 명절이어서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며, 밤이 되면 집집마다 관등을 달았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규모가 점점 줄어들어서 일부의 가정을 제외하면 불교단체만 이 날을 성대하게 맞는다고 보도한다.⁶⁶⁾

단오는 평안도나 함경도, 강원도 등을 중심으로 한 명절인데,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흥겨운 명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⁶⁷⁾ 동아일보 (1924.6.11)에 의하면, 서울에도 각지역에서 씨름대회와 그네뛰기 대회가 열렸다. 개성에서는 해마다 단오날이면 경덕궁에 많은 부인들이 모여서 그네를 뛰었다고 한다.

매일신보(1915년)에 의하면, 유월의 유두날이나 칠월의 칠석 및 복날은 그렇게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⁶⁸⁾ 추석은 단오와 함께 다루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추석을 남도의 명절로, 단오를 서도의 명절로 간주하고 있음을 담고 있다. 또한 매일신보(1935년)에서는 추석을 일 년에 한 번 주부가 활개를 피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가위를 근친의 명절로 간주하고 있

6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근대 신문.잡지편(1876~1945), 618~ 642, 2006.

65) 국립민속박물관, 위의 연구, 618~ 642, 2006.

66) 국립민속박물관, 위의 연구, 618~ 642, 2006.

67) 국립민속박물관, 위의 연구, 618~ 642, 2006.

6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근대 신문.잡지편(1876~1945), 618~ 642, 2006.

다. 추석이 되면 여성들은 가족들과 함께 친정어머니를 뵈러 갔으며, 시댁식구나 남편은 이 사실을 당연히 여기고 준비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동짓날에는 팔죽을 쑤어먹는 풍습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에는 공식적으로 양력을 사용하였으나, 음력도 병행하고 있었다. 세시풍속에서 명절 및 절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음력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근대사회의 월별 명절 및 절기 분류표는 <표 II-4>와 같다. 이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명과 한식은 근대에서 오늘날까지 같은 날로 사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일본과 서양의 영향으로 생긴 신풍속인 양력설과 성탄절 등은 양력에 따라서 각 달의 맨 뒤에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II-4> 근대사회의 월별 명절 및 절기 분류표

월 명	명절 및 절기명	월 명	명절 및 절기명	
1	설(정초)	7	칠석	
	대보름(상원)		백중	
	입춘		입추	
	우수		처서	
	양력설		추석	
2	중화절	8	백로	
	경칩		추분	
	춘분		중구(중양)	
3	청명	9	한로	
	한식		상강	
	삼짇날	10	입동	
	곡우		소설	
4	초파일	11	동지	
	입하		대설	
	소만		납일	
5	단오	12	소한	
	망종		대한	
	하지		제석	
6	삼복			성탄절
	유두			
	소서			
	대서			

* 출처: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근대 신문.잡지편(1876~1945),국립민속박물관(2003).

근대 세시풍속의 특징으로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 세시풍속도 변화, 많은 전통 세시풍속은 사라지고 있지만 설이나 추석 등은 유지됨을 볼 수 있다. 도시에서는 여러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전통세시와 충돌하기 시작하였다. 즉 새로운 노동리듬과 시간인식이 출현하였으며, 현대인의 생활 리듬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의 리듬은 일주일이기 때문이다.

2. 한국 세시풍속문화의 내용

우리의 세시풍속은 계절과 역일(曆日)⁷⁶⁾을 고려한 태양력과 태음력의 혼합이다. 따라서 세시풍속은 음력과 양력이 혼합된 태음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한 해를 기준으로 달마다 배분되어 있다. 이러한 달의 주기성과 변화는 한국의 세시풍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매 절기마다 상이한 풍습을 만들었다.⁶⁹⁾

한국 세시풍속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통사회에서 주된 생업은 농경이었다. 농경사회의 계절별·월별 사회 현상속에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계절별 24절기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에 대해 순응하는 의존적 삶의 지혜와 절기에 맞는 음식과 놀이를 통하여 일상과는 구분되는 생활의 활력과 생존력을 도모한다. 축제적인 행사를 통하여 구복과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며,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재생적인 의미를 가지는 특징을 볼 수 있다.

1) 계절별 24절기 풍속

우리나라 세시풍속을 구분하는 절기는 정확히 24절기(節氣)를 말하는데, 절기는 태양의 황도 상 위치에 따라 계절을 구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황도에서 춘분점을 기점으로 15도 간격으로 점을 찍어 총 24개의 절기로 나타낸

69) 장채천, 세시풍속의 사회교육적 의의(한국사상과 문화) 47권, 187-214, 2009.

다.⁷⁰⁾ 24절기를 계절별로 나뉘보면 다음과 같이 각 계절마다 여섯 개, 각 달마다 두 개의 절기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절기 개념을 좀 더 정확히 쓰자면, 24절기는 원래 절기와 중기의 합친 말로서 12개의 절기는 월초에, 12개의 절기는 월 중에 있다. 따라서 입춘은 1월의 절기이며, 우수는 1월의 중기이다. 여기서 기(氣)란 5일을 1후(候)라고 했을 때 3후 즉 15일을 말한다.⁷¹⁾

그러나 이러한 절기는 음력을 기준으로 배치했으므로, 태양력에 따라 나눈 절기와 날짜가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나눈 절기를 음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윤달을 넣어 계절에 맞게 조정하게 된다. 24절기를 사계절로 나누었을 때, 절기별 음력과 양력을 간추리면 다음의 <표 II-5>와 같다.

<표 II-5 > 계절별 24절기 풍속(2016년 기준)

계절	음력	절기	음력	양력	풍속과 특징	명절
봄	1월	입춘(立春)	12월 26일	2월 4일	입춘대길 외. 봄 시작	설, 대보름
		우수(雨水)	1월 12일	2월 19일	보리밭기. 싹이 틔	
	2월	경칩(驚蟄)	1월 17일	3월 6일	흙일 외. 개구리 깸	-
		춘분(春分)	2월 12일	3월 21일	밭갈이 외. 낮이 길어짐	
	3월	청명(淸明)	2월 27일	4월 5일	가래질 외. 농사 준비	삼짇날, 한식
		곡우(穀雨)	3월 14일	4월 20일	벼씨 외. 비가 내림	
여름	4월	입하(立夏)	3월 29일	5월 5일	입하 차 외. 여름 시작	초파일
		소만(小滿)	4월 14일	5월 21일	씨레질 외. 농사 시작	
	5월	망종(芒種)	5월 1일	6월 6일	모내기 외. 씨뿌리기	단오중앙
		하지(夏至)	5월 17일	6월 21일	장마. 낮이 긴 시기	
	6월	소서(小暑)	6월 4일	7월 7일	논매기 외. 더위 시작	유두,삼 복
		대서(大暑)	6월 19일	7월 23일	복. 더위가 심함	
가을	7월	입추(立秋)	7월 5일	8월 6~9일	기청제 외. 가을 시작	칠석,백 중
		처서(處暑)	7월 21일	8월 23일	논둑 깎기. 일교차 큼	
	8월	백로(白露)	8월 7일	9월 9일	이슬. 이슬이 내림	추석

70) 강순예,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적 활용,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 2016.

71) 강순예, 위의 논문, 28. 2016.

겨 울	9월	추분(秋分)	8월 22일	9월 23일	고치실 외. 밤이 길어짐	중양
		한로(寒露)	9월 8일	10월 8일	국화주. 이슬이 참	
		상강(霜降)	9월 23일	10월 23일	벼 타작 외. 서리 내림	
	10월	입동(立冬)	10월 8일	11월 7일	김장 외 겨울 시작	-
		소설(小雪)	10월 23일	11월 22일	서설. 얼음 얼기 시작	
	11월	대설(大雪)	11월 9일	12월 7일	메주 외. 큰 눈이 옵니다	동지
		동지(冬至)	11월 23일	12월 22일	작은설 . 밤이 가장 김	
	12월	소한(小寒)	11월 27일	1월 6일	아이들. 가장 추운 때	선달그믐
		대한(大寒)	12월 12일	1월 21일	해넘이 외. 큰 추위	납일

출처: 김영태, 옛마을 세시·절기 풍속 . 한국학술정보(주), 412-413, 2009. 재구성한 것임

2) 월별 세시풍속

(1) 정월

봄의 문턱에 들어서고, 눈이 녹아 빗물이 내린다. 농가에서는 일 년 농사를 준비한다. 정월(1월)에는 설과 대보름이 있다.

원일(元日), 즉 새해 첫날이 되면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은 모든 관원을 이끌고 대궐에 나아가 임금에게 새해 문안을 드린다. 새해를 축하하는 전문(箋文)과 임금이 하사품으로 쓸 표리(表裏)을 올린 다음 정전 앞뜰에 모여 조하(朝賀)⁷²⁾의례를 올리는 것이 그 절차이다.⁷³⁾

서울에서는 설날 아침 집안 사당에 나아가 새해가 되었음을 고하고 제사 지내는 것을 차례라고 한다. 설날에 벌어지는 일들에는 세(歲)자가 붙는다. 남녀 어린이들은 모두 새 옷으로 단장하는데 이것을 세장(歲粧)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설빔이라고 한다. 집안 친척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을 세배(歲拜)라고 한다. 이날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만든 시절음식을 세찬(歲饌)이라고 하고, 대접하는 술을 세주(歲酒)라고 한다.⁷⁴⁾

72) 하(朝賀)는 대조하례(大朝賀禮)의 준말이다. 정조(:설날 아침), 동지(冬至), 성절(聖節: 성인이나 임금의 생일을 경축하는 명절)에 신하들이 조정에 모여 임금에게 축하의 예를 올리는 예식으로, 여기서는 정조하례(正朝賀禮)를 말한다.

73) 『朝鮮代歲時記 III』 『東國歲時記』 181, 議政大臣率百官詣闕新歲問安奉箋文表裏朝賀於正殿之庭

74) 『朝鮮代歲時記 III』 『東國歲時記』 181, 京都俗歲謁家廟行祭曰茶禮 男女年少卑幼者皆着新衣曰歲粧

멥쌀가루를 찌서 안반 위에 놓고 떡메로 무수히 쳐서 길게 늘려 만든 떡을 가래떡 또는 흰떡이라고 한다. 이것을 엽전 두께만큼 얇게 썰어 장국에 넣고 끓인 다음 쇠고기나 꿩고기를 넣고 후춧가루를 쳐서 조리한 것을 떡국이라고 한다. 이것은 제사에도 쓰고 손님 접대에도 사용하므로 세찬에 빠져서는 안 될 음식이다. 그래서 속어로 떡국 몇 그릇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은 곧 나이가 몇 살인가 물어보는 것과 같다.⁷⁵⁾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설날 행해지는 풍속을 위와 같이 기록했다. 그림 그리는 일을 맡아하는 도화서(圖畫署)에서는 수성도·선녀도·직일도·신장도등의 그림을 그려 임금에게 바치고 재상들에게는 선물을 보내기도 하는데, 이것을 세화(歲畫)라고 한다. 설에 행해지는 의례풍속과 음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떡국을 먹는 것을 보면 오래된 풍속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림에 축하하는 뜻을 담아 선물로 보내는 것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예술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풍습은 지역마다 다르나, 귀밝이술 마시기, 부럼 깨물기, 목은 나물에 오곡밥 먹기, 더위 사기, 약밥 먹기, 정월 보름달 보고 가뭄이나 장마를 짐치는 풍습은 비슷하다.

보름날 이른 아침에 날밤·호두·은행·잣·무 등을 깨물면서, “일 년 열두 달 동안 아무 탈 없이 평안하고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하고 기원한다. 이를 부럼 깨물기라고 한다. 부럼을 깨면 이가 튼튼해지고 일 년 동안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⁷⁶⁾

조선 후기 유만공은 현실적인 표현을 종종 썼는데, 부럼 깨무는 풍습을 아래와 같이 풍자했다

訪族戚長老曰歲拜 饋以時食曰歲饌 酒曰歲酒

75) 『朝鮮代歲時記 Ⅲ』 『東國歲時記』 181, 蒸粳米粉置大板上以木杵有棟者 無數擣打引作長股餅名曰白餅 因細切薄如錢和醬水湯熟 調牛雉肉番椒屑名曰餅湯 以供祀接客爲歲饌之不可闕者 入湯烹之 故古稱濕麪者 似是物也 市肆以時食賣之 諺稱添齒者謂吃餅湯第幾碗

76) 『朝鮮代歲時記 Ⅲ』 『東國歲時記』 201, 清晨嚼生栗胡桃銀杏皮栢子蔓菁根之屬祝曰 一年十二朔無事太平不生癰癤謂之嚼癰 或云固齒之方

소나무씨는 단단하고 복숭아씨는 견고한데,
씹어 깨치기를 재갈 같이 하는 소년들이 의아스럽다.
비록 피부에 아프고 괴로운 것 없기를 원하나,
저 이빨이 이미 아픈 걸 어떻게 할까?
단단한 실과를 씹어서 종기 없기를 바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한다.⁷⁷⁾

평안도 의주 지방에서는 어린 남녀들이 이른 아침에 엿을 깨무는데, 이를 이빨
겨루기라고 한다.⁷⁸⁾

청주 한 잔을 데우지 않고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하는데 이 술을 귀밝이술이라고 한다.⁷⁹⁾

이날 오곡밥을 지어 먹고 또 서로 나누어 먹는다. 영남지방의 풍속이 또한
그렇다. 종일 오곡밥을 먹는데, 이는 제삿밥을 서로 나누어 먹던 옛 풍속을 좇
아 행한 것이다.⁸⁰⁾

찰밥을 지은 다음 여기에 대추·밤·기름·꿀·간장 등을 섞어 다시 찌서 잣을 넣고 버
무린 것을 약밥이라고 한다. 약밥은 보름날의 좋은 음식으로 여겨 이날 이것으로 제사도
지낸다.⁸¹⁾

조선 선조 때의 학자 이수광(李睟光, 1563~1628, 자는 윤경, 호는 지봉)의 『지봉

77) 유만공 저 임기중 역,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 69. 1993.

78) 『朝鮮代歲時記 Ⅲ』 『東國歲時記』 201, 義州俗年少男女清晨嚼飴糖謂之齒較

79) 『朝鮮代歲時記 Ⅲ』 『東國歲時記』 201, 飲清酒一盞不溫令人耳聰 謂之隔龔酒

80) 『朝鮮代歲時記 Ⅲ』 『東國歲時記』 201, 作五穀雜飯食之亦以相遺 嶺南俗亦然 終日食之蓋襲社飯相饋
之古風也

81) 신라 소지왕 10년 정월 15일에 왕이 천천정에 행차 했을 때 까마귀가 날아와 왕을 일깨워준 덕분
으로 왕이 화를 면한 일이 있었다. 그 뒤로 보름날을 까마귀 제삿날로 삼아 찰밥을 지어 까마귀에게 제
사 지냄으로써 은혜에 보답하였다고 한다. 찰밥을 보름날 시절 음식으로 여기게 된 풍습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82) 『朝鮮代歲時記 Ⅲ』 『東國歲時記』 206, 李睟光芝峯類說云上元踏橋之戲始自前朝在平時甚盛士女駢闐達
夜不

유설(芝峯類說)』에는

“정월 보름날 밤 다리밧기는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풍속인데 매우 성행하여 남녀들이 길거리를 메워 밤새도록 왕래가 그치지 않았다.”⁸²⁾

이날 온 집안에 밤새도록 기름불을 켜놓는데 마치 선달그믐 밤에 잠을 안자고 밤을 새우는 것과 같다.

(2) 2월

경칩(驚蟄)에는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 팔딱이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보면 정월 대보름에 세웠던 벧가릿대를 내려서 넣어 두었던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머슴들에게 먹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음력 2월 1일을 머슴날이라 한다. 이제 슬슬 농사일을 시작해야 한다. 힘들고 고된 일이 시작되기에 앞서 주인은 노비와 머슴들에게 나이 수만큼 송편을 만들어주고 술과 음식을 베풀어 위로한다. 이날 머슴들은 풍물을 치고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긴다.

(3) 3월

삼월 삼진날에는 진달래꽃으로 두견화전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다. 조선 후기에는 창덕궁 후원에서 봄가을에 꽃놀이 행사를 하였다. 이때 내전 주방에서 모든 재료를 준비하여 비원의 정자에서 수라와 진달래화전 등을 직접 만들어 진찬 하였다. 또한 농가에서는 대개 이른 봄에 장을 담그는데, 길일을 택하여 고사까지 지낼 정도로 중요시했다. 옛 문헌에는 음력 정월 말날인 오일 또는 그믐, 손 없는 날, 병인일, 정묘일, 정일 등이 장 담그기 좋은 날이라 하였다.⁸³⁾

8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http://folkency.nfm.go.kr/sesi/>

놀이로는 활쏘기를 하는데, 삼국시대 이후 전쟁에서 특히 활이 큰 역할을 하게 되자 국가 차원에서 궁술을 장려하고 활쏘기 대회를 자주 열었다. 궁술은 조선시대 무과의 중요한 과목이었으며, 각 지방의 관아에서도 장려하였다.

강원도 평창군(2000년 7월 1일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 외에 서울특별시(서울무형문화재 7호)에서도 전통 활쏘기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한식(寒食)은 설,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였다. 이날은 조상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한식은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중요한 명절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특별한 행사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다.

(4) 4월

4월 8일 초파일은 곧 욕불일(浴佛日)로 석가가 탄생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이날 등불을 켜는 풍속이 있기 때문에 초파일을 등석(燈夕)이라고 한다.⁸⁴⁾

『고려사』에 “우리나라 풍속은 4월 8일이 석가탄신일이라고 하여 집집마다 등불을 켜다. 이보다 수십일 전부터 아이들은 종이를 잘라 깃발처럼 장대에 매달아 서울 거리를 외치고 돌아다니면서 쌀과 포묵을 얻어 그날 비용으로 쓰는데 이를 호기(呼旗)라고 한다.” 고 하였는데, 지금 풍속에 행하는 것은 최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⁸⁵⁾

마을 곳곳에 줄을 매어 등을 달거나 각 가정의 추녀 끝 또는 나뭇가지에 줄을 매고 그 집의 자녀수만큼 등을 달았다.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는 등을 들고 줄을 지어 행렬하는 세시풍속 관등절 놀이이다.

84) 『朝鮮代歲時記 III』 『東國歲時記』 225, 八日卽浴佛日東俗以是日燃燈謂之燈夕

85) 『朝鮮代歲時記 III』 『東國歲時記』 226, 又按高麗史國俗以四月八日是釋迦生日家家燃燈前期數旬羣童剪紙注竿爲旗 周呼城中街里求米 布爲其費謂之呼旗 今俗燈竿揭旗者呼旗之遺也 必以八日肇自崔怡也

소회일(음력 1월 14일)과 대회일(음력 1월 15일)에 온 나라 백성들이 채붕(綵棚)을 설치하여 석가모니의 탄생일에 불을 밝힌다. 이날 과주와 음악·가무로 대축연을 베풀어 제불(諸佛)과 천지신명(天地神明)께 즐거움을 고하며 국가와 왕실의 태평과 복을 기원하던 연등 제전이 있다.⁸⁶⁾

4월 초파일이면 각 가정과 절에서는 신도들이 등을 만들어 달고, 불전에서는 큰 제를 올린다. 한편 절 마당에서는 부처의 큰 뜻과 공덕을 기리며 각자 축원도 드리는 탑돌이를 하는데, 지방마다 특색 있게 10가지가 넘는 형태가 전해져 오고 있다. 처음 탑돌이가 시작됐을 때는 범종·법고·운판·목어의 네 법악기만 사용하였으나, 후에는 삼현육각(三絃六角)이 합쳐지고 보님과 백팔정진가를 부르게 되었다.⁸⁷⁾ 위와 같이 동국세시기에서는 고려시대의 팔관회, 연등회가 조선 시대에 와서는 사라지고, 다만 4월 8일 즉 사월초파일로 행해졌으며, 이는 곧 우리의 명절이 국가적이고 종교적인 것이기도 함을 밝히고 있다.

(5) 5월

음력 5월 5일 단오에 임금은 규장각(奎章閣) 신하들에게 쑥으로 호랑이 모양을 만든 애호(艾虎)를 하사한다.⁸⁸⁾

『세시기』에 “단오에 쑥으로 호랑이 모양을 만들거나 혹은 비단을 오려 작은 호랑이를 만들고 쑥잎을 붙여서 머리에 인다.”고 하였다.

남녀 아이들은 창포를 끓인 물로 얼굴을 씻고 모두 붉은 색과 녹색의 새 옷을 입는다. 부녀자들은 창포 뿌리를 깎아서 비녀를 만들고 혹은 그 끝에 연지로 ‘수(壽)’자나 ‘복(福)’자를 새겨 쪽에 꽃아 전염병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단오 치장(端午粧) 이라고 한다.⁸⁹⁾

86) 김영태, 옛마음 세시·절기 풍속 . 한국학술정보(주), 230, 2009.

87) 김영태, 옛마음 세시·절기 풍속 . 한국학술정보(주), 233, 2009.

88) 『朝鮮代歲時記 III』 『東國歲時記』 233, 頒艾虎于閣臣用小稈纏束綵花藪藪如蓼穗

89) 『朝鮮代歲時記 III』 『東國歲時記』 233-234, 男女兒童取菖蒲湯頰面皆着紅綠新衣削菖蒲根作簪或爲壽福字塗臙脂於其端遍插頭髻以辟瘟號端午粧

『동국세시기』에 “단옷날에는 대추나무를 시집보낸다”고 기록되어 있다. 청명한 오후. 그 해에 대추가 많이 열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도끼로 나무의 가지를 내리쳤다. 또한 단오 날에는 그네뛰기, 씨름, 격구 등의 놀이가 있었으며, 망개떡, 수리떡, 약썩, 익모초 같은 절식이 있었다. 봉산탈춤은 1967년 6월 16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17호로 지정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⁹⁰⁾

(6) 6월

유두(流頭)는 음력 6월 15일로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한여름이다. 유월 보름날은 우리나라 풍속에서는 유두날(流頭日)이라고 하며 명절로 지냈다.

고려 명종 때의 학자 김극기(金克己)가 쓴 문집⁹¹⁾중에 “경주의 옛 풍속에 6월 보름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것들을 씻어 버리고, 그 자리에서 재앙을 물리치는 제를 지내고 술을 마시는데 이것을 유두잔치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조선 풍속에서도 이것을 이어받아 속절로 삼고 있다. 경주에는 아직도 이런 풍속이 남아 있다.

이 날은 멥쌀가루를 찌서 둥글고 긴 가래떡을 만든 다음 그것을 구슬같이 잘게 썰어 꿀물에 담갔다가 얼음을 채워 먹으며 제사에도 쓴다. 이것을 수단(水團)이라고 한다.⁹²⁾

유두날 먹는 음식으로는 증편, 편수, 상화병, 유두면, 보리수단, 맨드라미전, 호박밀전, 상추쌈, 참외 등이 있는데, 특히 유두면을 먹으면 장수하고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⁹³⁾ 또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양기가 가장 세기 때문에 등목을 하거나 폭포 밑에서 온몸에 물을 맞거나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면 더위와 질병이 생기지 않아 여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한다.⁹⁴⁾

90) 김영태, 옛마을 세시·절기 풍속 . 한국학술정보(주),238-252, 2009.

91) 문집은 『김거사집』을 말한다.

92) 『朝鮮代歲時記 Ⅲ』 『東國歲時記』 239, 蒸粳未粉打成長股團餅細切如珠 澆以蜜水照水食之以供祀名曰水團

93) 김영태, 옛마을 세시·절기 풍속 . 한국학술정보(주),287-288, 2009.

94) 김영태, 옛마을 세시·절기 풍속 . 한국학술정보(주),287-288, 2009.

(7) 7월

음력 7월7일 칠석날 은하수 동쪽에 있는 견우성과 서쪽의 직녀성이 1년에 한번 만난다고 하는 전설로, 이날은 까치와 까마귀를 한 마리도 볼 수 없는데 어찌다 있는 것은 병이 들어 오작교를 놓는 데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 한다. 칠석날 저녁에 비가 내리면 견우와 직녀가 만난 기쁨의 눈물이고 이튿날 새벽에 비가 오면 이별의 눈물이라 한다.⁹⁵⁾

전설에 의하면 견우와 직녀 두 별이 사랑을 속삭이다가 옥황상제(玉皇上帝)의 노여움을 사서 은하수 동쪽과 서쪽으로 쫓겨나 서로 만날 수 없게 된다. 견우와 직녀의 이러한 딱한 사정을 알고 지상에 있는 까치와 까마귀가 해마다 칠석날 하늘로 올라가 몸을 잇대어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는데, 이 다리를 오작교라 한다. 견우와 직녀는 오작교를 건너 1년 만에 기쁨의 만남을 갖는다. 허나 안타깝게도 사랑의 회포를 풀기도 전에 새벽닭이 울고 동쪽 하늘이 다시 밝아 또다시 이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녀는 다시 서쪽으로 가 베를 짜고 견우는 동쪽으로 가 밭을 갈면서 각기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안타깝게도 다음 칠석날을 기다린다.⁹⁶⁾

칠석날 은하수 오작교에서 견우성과 직녀성이 서로 만나 기쁨과 이별의 눈물을 흘리느라 대체로 날이 흐리고 비가 온다고 한다. 이날 우물물을 퍼내고 주위를 청결히 한 다음 시루떡을 해서 우물가에 차려 놓고 칠성제를 올린다.

음력 7월 보름을 백종일(百種日)·망혼일(亡魂日)·중원(中元)이라고도 하며, 각 사찰에서는 승려들이 백중제(百中佛供)를 올린다.

동약(東岳) 이안눌의 시에 “시장에 채소와 과일이 많은 것을 보니 도성 사람들이 오늘 도처에서 죽은 혼을 위해 제사지내겠구나.”라고 하였다.⁹⁷⁾

95) 김영태, 옛마을 세시·절기 풍속. 한국학술정보(주), 307-308, 2009.

96) 김영태, 옛마을 세시·절기 풍속. 한국학술정보(주), 307-308, 2009.

97) 『朝鮮代歲時記 III』 『東國歲時記』 244, 李東岳安訥有詩云 記得市塵蔬果賤 都人隨處薦亡魂

우리나라 풍속에 이 날로 망혼일을 삼는데 대개 향간의 백성들이 이날 달밤에 채소·술·밥 등을 차려놓고 죽은 아버지의 혼을 불러 모신다.

(8) 8월

음력 8월 15일 한가위는 추석(秋夕) 또는 가배일(嘉俳日)·중추절(仲秋節) 등으로 불리는 우리의 2대 명절이다. 신라 때부터 있던 풍속으로 시골 농촌에서는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로 삼는데 그것은 새 곡식이 이미 익었고 가을 농작물을 추수할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날 사람들은 닭을 잡고 술을 빚어 온 동네가 취하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즐긴다.⁹⁸⁾

오늘날에는 생활의 변화로 속절을 지키기가 어려워졌으나 큰 명절인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날(음력 8월 15일), 한식날(양력 4월 5,6일경)만은 반드시 성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

절식으로는 『동국세시기』에 송편·시루떡·인절미·밤단자를 시절음식으로 꼽았는데, 그 중 송편은 대표적인 추석 음식으로 한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조상의 차례상에 올렸다. 햇곡식으로 송편을 예쁘게 잘 빚으면 시집을 잘 간다고 하여, 아녀자들은 예쁜 손자국을 내며 반달 모양의 송편에 꿀·밤·깨·콩 등의 소를 넣는다. 또 술잎을 깔아 맛으로만 먹은 것이 아니고 후각적 향기와 시각적인 멋도 즐겼다.

추석날 벌어지는 대표적인 세시놀이로는 강강수월래, 거북놀이, 소놀이, 씨름 등이 있다. 강강수월래는 1966년 2월 15일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다. 씨름은 농경 사회에서 하던 제례 행사의 하나로, 단오절, 백중, 한가위 등의 명절이 되면 각처에서 힘이 세고 거대한 체구의 장사들이 모여들어 자신의 고장과 명예를 걸고 우승을 쟁취하기 위해 씨름경기에 참가하였다.

98) 『朝鮮代歲時記 III』 『東國歲時記』 246, 十五日東俗稱秋夕 又曰嘉俳 肇自羅俗 鄉里田家爲一年最重之名節以其新穀已登西成不遠 黃 鷄 白酒四隣醉飽以樂之

(9) 9월

중양절에는 노란 국화잎을 따다가 국화 찹쌀떡을 만드는데, 3월 삼짇날 진달래떡을 만드는 방법과 같다. 또 이름도 화전이라고 한다.

송나라 사람 맹원로의 『동경몽화록』 99)에 “도시 사람들이 중구, 즉 중양절에 가루로 떡을 찌서 서로 선물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국화떡이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잘게 썬 배와 유자와 석류와 잣 등을 꿀물에 탄 것을 화채라고 하는데 이것들 모두 시절음식으로 제사에 쓴다.¹⁰⁰⁾

(10) 10월

『세시잡기』에 “서울 사람들은 10월 초하룻날에 술을 준비해놓고 고깃점을 화로에 구우면서 둘러앉아 마시며 먹는데 이것을 난로(煖爐)라고 한다.”고 했고, 또 『동경몽화록』에 “10월 초하루에 유사들이 난로에 피울 숯을 대궐에 올리고 민간에서는 모두 술을 가져다놓고 난로회를 갖는다.”고 하였다.¹⁰¹⁾

음력 10월은 일 년 중 가장 좋은 달이라 하여 상달(上月)이라고 한다. 추수가 끝나 이제는 놀고먹어도 되므로 ‘공달’이라고 하는 곳도 있다. 조상 묘에 대한 시제를 지내는 것도 이때다. 10월 보름을 전후하여 5대조 이상의 조상에게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낸다. 이를 시제(時祭)·시사(視事)·시향(時享)이라고도 한다. 4대조까지는 망일에 기제를 지내며 설, 추석 같은 명절에는 차례와 성묘를 한다.¹⁰²⁾

대개 음력 10월 20일경에는 심한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춥다. 손들이 뱃길을 열어 준 죄로

99) 『동경몽화록』의 작자 맹원로는 중국 송나라 때 사람이다. 금의 침입으로 남송으로 온 후 북송의 수도인 변경의 문물과 풍속을 기록한 책으로 10권으로 구성되었다.

100) 『朝鮮代歲時記 III』 『東國歲時記』 249, 又按孟元老東京夢華錄都人重九以粉麵蒸饊相遺 今之菊饊盖沿于此 細切生梨柚子與石榴海松子澆以蜜水名曰花菜 並以時食供祀

101) 『朝鮮代歲時記 III』 『東國歲時記』 253, 按歲時雜記京人十月朔沃酒乃炙麩肉於爐中團坐飲啗謂之煖爐 又按東京夢華錄十月朔有司進煖 爐炭民間皆置酒作煖爐會

102) 김영태, 옛마을 세시·절기풍속, 이담, 379, 2009.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 매년 이날이 되면 날이 몹시 추워지고 광풍이 분다 하여 이맘때 추위를 손돌추위라 한다.¹⁰³⁾

서울 풍속에 무·배추·마늘·고추·소금 등으로 김치를 담가 장독에 보관한다. 여름의 장 담그기와 겨울의 김장은 민가에서 일 년을 보내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11) 11월

대설(大雪)과 동지가 있는 계절이다. 많은 눈이 내리고, 밤이 가장 긴 날이 된다. 동지는 24절기의 하나로 대설과 소한 사이에 있으며 음력 11월 중, 양력 12월 22일경으로 일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동짓날을 ‘아세(亞歲)’라 했고, 간에서는 흔히 ‘작은설’이라 하였다.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 팔죽을 먹어야 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속신도 생기게 되었다.

이날 팔죽을 쑤어 먹는데, 찹쌀가루를 찌서 새알 모양으로 만든 떡을 죽 속에 넣는다. 이렇게 심을 삼은 떡을 새알심이라고 한다. 이것을 꿀에 타서 시절음식으로 먹으며 제사에도 쓴다. 팔죽 국물을 문짝에 뿌려 액을 막기도 한다.¹⁰⁴⁾

(12) 선달

선달그믐은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로 세말(歲末), 세모(歲暮), 세밑(歲一), 연말(年末), 제석(除夕) 등으로도 부른다. 이날 시절 음식으로는 만둣국, 동치미, 골동반을 먹는다.

음력 선달 그믐날을 ‘작은설’이라 하여 어른들에게 송년 인사와 축원을 드

103) 한호철, 세시풍속 이야기, 지식과교양, 324, 2016.

104) 『朝鮮代歲時記 III』 『東國歲時記』 256, 冬至日稱亞歲 煮赤豆粥用糯米粉作鳥卵狀投其中爲心和蜜以時食供祀 灑豆汁於門板以除不祥

린다. 한해를 무사히 잘 보냈다는 의미이며,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성묘도 한다. 또한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여 묵은해의 잡귀와 액을 물리치고 신성하게 새해를 맞이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묵은세배를 하느라 이날 초저녁부터 밤중까지 초롱불을 든 세배꾼들이 골목길을 누비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다.

해(年)지킴 또는 별세(別歲)라고도 하며, 그믐날에 잡귀의 출입을 막기 위해 방, 뜰, 부엌, 곳간, 장독대, 변소 할 것 없이 집안 구석구석에 등축을 밝혀 놓는다. 이날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하여 첫닭이 울 때까지 웃놀이를 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밤을 샌다. 또한 한해가 가는 마지막 밤이니 저녁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며, 바느질하던 것도 해를 넘기지 않는다.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는 웃은 내기놀이이나 저포(樗蒲 :백제때 나무로 주사위를 만들어 놀던 놀이)라고 했다. 세속에 선달그믐과 정초에 웃을 던져 얻은 과로 새해의 길흉을 점치는데 그 방법은 윷사위로 64괘 중의 하나를 정해 그 괘에 해당하는 주사로써 앞날을 풀이한다. 대개 세 번 던져서 “어린아이가 젖을 얻는 과”나 ‘쥐가 창고에 들어가는 과’가 나오면 길하다.¹⁰⁵⁾

납일(臘日)은 원래 동지 후 세 번째 오는 술일(戌日)이었는데, 조선에 들어와 동지 후 세 번째 미일(未日)로 정하여 종묘와 사직에 큰 제사를 지낸다.¹⁰⁶⁾

납일 제사에 쓰는 고기로는 멧돼지와 산토끼가 있다. 경기도 관할의 산간 고을에서는 예로부터 납일 제사에 쓰는 돼지를 바치기 위해 그 지방 백성들이 동원되어 멧돼지를 수색하여 잡았으나 정조 임금의 특명으로 이를 폐지하였다.¹⁰⁷⁾

납일에 내린 눈을 녹인 물은 약으로 쓰이며, 그 물에 물건을 적서 두면 종이 슬지 않는다.¹⁰⁸⁾

105) 『朝鮮代歲時記 Ⅲ』 『東國歲時記』 264, 又按芝峯類說以爲樗戲即樗蒲也 樗戲者便是樗蒲之類也 世俗除夜元朝以柶擲卦占新歲休咎占 法配以六十四卦 各有繇辭 凡三擲如兒得乳鼠入倉之類則吉

106) 『朝鮮代歲時記 Ⅲ』 『東國歲時記』 260, 本朝用冬至後第三未日置臘 行廟社大享

107) 『朝鮮代歲時記 Ⅲ』 『東國歲時記』 260, 臘肉用猪用兔 畿內山郡舊貢臘猪發民搜捕 健陵特罷之

3. 한국 세시풍속문화의 지속과 변용

1) 세시풍속에 대한 인식변화

앞 장에서의 세시풍속에 대한 역사적 변천을 요약해보면, 당나라의 문화적 영향 하에 있었던 통일신라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고려는 왕실 중심의 세시풍속이 행해졌으며, 고려 초기의 불교적 의례, 고려 중기의 유교적 의례, 고려 후기의 성리학적 의례가 각각 시대적으로 왕실과 지배층, 그리고 민간에서 행해졌다. 고려시대의 유학자들은 상사·한식·답청의 세시풍속을 통해 부모에 대한 효와 유희적 자연관을 실천하려고 하였다.

조선 전기 세시풍속에는 『주자가례』를 도입하여 유교적 세시 의례를 강조하면서 설·한식·단오·추석 등 사명일(四名日)에 유교적인 사당제(祠堂祭)와 전통적인 묘제(墓祭)를 절충하여 실천하였다. 조선전기에는 세시라는 표현 이외에 다양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영절(令節)은 세시중에서 국가로부터 영(令)을 부여받은 날로, 정사(政事)가 베풀어지는 날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경축일에 해당되는 날로 하례(賀禮)를 베푸는 날도 역시 영절(令節)이라 하고, 임금과 세자의 탄일도 영절(令節)이라 한다.

유교이념이 강조된 조선왕조에서는 고려시대의 상원 연등이나 11월의 팔관회 등의 국가 행사는 사라지고, 4월의 초파일의 등석 또는 연등 풍속으로 민간화 되었다.

세시풍속의 인식의 변화는 조선후기부터 인식이 바뀌어가기 시작하였다. 조선후기는 이전 시기의 임란과 동서의 분당, 그리고 당대의 호란과 사색당과 등 정치·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겪었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조선은 내재적 변화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한다. 즉, 왕조의 권위는 커다란 손상을 입었

108) 『朝鮮代歲時記 Ⅲ』 『東國歲時記』 260, 臘雪取水爲藥 用漬物則不生蛙

고, 중국에 대한 동경과 사모하는 마음이 수그러들면서 ‘자아’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며, 양반들의 문화에 대한 ‘서민문화’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17~18세기 조선의 분위기이다.¹⁰⁹⁾

조선후기에 있어 중요한 세시일은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직도 조선후기의 맥이 닿아 있다는 뜻이다.

이 시기에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세시풍속도 변화하는데, 많은 전통 세시풍속은 사라지고 있지만 설이나 추석 등은 여전히 유지됨을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세시풍속이 생겨났다. 이러한 세시풍속의 변화는 경제나 사회의 근대화에 따른 것이다.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제는 서비스업이나 광공업에 주된 생업으로 하는 극적인 경제적 변화는 농업력과 결부된 세시풍속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¹¹⁰⁾

개화기에서 일제 강점기까지는 양력과 개신교가 도입되고, 도시공간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크리스마스가 한국사회에 도입되어 정착을 이룰 수 있었으며, 현대 민속문화가 형성 되었다고 보여지는 시기이다.

사람들의 관행 또는 사회적 관습을 포함하는 문화요소는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거듭하면서 이것이 반복 누적되어 결국에는 문화의 큰 변화를 가져온다¹¹¹⁾. 세시풍속의 변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근대의 세시풍속을 보았을 때, 도시와 농촌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도시에서는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라서 새로운 직업집단과 사회집단이 출현하여 세시풍속을 새로운 상황 속에서 활용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여 주었다. 특히 단오의 경우에는 이 날에 행사를 새롭게 구성된 청년회나 상인조직 등이 씨름대회나 야유회 등을 조직하여 자신들의 단합을 도모하거나 대외적으로 조직을 과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¹¹²⁾

10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조선후기문집편. 24. 민속원. 2004.

110) 국립민속박물관, 위의 책, 25, 2004.

111) 김만대, 세시풍속의 기반변화와 현대적변용, 세시풍속의역사와변화, 민속원, 304~305, 2010.

112) 강정원, 근대 신문.잡지 세시풍속자료, 국립민속박물관, 4, 2006.

현대에 접어들어 1945년 해방 이후 세시풍속이 크게 달라진 것은 6.25를 거친 뒤가 아니었을까 한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상흔과 파괴를 극복해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는 비록 전쟁의 상처가 크게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농업중심이었다. 따라서 농사 절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세시풍속은 여전히 유지되어 왔다. 1960년대에 산업화가 추진되며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자, 그 양상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¹¹³⁾

구정이나 추석을 고향에서 지내고자 도시에서는 철도나 버스를 이용한 귀향이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 잡고, 교육의 확대가 의미하는 사회적 변화도 적지 않았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전화와 같은 문명의 이기들이 보급되면서 점차 전통적인 풍속이 모습을 감추고, 새로운 풍속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세시풍속의 변화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한국사회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70년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¹¹⁴⁾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을 기반으로 월마다 주기적으로 시행되었던 전통 세시풍속은 지금에 와서는 실존하는 풍속이라기보다는 ‘재현’의 수준에 머물러있다.¹¹⁵⁾ 염원희의 연구를 보면, ‘주기성’의 경우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농업 인구가 전국민의 10% 미만인 현실을 고려하면 농업이 더 이상 한국인의 ‘생활행위’에서 절대성을 갖지 못한

113) 최기영. 한국중앙 일간지에 나타난 한국현대세시풍속, 3, 2006.

114) 이에 대해서는 장주근·김명자·임재해·김만태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장주근이 1960년대 이후 사회 변화에 주목하여 ‘인구의 도시화·상업화·핵가족화·서구화’라는 일반적인 현상을 지적하는데 그쳤다면 (장주근 한국의 세시풍속(형설출판사 1984), 41쪽), 김명자는 가장 다각적으로 세시풍속의 변화를 살폈다 (김명자 「도시문화와 세시풍속」, 한국민속학41, 한국민속학회 2005; 「근대화에 따른 세시풍속의 변동과정」, 세시풍속의 역사와 변화, 민속원.2010). 임재해는 세시풍속과 공휴일 정책과의 상관성을 다루었고 임재해 「세시풍속의 변화와 공휴일 정책의 문제」, 비교민속학10, 비,교민속학회 1993), 김만태는 세시풍속의 기반변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에 따른 현대 세시풍속의 등장과 그 의미를 다루고 있다 (김만태. 위의논문.)

115) 현재는 설과 추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세시풍속은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뿐 실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선시대 4대 명절중 하나였던 단오도 이름만 남아있고 단오 때 치러지는 머리감기와 그네뛰기 같은 풍속은 일반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 다만 이날을 기념하여 민속촌 같은 특정장소에서 이러한 민속놀이가 행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현재도 단오가 세시풍속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것은 실존하는 전통민속 이라기보다는 전통민속에 대한 일종의 ‘재현(reappearance)’에 가깝다

다는 점을 인정해야한다. 이제는 농업이라는 배경을 벗어나 태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일 년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주기적 생활행위에 관해 논의 할 수 있어야 한다.¹¹⁶⁾

주영애(2015)의 연구에서는, 세대별 세시풍속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세시풍속은 우리민족의 삶의 역사이자 문화로서 계승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다만,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새로이 등장하여 지켜지고 있는 데이시리즈는 일부 대표적인 내용 이외에는 그 인식정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했고, 세시풍속의 계승여부나 데이 시리즈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시대의 ‘문화’로서 앞으로는 변화할 것이라는 점¹¹⁷⁾을 밝혔다.

우리의 세시풍속은 농경에서 공업으로, 공업에서 정보화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나 풍속이 잊혀 지거나 변용되기도 하고, 행사 자체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세시음식이나 예의범절, 놀이 등을 하고 있고, 설과 추석 때 민족의 대이동과 세시음식 재료의 판매등을 보면, 세시풍속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생활에서 지속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⁸⁾

명절의 대이동이라는 교통지옥을 피하기 위해 근래에는 단출하게 고향에 거주하는 부모가 도시에 있는 자녀를 찾아와서 설명절을 보내는 경향도 나타난다. 또는 긴 공휴일 기간을 이용하여 국내외 여행을 즐기기도 한다. 새로운 휴가문화가 생성되고 있다. 명절의 역류현상과 여행과 같은 것이 도시세시, 또는 현대세시로 정착될 가능성도 있다.¹¹⁹⁾

현대에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각종 기념일을 칭하는 ‘데이시리즈’가 큰 유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세시풍속 계승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116) 염원희. 크리스마스 도입과 세시풍속 과정에 대한 연구, 국학연구, (22), 2013.

117) 주영애. 세시풍속과 데이시리즈 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비교,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유학연구, (32), 376, 2015.

118) 주영애, 위의 책, 376~379, 2015.

119) 김명자. 도시생활과 세시풍속. 한국민속학. 41. 2005.

있다. 인터넷의 보편화와 SNS를 통한 데이 시리즈 상품판매, 다양한 커플이벤트 등 수많은 현상은 이를 잘 보여준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로즈데이, 빼빼로데이 등 특별한 날로 회자되는 데이 시리즈의 현상은 이를 이용한 새로운 소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¹²⁰⁾

이러한 기업의 데이마케팅 (Day Marketing) 전략에 따라 데이 시리즈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세시풍속의 새로운 변용이나 현대화 등이 지속된다고 볼 때, 데이 시리즈 중심의 신풍속도 현 시점에서 짚어보아야 할 생활문화 현상이다.¹²¹⁾

2) 세시풍속에 따른 오늘날의 새로운 형태

세시풍속은 선조들의 삶이 이어준 텃줄과 같은 존재로 민족혼을 살리고 우리가 현실의 삶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모태로 꼭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 하지만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박물관이나 골동품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진행형인 풍속만이 전통이라 정의될 수 있는 것처럼 현대생활과 이어갈 수 있는 풍속만이 면면히 계승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¹²²⁾

세시풍속의 기반 변화로 많은 전통 세시풍속들이 사라지는 대신 또 다른 여러 가지 현대 세시풍속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삼짇날의 답청(진달래 화전놀이)은 춘계소풍으로, 한식날은 식목일로, 유두놀이는 연꽃놀이와 물놀이로, 삼복은 여름휴가로, 중앙절은 가을소풍과 단풍놀이로, 상달고사는 각 지역의 축제로, 선달그믐은 송년모임으로, 해마다 열리는 동창체육대회는 중장년층의 새로운 명절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세시풍속은 이름만 바뀌었지 실상은 계속되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다.¹²³⁾

120) 주영애, 앞의 연구, 380-381, 2015.

121) 김만태 세시풍속의 기반 변화와 현대적 변용. 비교민속학(38). 318, 2009.

122) 장재천, 세시풍속의 사회교육적 의의, 한국사상과 문화, (47), 187-214, 2009.

현대사회는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같은 취미, 관심을 갖고 있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행하는 세시풍속이 크게 늘고 있다(예: 아마추어 자전거 동호회 연. 월례행사). 이처럼 1990년대 후반 디지털시대로 진입하면서 가상공동체라는 자유롭게 의사를 소통하는 네트워크가 등장하여 새로운 인간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탄생케 했으며, 이는 인간 삶의 양식을 새롭게 특징짓는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¹²⁴⁾

주영애의 연구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는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민속적인 세시풍속이 있다면, 현대적으로는 매년 행해지는 연중행사가 있다. 일반인들은 제각기 의미를 부여하며, 일련의 행사, 나눔, 교류 등을 하고 있으며, 현재의 '생활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즉 대중문화, 소비문화 등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행사나 각종 이벤트 등은 생활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대적인 연중행사이자, 세시와도 같이 반복되는 풍속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자본주의와 소비문화가 주도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반영해 본다면, 도시의 세시풍속으로 대치되는 현상이 이른 바, 데이시리즈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인다.¹²⁵⁾

이러한 현상을 본 연구에서 활용 할 계절별·월별 세시풍속에 나타난 음력일과 대비하여 데이시리즈에 나타난 매월 14일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표 II-6>. 10대들이 주도하는 기념일이라고 해서 흔히 포틴데이라고 부른다. 이는 발렌타인데이를 본 딴 것으로 1990년대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123) 장재천, 위의 논문, 209.

124) 김만태. 비교민속학. (38). 336, 2009.

125) 주영애. 세시풍속과 데이시리즈 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비교.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유학연구, (32), 380~381, 2015.

<표 II-6 > 세시풍속에 따른 오늘날의 새로운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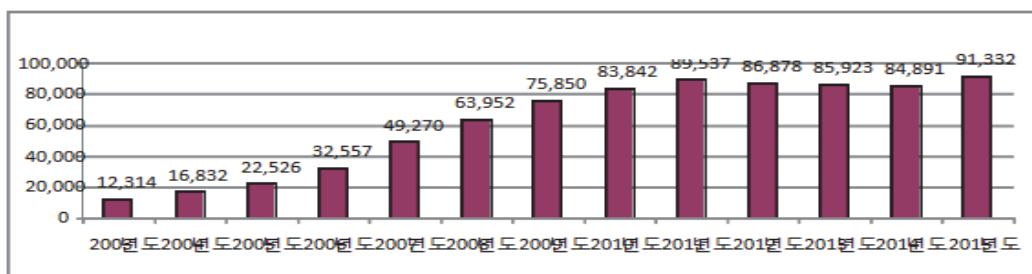
계절	세시풍속				데이 시리즈		
	음력	명절	날짜	양력	명 명	의 미	
봄	1월	설	1일		14일	다이어리 데이	서로 일기장을 선물하는 날
		대보름	15일				
	2월	머슴날	1일		14일	발렌타인 데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사랑을 밝힐 수 있는 날
3월	삼짇날	3일		14일	화이트 데이	남성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	
	한식	4월5~6일					
여름	4월	초파일	8일		14일	블랙 데이	솔로를 위한 기념일, 발렌타인 데이와 화이트데이날 선물을 받지 못한 남자가 새카맣게 타버린 마음을 드러내는 날로 자장면을 먹는 날.
	5월	단오	5일		14일	로즈 데이	연인들끼리 사랑의 표현으로 장미꽃을 주고받는 날
	6월	유두	15일		14일	키스 데이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에서 키스를 나누는 날
가을	7월	칠석날	7일		14일	실버 데이	연인들이 은반지를 주고받으며 미래를 약속하는 날
	8월	추석	15일		14일	그린 데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산을 찾아 연인과 삼림욕을 하는 날
	9월	중양절	9일		14일	포도 , 뮤직 데이	연인과 함께 기념사진 찍는 날, 음악이 있는 곳에서 춤을 추며 즐기는 날
겨울	10월	상달			14일	와인 데이	연인들이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날
	11월	동지	12월22일경		14일	무비 데이	연인들이 함께 영화를 보는 날
	12월	설날	그믐		14일	허그 데이	추운 겨울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는 날

Ⅲ. 외국인 유학생대상 한국문화체험 실태

1.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체류 현황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는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 확대 및 인재유치 차원에서 우수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의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 2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국내 학생 대비 유학생비율 약 2%→ 5%이상). 글로벌 인재를 받아들임으로써 미래의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15)에서 공시한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그림Ⅲ-1] 2003년 12,314명에 이르던 것이 2004년 16,832명, 2006년 32,557명, 2015년에는 91,332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Study Korea Project)' 시행과 더불어 각 대학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노력으로 불과 10여년 사이에 여덟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Ⅲ-1]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2015. 4. 1. 기준 집계)

*출처: 교육부(www.moe.go.kr)

유학 형태별로 보면<표 Ⅲ-1>. 자비유학생은 78,845명이며, 정부초청장학생은 2,901명이다. 대학초청 장학생은 6,802명이며, 자국 정부과견장학생은 1,178명이고 기타 학생들과 모두 합치면 91,332명이다. 2014년과 2015년 1년 사이에 6,441명이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자비 유학생이 5,707명 증가하였다는 것은 한류의 열풍도 있겠지만 한국에서의 교육이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한국 정부에서의 노력을 엿 볼 수 있다.

<표 Ⅲ-1> 유학형태별 유학생 수 (단위: 명)

유 학 형 태	2014년도	2015년도	증감
자비유학생	73,138	78,845	5,707
정부초청장학생	2,701	2,901	200
대학초청장학생	6,890	6,802	-88
자국정부과견장학생	1,042	1,178	136
기타	1,120	1,606	486
합 계	84,891	91,332	6,441

* 출처: 교육부 (2015. 4. 1. 기준 집계)

출신지역별 유학생 수를 보면, 아시아가 79,257명(86.8%)이고, 아프리카 2,005명(2.2%), 오세아니아 386명(0.4%), 북미4,113명(4.5%), 남미 863명(0.9%), 유럽 4,708명(5.2%)순으로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수가 54,214명(59.4%)으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 일본, 몽골, 미국, 대만 순으로 유럽, 오세아니아등 기타 지역에서 온 학생수가 23.1%이며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주요 국가별 유학생 수

국 가	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미국	대만	기타	계
유학생수	54,214	4,451	3,492	3,138	2,968	1,994	21,075	91,332
비율(%)	59.4%	4.9%	3.8%	3.4%	3.2%	2.2%	23.1%	100

* 출처: 교육부 (2015. 4. 1. 기준 집계)

교육부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요를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재외 동포 및 외국인 유학생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목적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한국유학에 대한 매력도 제고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예를 들자면, 유학생이 본국에 귀국한 후 동문회에 다도·꽃꽂이 등 일본 문화를 소개하고, 자국과 일본의 우호친선 활동을 지원하는 동문조직 활동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¹²⁶⁾ 이에 한국 세시풍속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과의 우호친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2.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체험 실태

1) 서울시 소재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체험

<표 III-3> 외국인 유학생 전담기관 처

	Name of University	Title
1	http://www.snu.ac.kr/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2	http://www.yonsei.ac.kr/ersity	Institute of Language Research and Education-Korean Language Institute
3	http://www.korea.ac.kr/do/Index.do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 Studies-Korean Language & Culture Center
4	http://www.hanyang.ac.kr/	International Language Institute
5	http://www.khu.ac.kr/Index.jsp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Language & Culture Program
6	http://www.kaist.ac.kr/	KAIST Language Center
7	http://www.skku.edu/index_pc.jsp	SungKyun Language Institute
8	http://www.sogang.ac.kr/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9	http://www.cau.ac.kr/index.psp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10	http://www.uos.ac.kr/kor_2010/main	Korean Language Institute

126) 교육인적자원부 사이트, www.moe.go.kr

	.jsp	
11	http://www.ewha.ac.kr/kor/Index.jsp	Language Center—Courses for Korean Language
12	http://www.konkuk.ac.kr/	Intensive Courses for Institute
13	http://www.dongguk.edu/mbs/kr/ind ex.psp	International Program and Education—Korean Language Edu.
14	http://home.hongik.ac.kr/	International Language Institute – Korean Language Institute
15	http://www.sookmyung.ac.kr/Index.jsp	International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Korean Language Institute
16	http://www.kookmin.ac.kr/homee.php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Korean Language Center
17	http://www.sungshin.ac.kr/	International Culture Education Institute
18	http://www.swu.ac.kr/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19	http://www.hansung.ac.kr/web/www /home	Language Institute— Korean Language Ceurses
20	http://www.syu.ac.kr/web/kor/home	International Culture Education Center – Korean Language Ceurses
21	http://www.smu.ac.kr/default.html	International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Center
22	http://homepage.sch.ac.kr/sch/Index .jsp	Center for International Education and Exchange— Korean Language Institute

* 출처: 외국인 유학생 전담부서 인터넷 홈페이지 요약, 재인용(박세아·주영애, 2013).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을 전담하는 기관은 각각 한국어학당, 국제문화교육원, 국제어학원, 국제교류문화원, 국제교류 외국인지원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표 Ⅲ-3>.127)

본 연구자가 조사한 서울소재 각 대학별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는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표 Ⅲ-4>,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에 적응을 돕기 위하여 각 학교의 기관에서는 전통문화체험교육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의 국제어학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문화체험 교육을 세시풍속문화 체험콘텐츠의 다섯분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27) 박세아·주영애, 외국인 학생의 한국생활문화교육 실태연구, 유라시아연구, 10(1), 433-454, 2013.

의례체험으로는 한국의 역사 및 예절, 다도, 사찰체험, 전통마을 체험을 통하여 한국의 예절경험을 하고 있다. 음식체험에서는 한식음식 만들기, 김치 담그기, 한국요리(불고기, 잡채) 배우기를 한다. 놀이체험으로는 사물놀이, 민속놀이, 한국의 장단을 익힐 수 있는 신명나는 난타, 박물관체험이 있다. 예술체험으로 노래교실, 무예체험, 한국무용, 전통춤, 도자기, 공예, 전통민요, 매듭, 도장만들기, 미술관견학이 있다. 놀이와 예술체험은 일부 겹치기도 한다.

축제문화에 대한 소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는 축제에 개인별로 참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통문화체험은 아니지만 현 생활에 필요한 체험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학교의 사이트에서는 한국 세시풍속문화 체험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학교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일상을 담은 세시풍속에 관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없으며, 교육내용 또한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표 III-3>에서 보듯이 외국인 학생을 유치한 학교 사례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이 22곳 이었다. 그러나 한국문화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와 한국문화체험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10여개 학교로 조사되었다<표 III-4>. 그 중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기위해 국립국악원이나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역사박물관을 연계하여 체험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표 III -4> 서울시 각 대학별 한국어학당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학교	의례	음식	놀이	예술	축제	기타
건국대학교		한식 음식, 김치 담그기		공연관람		찜질방, 카누타기 운동경기
경희대학교	한국의 예절, 역사		사물놀이 민속놀이	예술무예, 노래교실, 한국무용		영화
고려대학교			전통놀이	공예		아이스링크
국민대학교	다도체험,		민속촌, 고궁, 사물놀이	도자기, 전통춤, 태권도		한국어대회, 방송국, 외국인 학생의 날, 영화관람
명지대학교	한복체험, 예절	한국음식	전통놀이	한국노래, 전통공예품		공연관람
서울대학교	다도체험	한국요리 (불고기, 잡채)	사물놀이	전통민요, 한지공예		판문점 견학
숙명여자대학교	고택체험, 사찰체험, 전통마을 체험, 다도 체험	한국음식	난타, 고궁, 박물관,	부채만들기, 연극, 도자기 제작		영화관람, 미술관, 방송국, 판문점, 재래시장, 산업시설, 영화촬영지
연세대학교		한국음식	사물놀이,	도장, 연봉매듭		경희루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 강의			한지공예, 태권도		한국 경제기적과 미래도전, 한국의 종교와문화, 한국과 북한 분단과 통일
성신여자대학교	다도 체험, 한복체험, 다식만들기	한국음식	난타, 연극, 박물관, 미술관, 고궁	한국무용		판문점, 재래시장, 인사동거리

* 출처: 대학교 부설 언어교육원/한국어학당 홈페이지 인터넷 자료조사 요약, 본 연구자가 요약한 것임(2016. 9.)



(O.T)



예절(중국)



다식 (일본)



다례



비빔밥 만들기



한식 테이블



다도체험 (미국)



전통 혼례체험(미국)



혼례복 (사할린)



[그림 III-2] '성신여자대학교 외국인학생 대상 한국문화체험'('10~ '15)

*출처: 성신여자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문화예술대학원 전통문화콘텐츠평가 제공

성신여대 [그림 III-2]에서는 국제문화교육원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과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차문화를 익히면서 정신수양을 체험하고, 한국의 전통예절을 배워 한국인의 인성교육에서부터 글로벌 매너에 이르기까지 예절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절기에 따른 음식체험을 통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한식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한국 전통문화체험 교육은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인프라가 조성되어야만 실현가능하다.

2) 국립민속박물관의 외국인 한국문화체험

국립민속박물관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멋, 맛과 흥이라는 주제로 전통혼례에서부터 한국의 음식이야기, 봉산탈춤과 사물놀이 까지 다양한 문화체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의 일상 전시에서는 농경기 사회로부터 뿌리가 되어 온 우리문화의 일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표 III-5 >, 명절의 의미를 알고 세시풍속으로 내려오는 설, 단오, 추석, 동지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한국인의 배려와 단합된 힘이 농경사회의 풍속에서 전해져오는 것을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체험을 살펴보면, 한국의 흥을 알리는 설장구, 사물놀이, 강령탈춤을 들 수 있고, 한국의 멋으로 전통혼례를 들 수 있다. 한복 입어보기, 댕기 만들기와 더불어 한국인의 주식인 쌀과 밀의 농사 이야기도 들어있다.

<표 III-5> 국립박물관 외국인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2015~ 2016)

주제	내용		체험내용
한국의 멋과 맛	전통혼례		한복입어보기, 댕기만들기
	농사이야기 “쌀과 밀”		김밥과 수제비
한국의 흥	장단 배우기		설장구, 사물놀이, 강령탈춤
한국 문화의 의미	장수	첫돌(1살생일)	십장생무늬 한지 쟁반 만들기
		회갑(60살생일)	
	성격	열두 띠 이야기	곡물로 나의 띠 동물 만들기
	믿음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장승, 솟대 깎기
	공감	탈춤 배우기 k-pop음악에 맞춰 춤 만들기	모듬별 춤 자랑
이해	한국 민속 알기		박물관 속 유물찾기
한국의 명절	설 (대보름)	설과 정월대보름 풍속 알기	
		부럼깨기, 귀밝이술 맛보기	
		소원 연 만들어 날려보기, 줄다리기	
	단오	단오의 의미와 풍속알기	전통 부채 만들기 (단오선)
		추석	
	추석	송편 만들기	강강술래 즐기기
한국 민속 외국인	악기 배우기	해금, 가야금, 북, 장구 배우기	
전통연희	공연	사물놀이, 탈춤, 택견 배우기	
테마가 있는 한국 민속체험	전통 복식	가방, 필낭 만들기	
	전통 음식	김치 담그기, 떡살문양 떡 만들기	
	전통 문양	한지, 닥종이, 과반, 보석상자, 단오선	
원어민 강사를 위한 문화체험	전통 탈 만들기	하회탈 만들기, 보자기	
계기별 세시풍속체험	단오	단오 창포삼푸 만들기, 창포물에 머리감기	
	추석	송편 빚기, 시식하기	
	동지	복주머니 만들기, 동지버선 모양 가방만들기	
	가을	김장하기	
	겨울	동지팔죽 나누기	

*출처: <http://www.nfm.go.kr>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사이트 조사



신랑,신부-한복입기

강령탈춤

민속체험-반진고리

전통악기-해금연주

김장담그기

송편만들기

장구 공연

사물놀이

택견

송편

농악기

단오선

[그림 III-3] 국립민속박물관 외국인 한국문화체험 ('13~ '15)

*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사이트: www.nfm.go.kr/attended

한국의 명절에 대한 체험 행사는 다양하다. 설과 추석, 정월대보름, 단오 행사를 하고 있으며 부럼 깨기, 귀밝이술 맛보기, 줄다리기, 소원 연 날리기 등 조선시대부터 액막이로 전해져 내려오는 행사를 체험한다. 단오 행사를 부활시켜 청포에 머리감고, 전통부채를 만들며 외국인들의 흥미를 돋운다. 계절별 세시풍속으로 가을, 겨울 행사로 김장하기, 동지팥죽 먹기 등을 체험한다.

박물관에서 교육의 장점을 부각시킨 다채로운 행사와 홍보효과가 있어서 많은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나, 다양한 계층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꺼번에 체험교육이 이루어지므로 가장 기초적인 체험으로만 그치는 한계점이 있다.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에게 맞추어진 심도있고 단계별 체계적인 문화체험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존재한다.

3) K-style Hub 한식문화관

본 연구에서는 세시풍속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음식이다. 주영애의 연구¹²⁸⁾에서 세시음식의 확산 노력이 요청된다고 제언에서 기술되고 있다. 세시풍속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오랜 역사동안 시식과 절식이 중심이 되어 온 우리의 음식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세시음식들의 개발과 기업마케팅으로 적용되는 노력이 기대되는 바로 제언하고 있다.

K-Style Hub 한식문화관에서는 한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 체험관으로 한식배움터와 한식체험마당, 한식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보급을 하고 있으며 한식 배움터를 만들어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식문화관의 3층 전시장은 계절별·절기 세시음식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 훌륭한 전시장으로서 관광객들에게 한식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지만 4층 체험관에서는 세시음식 프로그램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다.

K-Style Hub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한식 체험프로그램이 관광의 일부가 아니라, 한국인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인 한국음식문화의 한 분야로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세시풍속 절기에 따른 음식체험교육을 체계

128) 주영애, 세시풍속과 테이시리즈 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비교,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유학연구, (32), 375-400, 2015.

한식배움터 상설 프로그램

한식재단
KOREAN FOOD FOUNDATION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30	Cook-N-Dine		Cook-N-Dine	Cook-N-Dine	Cook-N-Dine	Cook-N-Dine	Cook-N-DIY
14:00	Cook-N-Play	휴관	Cook-N-DIY	Cook-N-DIY	Cook-N-Play	Cook-N-DIY	Cook-N-Play
16:00	Cook-N-Play		Cook-N-DIY	-	Cook-N-Play	Cook-N-DIY	-



한식체험마당 메뉴 구성

한식재단
KOREAN FOOD FOUNDATION

콩(장)

- 두부
- 볶한식
- 다양한 장을 활용한 음식

쌀

- 전통주
- 주전부리
- 찜밥

차와 음료

- 전통차 (HOT & COLD)
- 식혜, 미숫가루

다과

- 다식과 떡
- 한과
- 정과

Cook-N-Dine : 특별메뉴1

한식재단
KOREAN FOOD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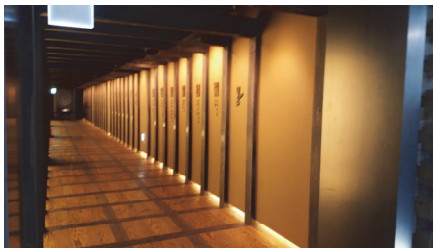
- 김치만들기 (김장체험)
-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김장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 전통적인 배추김치 양념레시피를 설명하고 갓 담은 샐러드 형태의 김치 소개
- 제육보쌈과 무채, 절임배추와 양념, 밥, 후식
- 2시간 소요 / ₩5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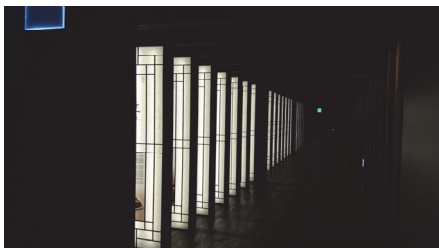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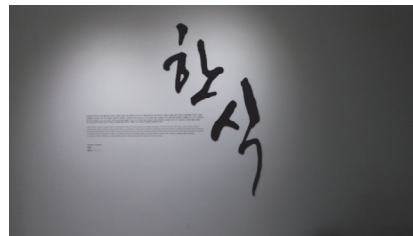
Cook-N-DIY

한식재단
KOREAN FOOD FOUNDATION

- 한식 디저트를 만들어 한지를 이용해 포장하기
- 전통 다식 만들기
- 다양한 색감과 질감을 이용한 한지공예
- 간단한 다과 제공
- 100분 소요 / ₩33,000



계절별 · 절기 소개내용



계절별 · 절기 세시음식 소개마당



【그림 III-4】 K-Style Hub 한식문화관 프로그램

* 출처: K-Style Hub (16)

적이고 전문화 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열린다면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훌륭한 한식 배움터가 될 것이며, 이들이 미래에 자국으로 돌아가 한식을 알림과 동시에 한식의 세계화에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다.

4) 지역문화원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역문화원의 세시행사는 지역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정진 외, 한국 축제 50선과 한호철 저서와 국립문화재연구소 각 도별 세시풍속편에서 본 연구자가 발췌한 내용이다<표 III-6>.

<표 III-6 > 지역별 지역문화원 세시행사

지역별	보존회	문화원	농악	박물관	협회
강원도	강릉단오제 보존회	영월문화원			
		삼척문화원			
충청남도		서천문화원		기지사 줄다리기 박물관	
		태안문화원			
전라북도	익산목발노래보존회	남원문화원	임실필봉농 악		장수국악 협회
	띠뱃놀이문화원		이리농악		
전라남도	법성포단오제보존회 해남 우수영 강강술 래 보존회		구례진수 농악원		
경상북도	경산자인단오제 보 존회	안동문화원			
		고령문화원			
경상남도	진주소씨음 밀양백중놀이보존회				
	칠머리당 영등굿보존회				
대전광역시		대전중구 문화원			
황해도	봉산탈춤 보존회				

*출처: 이정진 외, 한국 축제 50선과 한호철 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각 도별 세시풍속편에서 본 연구자가 발췌한 내용임(2016.10)



제주 들불축제



태안 벚가릿대놀이



기지사줄다리기 축제



연등축제- 조계사, 봉은사



강릉 단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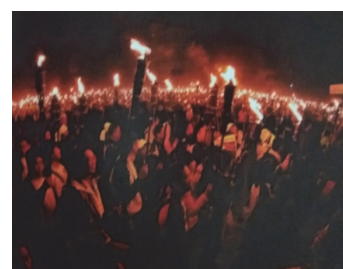
청도 소싸움



광주-세계김치축제



천안 홍타령



김제벽골제-헛불퍼레이드

【그림 III-5】 지역별 한국의 축제 ('13~'15)

*출처: 이정진 외, 한국 축제 50선과 한호철 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각 도별 세시풍속편

지역문화원과 문화보존회에서는 농경기에 맞춰 세시풍속을 지속 시키려는 노력이 보인다. 세시풍속 행사를 지역축제로 만들어 전국에 알림과 동시에 대동놀이의 성격으로 확장하고 있다. 한국의 민속축제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의 정서가 묻어있는 세시축제가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 민속의 주체성을 더욱 부각시켜 외국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시축제를 만들면 외

국인 학생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활동에서 한국인의 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3.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체험 한계성

앞의 선행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 본 결과, 첫째,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도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문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한국 문화교육이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¹²⁹⁾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으로는 한식 먹기, 김치 담그기, 전통놀이, 민속촌 방문, 한국노래 배우기, 고궁 방문 등이 주를 이룬다. 체험프로그램으로 한국무용, 태권도, 사물놀이, 도자기체험, 다도체험, 한복입기, 절하기, 한지공예 등을 체험¹³⁰⁾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신적인 측면이 다소 결여된 현장을 위주로 체험학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서 그 한계점이 드러난다고 여겨진다.

둘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체험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은 연령이나 소속에 상관하지 않고 다양한 외국인들이 모여 한국문화를 체험한다. 언어의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쉽고 간단한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대학의 한국어 초급단계에서 민속박물관을 방문하여 체험교육을 하는데 1어학당 소속 외국인 유학생들은 2년째 같은 프로그램이어서 아쉬움이 있다고 하였다. 유학생들을 위한 단계별로 변별력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세시풍속에 관한 체험은 설, 대

129) 이정민, 세시풍속을 이용한 문화수업 모형 개발, -문화수업자료 개발의 원리를 바탕으로 -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 3(2), 155-179, 2007.

130) 강현화,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요구조사-문화교재 개발을 위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31), 99-128, 2006.

보름, 단오, 추석에 국한하여 체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시장에서 한국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농경기 사회를 안내하였듯이, 한국인의 일상에서 세시풍속에 관한 일 년 열두 달의 행사를 지속적인 체험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한국관광공사 3~4층에 위치한 K-Style Hub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식을 홍보하기 위하여 한식문화관을 만들어 전시관과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관에서는 4개국 통역으로 한국의 절기를 소개하고, 절기에 맞는 세시음식을 사진과 자료들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 전시관에서 보았던 세시음식들을 체험관에서 체험할 기회가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체험관에서는 전시관에서 홍보한 내용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체험이 소개되고 있다. 전시관에서 시도되었던 한국인의 일상을 담은 세시음식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관광을 온 외국인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단계별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한식의 세계화와 브랜드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역문화원·보존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시행사를 보면, 복과 풍요를 기원하는 소원들이 들어있다. 이러한 세시행사들은 삶의 터전과 연계되어 시대가 바뀌어도 이어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시풍속 행사를 지역축제로 만들어 전국에 알림과 동시에 대동놀이의 성격으로 확장하고 있다. 세계의 축제들처럼 스페인 토마토 축제, 독일 맥주 축제, 브라질 삼바축제, 보령 머드축제 등을 살펴보면, 세계인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축제로서 그 생명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세시풍속 축제도 민속의 주체성을 더욱 부각시켜 외국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시축제를 만들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한국세시풍속문화 축제체험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활동에서 한국인의 정서를 더욱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세시풍속문화 체험콘텐츠는 한계점을 벗어나기 위하여 장미영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단계별로 변별화시키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문화체험 교재로써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제 4장에서는 이에 한계점을 극복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하여 한국인의 일상을 알기 위한 세시풍속 체험콘텐츠 개발을 하였으며, 체험콘텐츠 개발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체험으로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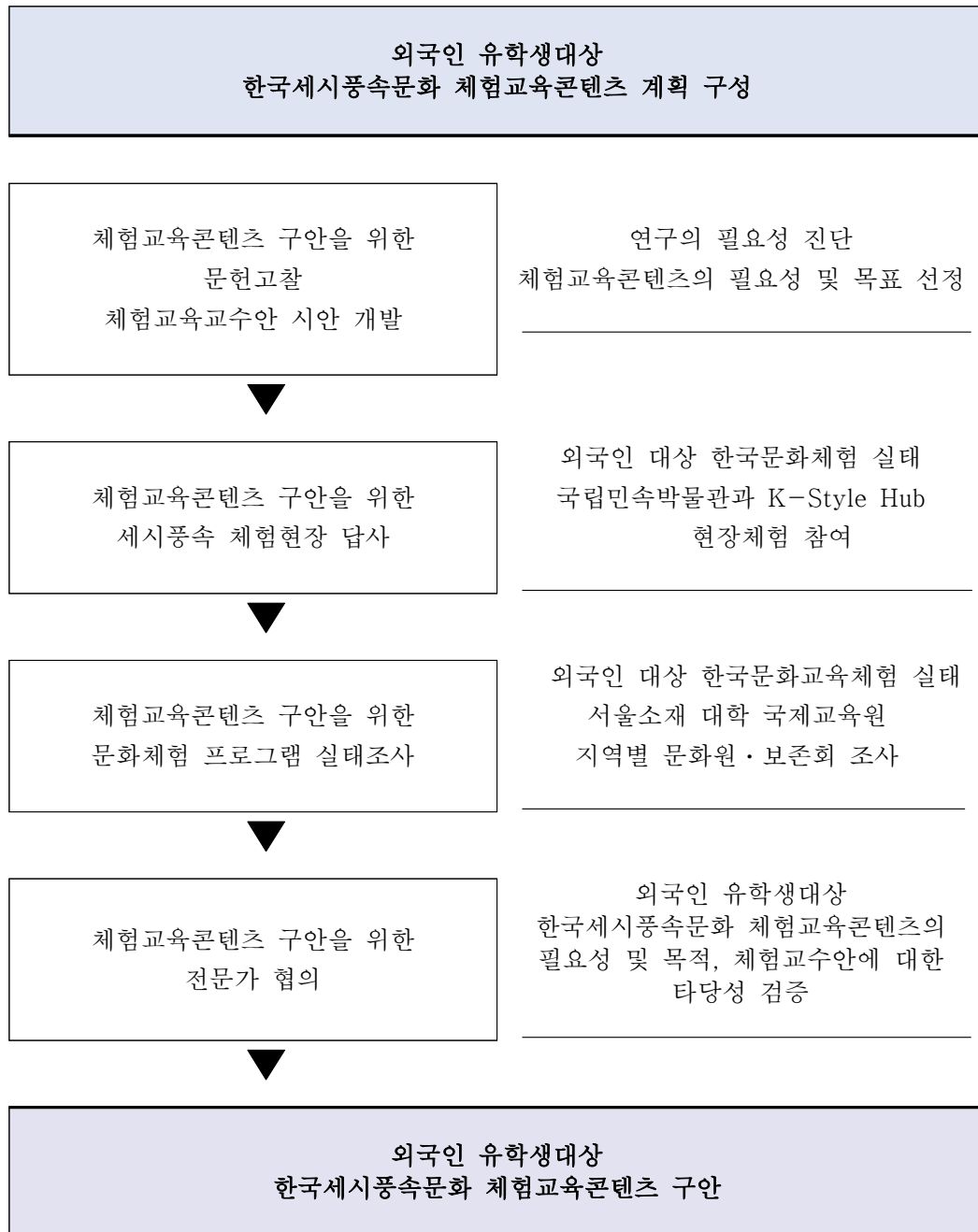
IV. 외국인 유학생대상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 교육콘텐츠 구안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연구는 문헌고찰, 세시풍속 체험현장 답사, 문화체험 프로그램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체험콘텐츠가 구안되었다. 콘텐츠 구안의 주요내용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체험교수안을 작성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쉽도록 중점을 두고 구안하였다.

1.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의 구안절차

본 연구의 체험교육콘텐츠 구안을 위한 문헌고찰 단계에서는 세시풍속 이론적 고찰 및 인식연구, 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구,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외국인 대상 문화콘텐츠 개발 연구, 비교문화 연구에 관련 된 선행연구 분석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출간한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과 「조선대세시기」Ⅱ,Ⅲ,Ⅳ권을 바탕으로 세시풍속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별 특징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출간한 각 지역별 세시풍속의 계절별·월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고찰을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대상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의 필요성과 목적, 체험교수안 등을 선정하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체험교육콘텐츠 구성은 문헌고찰, 체험현장 답사, 문화체험 실태조사, 전문가 10인(교육학교수, 경영학교수, 생활문화교수, 문화콘텐츠교수, 유아교육교수 3인과 음악, 미술, 전통예술 문화예술사 3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콘텐츠 분류에 따른 의례, 음식, 놀이, 예술, 축제문화를 소개하고, 계절별·절기별로 통합교수안을 구안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주제와 학습목표, 학습내용, 체험콘텐츠로 구성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대상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구안의 연구절차는 [그림 IV-1] 과 같다.



[그림 IV-1] 외국인 유학생대상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구안 절차

2.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의 오덕(五德)

최근 잇달아 출간되고 있는 문화교육 관련된 교재에 대해 이은숙¹³¹⁾은 한국문화교육이 한국어의 부수적인 교재로만 다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한국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문화에서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윤상철¹³²⁾은 ‘체험학습’의 문화요소를 포함한 학습자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문화체험’은 문화에 노출되어 경험하게 되는 일체의 체험으로 문화체험 만족도와 학습 외적인 효과도 있음을 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을 구성한 한국 세시풍속을 내용으로 계절별·월별로 봄 세시풍속으로는 설, 대보름, 삼짇날, 한식, 여름 세시풍속으로는 초파일, 단오, 유두, 가을 세시풍속으로는 칠석, 추석, 겨울 세시풍속으로는 상달, 동짓달, 선달그믐으로 제한하여 세시풍속을 분류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예(禮), 의(義), 지(智), 인(仁), 신(信)의 오성(五星)은 광무제의 『백호통의(白虎通義)』 『정성편(情性篇)』¹³³⁾에서 표현한 것을 기초로 하여 반영하였으며, 문화는 의례, 음식, 놀이, 예술, 축제 등 다섯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전문가의 검증은 거쳐 본 연구자가 오덕(五德)의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오덕(五德)으로 예(禮)는 의례문화, 의(義)는 음식문화, 지(智)는 놀이문화, 인(仁)은 예술문화, 신(信)은 축제문화로 재조직하여 반영하였다. 이에 계절별 절기·명절에 따른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의 오덕(五德)의 분류는 <표 IV-1 >과 같다.

131) 이은숙,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험 중심의 한국 문화교육 방안 고찰, 국어문학, 제48집, 332, 2010.

132) 윤상철, 현장학습을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법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33) 백호통의(白虎通義) 『정성篇』. 五性者何 謂 仁.義.禮.智.信也. 仁者, 不忍也, 施生愛人也. 義者, 宜也, 斷決得中也. 禮者, 履也. 履道成文也. 智者, 知也. 獨見前聞, 不惑干事, 見微者也. 信者, 誠也. 專一不移也.

<표 IV-1 > 세시풍속 체험콘텐츠의 오덕(五德) 분류

계절	절기·명절	오덕(五德)의 콘텐츠 분류					계
		예(禮) 의례문화	의(義) 음식문화	지(智) 놀이문화	인(仁) 예술문화	신(信) 축제문화	
봄 (13)	설	●	●	●	●	●	5
	대보름		●	●	●	●	4
	삼짇날		●	●	●		3
	한식	●					1
여름 (9)	초파일		●	●		●	3
	단오		●	●	●	●	4
	유두		●	●			2
가을 (8)	칠석		●		●	●	3
	추석	●	●	●	●	●	5
겨울 (8)	상달		●	●	●	●	4
	동지		●				1
	선달	●	●		●		3
합계	12개월	4	11	8	8	7	38

이와 같이 세시풍속 체험콘텐츠 오덕(五德)의 분류를 살펴보면, 의례 4편, 음식 11편, 놀이 8편, 예 8편, 축제 7편으로 총 38편의 콘텐츠가 구성되었다<표 IV-1>.

1) 예(禮)의 의례문화

예(禮)의 의례문화에는 계절적인 변화의 시기마다 국가적인 “제”의례와 가정에서의 조상숭배와 어른을 존중하는 한국인의 예절(禮)속에 효사상이 있으며, 예(禮)를 행함으로써 효(孝)를 실천하는 풍속이 담겨있다<표 IV-2>.

설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는 풍속은 삼국 시대부터 유래되었다. 임금님을 비롯한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이 돌아가신 조상을 숭배하고 받드는 우리만의 고유한 미풍양속인 것이다. 한식(寒食)에는 조상의 산소를 돌보며 차례를 지낸다. 우리 풍속에서 산소에 직접 찾아가서 제사를 올리는 날은 설날과 한식, 단오, 추석에 국한 되어있다. 이렇게 성묘하면서 지내는 제사를 묘사(墓祀)라 한다.

추석은 한가위, 중추절, 가윗날 등과 같이 다양하게 불리는 우리 고유의 명

절이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가배(嘉俳)는 오늘날의 가위 즉 한가위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¹³⁴⁾ 『고려가요』 ‘동동’에도 가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아 예전부터 계속하여 중요한 명절로 자리 잡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선달그믐에는 일 년의 모든 부정을 털어낸다는 의미에서,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며 밤에는 집안 구석구석에 불을 밝히고 뜬눈으로 지새웠다. 음식을 차려 조상님께 그믐제사를 지내는 의례행사를 알 수 있다.

<표 IV-2 > 예(禮)의 의례문화

교육일	절기	의례명	체험교육 콘텐츠
음 1월1일	설	차례, 세배	설날의 세시풍속과 설빔의 의미
양 4월5일	한식	성묘, 차례	한식의 별초, 성묘의 의미
음 8월15일	추석	성묘, 차례	추석의 차례와 햇곡식에 대한 의미
음 12월31일	선달그믐	그믐차례	그믐차례의 의미

2) 의(義)의 음식문화

의(義)의 음식문화에는 자연의 섭리를 따라 제철음식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려는 조화와 공존의 기원을 엿볼 수 있으며, 바르고 순응하는 의(義)를 행하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표 IV-3>.

세시음식이란 1년 중 특별한 시기가 되면 으레 만들어 먹는 음식을 말하며, 명절음식은 물론 세시풍속에 따라 장만하는 음식을 포함한다. 자연환경에 맞는 음식으로 제철음식이 주류를 이루며 시절음식(時節飲食)이라고도 한다. 이런 음식들은 농경민족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자신들을 돌봐 준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것으로써 제사로 표현되었다.¹³⁵⁾

설날에는 떡국을 먹으면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풍속은 아직도 전해져 오고 있다. 대보름에 먹는 나물은 더위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상들의 지

134) 한호철, 세시풍속 이야기, 지식과 교양, 295, 2016.

135) 한호철, 위의 연구, 25, 2016.

혜가 담긴 음식임을 알 수 있다. 삼진날에는 봄소식을 들으며 산에 올라 진달래꽃을 따다 화진놀이를 한다. 초과일에는 계절의 미각을 사랑하는 다양한 나물과 음식들이 즐비하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절을 찾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반을 대접하는 풍속이 있다. 단오에는 수리취떡이 유명하다. 수리취 나물을 뜯어 만든다. 썩떡보다도 더 쫄깃쫄깃한 맛이 난다. 유두에는 유두면, 수단, 밀전병, 구절판 등이 있다. 한여름의 더위와 습도로 인하여 만든 음식은 바로 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칠석에는 밀전이나 수수나 감자로 만든 떡, 제철음식으로 호박전, 화채 등이 있다. 밀전병, 팔시루 떡도 있다.

추석에는 햅쌀로 오려 송편을 만들기도 한다. 송편은 떡을 찰 때 솔잎을 깔고 찌었던 데서 유래했다. 솔잎은 향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송편의 모양은 달을 본떠서 만든 것인데, 달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다. 호박을 넣은 시루떡, 인절미등도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식이다.

상달은 한 해 농사를 추수하여 햇곡식이 풍부한 시기이다. 다가오는 추위에 대비하여 구워 먹거나 끓여 먹는 음식이 시절음식이 되었다. 신선로, 전골냄비 등이 있으며, 오색강정을 만들어 정초에 세찬으로 손님을 접대할 때에도 많이 사용하였다. 월동준비로 김장담그기를 한다. 동지에는 팔죽을 끓여서 먹는다. 나이 한 살 더 먹는다하여 나이 수만큼 새알을 만들어 먹었다. 절기별 음식을 통하여 자연에 순응하며 의(義)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IV-3> 의(義)의 음식문화

교육일	절기	음식명	체험교육 콘텐츠
음 1월1일	설	떡국 만들기	나이한 살 더 먹는 떡국의 유래
음 1월15일	대보름	오곡밥, 묵은나물	부럼깨기의 액막이
음 3월3일	삼진날	진달래 화진, 썩탕	봄의 소식
음 4월8일	초과일	소반, 미나리강회	비빔밥 먹어요
음 5월5일	단오	비빔밥, 수리취떡	수리취떡을 만들어 보아요
음 6월15일	유두	구절판	구절판은 어떻게 만들까요?
음 7월7일	칠석	밀전병, 증편, 백설기	꿀을 넣은 백설기 만들기

음 8월15일	추석	오려송편, 호박떡	송편 만들어 보기
음 10월전체	상달	신선로, 김장하기	신선로, 김장, 한식의 세계화
양 12월22일	동지	동지팥죽, 동치미	동지팥죽의 유래
음 설날그믐	설날	떡국(만둣국), 골동반	만두 빚기

3) 지(智)의 놀이문화

지(智)의 놀이문화에는 선인들의 생활속에서 슬기롭게 창조하고 계승해 온 환경적인 어려움을 해학적 놀이문화로 승화시키는 지혜(智)로움을 담았다<표 IV-4>. 봄에 씨를 뿌리고 또 가을에는 추수를 끝내고 나서 부족이 모여 천신, 자연신에게 제사 지내는 풍속이 있었다. 행사 때에는 남녀노소가 다 같이 어울려서 노래 부르고 춤추며 즐겁게 놀이를 하였는데 이러한 놀이 풍습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계승되어 오늘날 민속놀이로 발전해왔다.¹³⁶⁾

설날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는 연날리기와 윷놀이가 있다. 이때 윷으로 점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윷가락을 세 번 던져서 나온 께를 하나로 합하여 신수를 보는 것이다. 윷놀이, 연날리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는 설에서 대보름까지 이어졌다.¹³⁷⁾ 삼짇날에는 어른들이 화전놀이를 하는 동안 어린 여자아이들은 풀과 나뭇가지를 뜯어 인형을 만들어 풀각시놀이를 하였으며, 남자 아이들은 버드나무 가지를 뜯어 호드기를 만들어 불며 놀았다. 초파일에는 소녀들은 봉숭아꽃을 따다가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였다. 어른들은 절에 있는 탑을 돌면서 소원성취를 빌었다. 단오에는 정통단오제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정해진 강릉단오제와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 제123호 법성포 단오제가 있다. 그네타기, 씨름, 창포놀이 등 다양한 경험을 한다. 유두에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함을 씻어내는 유두연이 있다. 물맞이는 부스럼을 낮게 하는 건강한 피부를 가진다고 믿었다. 추석에는 씨

136) 조완목 저 정주득 펴냄, 우리민족의 놀이문화, 정신세계사, 4, 2006.

137) 한호철, 세시풍속 이야기, 지식과교양, 87, 2016.

름, 소싸움, 투호놀이, 줄다리기 등이 있다.

세시풍속에 드러난 놀이문화 콘텐츠는 절기별로 설, 대보름, 삼짚날, 초파일, 단오, 유두, 추석 등 7절기의 놀이문화 체험교육콘텐츠를 제시하였다.

<표 IV-4> 지(智)의 놀이문화

교육일	절기	놀이명	체험교육 콘텐츠
음 1월1일	설	웃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설놀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 1월15일	대보름	연날리기, 널뛰기	설~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놀이
음 3월3일	삼짚날	풀각시놀이, 호드기	봄의 소리, 봄의 놀이
음 4월8일	초파일	탑돌이, 봉숭아 물들이기	복을 빌어요
음 5월5일	단오	그네타기, 창포물에머리감기	단오의 놀이
음 6월15일	유두	활쏘기, 유두연	유두날엔 활쏘기
음 8월15일	추석	농악, 투호놀이	한가위만 같아라

4) 인(仁)의 예술문화

인(仁)의 예술문화에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희노애락을 담아 노래부르고, 춤추고, 소망하고 애원하던 예술혼을 실은 예술을 통하여 사랑과 만물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인(仁)을 담았으며, 절기마다 부르는 노랫가락이 정겹고 아름다우며 시를 통하여 기쁨과 슬픔의 정서를 길러냈고, 자연과의 조화를 완성시켜 놓았다<표 IV-5 >. 새해 첫날에 부르는 우리 설 노래로부터 시작하여 선달 그믐날 밤에 읊는 시로 완성된다. 대보름에는 사물놀이와 농악을 배우고, 함께 참여하여 한국의 리듬과 장단을 익힌다. 삼짚날에는 시와 노래를 읊고, 단오에는 민요를 배우며 한국인의 정서를 익힌다. 칠석에는 견우와 직녀의 사랑노래와 시를 배우며, 추석세시로 강강술래 노래를 부르며 가사를 바꿔 노랫말을 지어본다. 이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창의성과 시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어질고 지혜로운 성품을 배운다. 한국문화의 예술성과 창의성을 통

하여 과거와 현재의 조화, 지역과 세계의 조화,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균형감 있게 끊임없는 상호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민속예술은 세계로 향한 존재의 미학을 꽃피울 것이다. 이에 예술문화의 콘텐츠에는 7절기의 체험교육콘텐츠를 제시하였다.

<표 IV-5> 인(仁)의 예술문화

교육일	절기	예술명	체험교육 콘텐츠
음 1월1일	설	설날노래	설날 노래
음 1월15일	대보름	사물놀이 배우기	뽕과리, 장구, 징, 북 배우기
음 3월3일	삼짇날	삼짇날 노래	노래를 배워요
음 5월5일	단오	그네타령	민요를 배워요
음 7월7일	칠석	견우와 직녀의 노래	슬픈 사랑의 시
음 8월15일	추석	강강술래 노래	강강술래 노래 배워요
음 그믐	섣달	시<섣달그믐날 밤>	섣달그믐 밤 시를 배워요

5) 신(信)의 축제문화

신(信)의 축제문화에는 학생들은 축제를 통하여 자신을 찾고, 문화를 섭렵하며, 소통하고 교류한다. 축제속에는 대동단결 공동체의식과 협동의 태도를 축제 속에서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진실하고 타인에게도 진실과 관용을 베푸는 도덕성의 표현인 신(信)을 배우며 문화에 대한 시야와 안목을 높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생활행위를 배우게 될 것이다<표 IV-6 >.

축제문화 콘텐츠로는 설날의 연날리기, 정월 대보름의 달맞이, 햇불싸움, 초파일의 연등행사, 단오의 씨름과 봉산탈춤, 추석의 강강술래 등을 구성하였으며, 전국 축제행사에 참관하여 한국인과 함께 문화를 공유하는 수업 외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표 IV-6 > 신(信)의 축제문화

교육일	절기	축제명	체험교육 콘텐츠
음 1월1일	설	연날리기	소원빌어요. 연 만들어 날리기

음 1월15일	대보름	달맞이, 햇불싸움	달맞이 날 놀이
음 4월8일	초파일	연등행사	대동놀이, 연등놀이
음 5월5일	단오	봉산탈춤, 씨름	씨름, 봉산탈춤
음 7월7일	칠석	칠성제	칠성제, 오작교 축제
음 8월15일	추석	강강술래,소싸움	강강술래 함께 해요.

3.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의 사계절(四季節)

콘텐츠의 내용에는 세시의례, 음식, 놀이, 예술, 축제 등 다섯 분류로 나누어 체험위주의 교육콘텐츠를 만들었다<표 IV-7>. 이 콘텐츠 속에 한국인의 오덕(五德)을 담았으며, 의례체험에서는 시기별로 “제”를 올리며 조상 숭배와 효를 통하여 예(禮)를 배우고, 음식체험에서는 제철음식으로 조화와 공존의 노력을 하는 의(義)를, 선인들의 생활 속에서 즐기롭게 창조하고 계승해 온 어려운 역경의 해학적 놀이 문화 속에 지혜(智)를, 우리 조상들의 삶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담아 노래 부르고, 춤추고, 소망하고 애원하던 예술혼을 실은 예술을 통하여 사랑과 만물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인(仁)을, 대동단결 공동체의식과 협동의 태도를 축제 속에서 발견하고, 서로 진실과 관용을 베푸는 신(信)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계절별 세시풍속 체험교육콘텐츠는 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절기별 내용은 통합교육안을 만들어 표로 제시하였다. 세부 교육안은 부록편에 수록하였다.

<표 IV-7 > 콘텐츠 분류에 따른 계절별 교육계획안

계절	절기 명절	콘텐츠 분류				
		의례(禮)	음식(義)	놀이(智)	예술(仁)	축제(信)
봄	설	차례, 세배,세장	떡국	팽이치기 제기차기	설날노래	연날리기
	대보름		오곡밥 묵은나물	웃놀이 지신밟기	사물놀이 배우기	달맞이 햇불싸움

	삼진날		진달래 화전	풀각시 놀이 호드기놀이	노래배우기	
	한식	성묘,차례				
여름	초파일		비빔밥	탑돌이		연등행사
	단오		수리취떡 망개떡	창포물에 머리감기, 그네타기	노래배우기	봉산탈춤 천하장사 씨름
	유두		수단, 전병 규아상	유두연 활쏘기		
가을	칠석		밀국수 밀전병		견우와직녀 시	칠성제
	추석	성묘 차례	송편 차례상	농악, 윷놀이, 널뛰기 그네뛰기	강강술래 노래배우기	강강술래 소싸움
겨울	상달		김장하기	다레, 다식	한국 차문화	각국의 파티
	동지		동지팔죽			
	섣달	그믐차례	떡국(만두)		시<섣달그믐날 밤>	

1) 봄 세시풍속문화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내용을 계절별 세시풍속으로 구성하였으며, 봄 풍속으로는 설과 정월대보름, 삼진날, 한식세시가 들어 있으며, 설 콘텐츠에는 세시의례, 음식, 놀이, 예술, 축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통합교육안을 제시하였고, 대보름 콘텐츠에는 음식, 놀이, 예술, 축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통합교육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삼진날 콘텐츠에는 음식, 놀이, 예술문화 체험 통합교육안을 제시하였으며, 한식에는 의례문화를 제시하였다. 총 13편의 콘텐츠 모형이 제시되었다<표 IV-8 >.

<표 IV-8 > 봄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내용

세시		콘텐츠	풍속
봄	설	① 의례	차례 지내기, 세장(설빔), 세배, 세찬, 세주
		② 음식	떡국, 만둣국
		③ 놀이	제기차기, 팽이돌리기, 윷놀이

		④ 예술	설날노래
		⑤ 축제	연날리기, 널뛰기
	대보름	① 음식	오곡밥, 묵은 나물, 부럼깨기
		② 놀이	연날리기, 쥐불놀이, 지신밟기
		③ 예술	달맞이 노래
		④ 축제	달맞이, 줄다리기, 햇불싸움
	삼짇날	① 음식	진달래 화전, 화면
		② 놀이	풀각시 놀이, 화류 놀이
		③ 예술	시 (삼짇날 무렵)
	한식(寒食)	① 의례	산소돌보기, 벌초하기

(1) 설

설의 의미와 유래를 알고 의례, 음식, 놀이, 예술, 축제체험의 통합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IV-9>.

설날의 체험교육콘텐츠 내용으로는 설날의 차례지내기, 설빔, 세배, 떡국 먹기, 놀이로는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 윷놀이, 설날 노래부르기, 연만들기, 연날리기, 널뛰기 등을 체험 한다.

<표 IV-9 > 설.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교육 명	즐거운 설날		
교육 목표	설의 의미와 유래를 알 수 있다		
교육 일시	1월 중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1시)		
교육 프로그램 명	콘텐츠	학습내용	교육일시
설	의례	차례, 세배(절 하기, 한복 바르게 입기)	1주차
	음식	떡국 만들기	2주차
	놀이	팽이차기, 제기차기, 윷놀이	3주차
	예술	설날 노래배우기	4주차
	축제	연날리기	
우리 설날과 다른나라 설 알기	각국의 새해맞이 문화알기		

설은 한 해의 처음 맞이하는 날로서 설빔을 차려 입고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부모님께서는 세배를 하는 의례의식이 있으며 가족

들이 함께 예를 행하며 서로에게 덕담을 해 주시는 모습을 학생들도 함께 체험한다. 떡국을 먹으며 나이 한 살 더 먹는 의미를 가진다. 놀이로는 제기차기, 팽이치기, 윷놀이를 하며 국가별, 조별 서로 팀을 나눠서 견주는 놀이도 흥미롭다. 조원들이 함께 연을 만들어 밖에 나가 연을 날려본다. 방패를 감았다 풀었다 하며 바람의 방향에 맞추어 연을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도록 하는 요령을 배운다. 연을 날리며 묵은 액도 날리고 새 기운을 맞이한다.

(2) 대보름

달을 경외하는 우리 민족에게 새해 첫 번째 뜨는 대보름달의 의미가 매우 크다.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먹으며, 사물놀이를 배우고, 지신밟기 구경도 한다. 나쁜 운을 날려 버리는 액막이연을 만들어 날린다. 췌불싸움 구경하러 가고, 달맞이에서 일 년 무탈 소원을 빈다.

<표 IV-10 > 대보름.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교육 명	즐거운 대보름		
교육 목적	대보름의 의미를 알고 한국의 사물놀이를 할 수 있다.		
교육 일시	2월 중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1시)		
교육 프로그램 명	콘텐츠	학습내용	교육일시
대보름	음식	오곡밥, 묵은나물	1주차
	놀이	숫대깍기, 액막이연 만들기	2주차
	예술	사물놀이 배우기, 지신밟기,	3주차
	축제	달맞이, 췌불싸움	4주차
각국의 대보름 알기	다른 나라의 대보름맞이 문화알기		

전통사회의 농가에서는 정월을 농한기라 하여 농사철 중 가장 한가한 때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제의(祭儀)와 점괘(占卦), 놀이 등으로 새 기운을 얻어 농사 준비를 하였던 시기이다¹³⁸⁾. 음식으로는 찹쌀밥에 씨 말린 대추,

138) 한호철, 세시풍속 이야기, 지식과교양, 2016.

감떡, 찢 밤, 잣을 섞은 다음 다시 꿀과 기름, 간장으로 조리한 약밥이 있으며, 흰쌀밥을 하지 않고 오곡밥을 짓고, 각종 나물을 무쳐 먹었다. 백(百)집에 나누어 먹는 것이 좋다고도 하여 ‘백가반(百家飯)’이라고도 하였다.¹³⁹⁾

학생들이 오곡밥을 짓고, 묵은 나물 무치기를 통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순응하는 한식의 건강에 대하여 지혜를 배울 것이다. 솟대깎기, 액막이연 만들기, 사물놀이(뿃과리, 장구, 북, 징)를 배우며 한국의 장단을 익힌다.

지방 문화원에서 열리고 있는 정월 보름의 축제에 참가하여 지신밟기를 통해 농사의 풍운을 빌고 뗏다리밟기, 달맞이 놀이를 통해 보름달이 가지는 가득찬 기운과 풍요를 소원하고 빈다.

(3) 삼진날

꽃샘바람이 시샘을 해도 봄은 눈 하나 꿈쩍도 안한다. 삼진날은 맛있게 장을 담그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한다. 삼진날에는 봄 날씨가 화창해 들로 나가서 진달래 화전을 만들어 먹고, 풀을 뜯어 풀각시도 만들고, 호드기도 만들어 풀피리를 붙여 자연과 놀이를 한다.

<표 IV-11 > 삼진날.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교육 명	봄놀이 가자.		
교육 목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음식과 놀이와 예술을 즐길 수 있다.		
교육 일시	3월 중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1시)		
교육 프로그램 명	콘텐츠	학습내용	교육일시
삼진날	음식	진달래 화전 만들기	1주차
	놀이	풀각시 놀이, 호드기 놀이	2주차
	예술	시 배우기<삼진날 무렵>	3주차
각국의 봄맞이	다른나라의 봄맞이 문화알기 (각국 발표하기)		4주차

삼진날 진달래화전을 먹는 화전놀이 풍습은 신라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

139) 윤숙자·강재희, 아름다운 세시음식 이야기, 질시루, 37, 2012.

측된다. 봄별이 따사로운 음력 3월에 산과 들로 나가 진달래꽃을 따다 화전놀이를 해본다. ‘화전(花煎)’을 주제로 가사를 지어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부르기도 한다. 각시풀을 뜯어 머리채를 만든 후, 나뭇가지에 묶어 풀각시 놀이를 하며 스토리를 만들어 즉석에서 연극도 해본다.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호드기를 만들어 누가 소리가 잘나는지 내기를 하기도 한다. 삼진날 체험교육은 자연에서 즐기면서 즉석에서 시와 노래와 가사를 만들고 연극으로 표현하는 종합예술의 멋과 맛을 즐기고, 자국의 봄놀이에 대해서도 발표하여 문화를 함께 공유한다.

(4) 한식 (寒食)

한식(寒食)을 맞아 가족이 함께 조상의 묘에 제를 올리고, 벌초를 한다. 성묘를 하면서 지내는 제사를 묘사라고 한다. 이 날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다는 뜻으로 전날 만들어놓았던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는 중국 진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왔다.¹⁴⁰⁾

<표 IV-12 > 한식.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교육명	조상을 위한 성묘와 가족을 위한 기도		
교육 목표	성묘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교육 일시	4월 중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1시)		
교육 프로그램 명	콘텐츠	학습내용	교육일시
한식	의례	성묘하기, 차례 지내기	1주차
각국의 한식	다른 나라의 한식 문화알기 (각국 발표하기)		

한국에는 4월이 되면 조상님의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하고 성묘를 지낸다.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성묘라고 한다. 이 날은 산소에 흙을 덮거나 석물을 하는 등 손을 대도 탈이 없는 날에 속한다. 공원묘지를 직접 방문하여 벌초하

140) 한호철, 세시풍속 이야기, 지식과 교양, 198, 2016.

고 성묘지내는 모습을 체험한다. 한국의 장례문화에 관한 내용으로 연결하여 전통장례문화와 현재의 장례문화, 미래의 장례문화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참여하여 토론하고 대화를 이끌어낸다. 자국의 장례문화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발표한다.

2) 여름 세시풍속문화

여름 세시풍속 연구로는 초파일, 단오, 유두가 있으며, 초파일 콘텐츠로는 음식, 놀이, 축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통합교육안을 제시하였다. 절에서 다 함께 먹는 음식체험과 다함께 하는 탐돌이, 연등행사 체험에서 한국인의 공동체의식을 느끼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단오 콘텐츠로는 음식, 놀이, 예술, 축제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통합교육안을 제시하였다. 자연을 즐기며 소박함과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인의 지혜로운 성품을 단오 활동을 통하여 느끼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유두 콘텐츠로는 음식과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통합교육안을 제시하였으며, 총 9편의 콘텐츠 모형이 제시되었다<표 IV-13 >.

<표 IV-13 > 여름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내용

세시		콘텐츠	풍 속
여름	초파일	① 음식	비빔밥, 증편, 김밥
		② 놀이	탐돌이, 방생
		③ 축제	연등절, 템플스테이
	단오	① 음식	망개떡, 수리취떡
		② 놀이	그네타기, 창포물에 머리감기, 단오선 만들기
		③ 예술	그네타령
		④ 축제	씨름, 봉산탈춤
	유두	① 음식	유두면, 전병, 규아상
		② 놀이	활쏘기, 유두연

(1) 초파일

초파일의 유래는 고려시대의 팔관회, 연등회가 조선시대에 와서는 사라지고, 다만 4월 8일 즉 사월초파일로 행해졌으며, 이는 곧 우리의 명절이 국가적이고 종교적인 것이기도 함을 말한다<표 IV-14>.

초파일에는 절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반을 대접하며 탑돌이와 연등행사를 한다. 비빔밥은 화합과 융합의 음식이라고 한다. 밥과 반찬이 한 그릇에 어우러져 한 그릇으로도 충분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비빔밥은 1800년대 말 조리서인 [시의전서(是議全書)] 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궁중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를 한데 섞어 만든 밥이라 하여 ‘골동반(骨董飯)’이라고도 하였다.

학생들이 가까운 절을 방문하여 초파일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소반도 먹고, 탑돌이와 연등행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사찰에서 행동의 주의할 점을 배운다.

법당에 들어설 때에는 일반 신도들은 건물의 좌우에 난 문을 이용하여야 하며, 불상을 바라보며 중앙에 앉는 것도 피해야 한다. 절에서의 복장은 너무 화려해서도 안 된다. 이는 사찰의 스님들이 속세를 잊고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들을 자극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사찰에 가서 향을 피울 때에도 기존에 붙여져 있는 촛불을 이용하거나 새로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면 된다. 그리고 불은 입으로 훑하고 불어서 끄면 안 되며, 그냥 좌우로 흔들어서 끈 후 향을 쫓아야 된다. 예불을 드릴 때는 더욱 조심하여 소란스럽게 해서도 안 되며, 특히 북을 친다든지 뛰어들다든지 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표 IV-14 > 초파일.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교육명	불교행사		
교육 목표	초파일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교육 일시	4월 중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1시)		
교육 프로그램 명	콘텐츠	학습내용	교육일시
초파일	음식	비빔밥, 김밥	2주차

	놀이	탐돌이	3주차
	축제	연등행사	4주차
각국의 초과일	다른나라의 초과일 문화알기 (각국 발표하기)		

(2) 단오

1년 중 만물이 살아나려는 기운이 가장 왕성한 날이며, 여름향기 그득한 날이다.

한국의 단오에는 수리취떡을 만들어 먹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기도 한다. 냇가에 나가서 창포를 뜯어다가 따뜻한 물에 창포를 삶아 내고, 그 물을 식혀서 머리를 감으면 일 년 내내 부스럼이 없어진다고 한다. 그네타기, 봉산탈춤 배우기 등 한다.

<표 IV-15 > 단오.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교육명	단오야 놀자		
교육 목표	단오의 유래와 의미를 알 수 있다		
교육 일시	5월 중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1시)		
교육 프로그램 명	콘텐츠	학습내용	교육일시
단오	음식	수리취떡, 망개떡	1주차
	놀이	그네타기, 창포물에 머리감기	2주차
	예술	그네타령 배우기	3주차
	축제	봉산탈춤, 천하장사 씨름대회	4주차
각국의 오월의 놀이	다른나라 오월의 문화알기 (각국 발표하기)		

수리취 나물과 쑥을 구분할 수 있으며, 수리취 나물로 떡을 만들어 바퀴모양의 무늬로 도장을 찍는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부스럼이 없어진다는 옛이야기도 들려준다. 그네타기 체험을 통하여 그네에 대한 노랫말도 만들고 시도 써 본다. 한국의 민요 그네타령을 배우며 한국의 장단을 익힌다. 봉산탈춤을 배우고 모두 발표를 해본다. 자국의 오월에는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여러나라의 문화를 공유하며 익힌다.

(3) 유두

유두라는 말은 원래 ‘동류두목욕(東流頭沐浴)’에서 비롯된 말이다. 유두일에 맑은 개울에 찾아가서 목욕을 하거나 머리를 감으면 푸른빛이 돌아 참신한 데서 하루 동안 즐겼다는 것이다.¹⁴¹⁾

음식체험으로는 편수 만들기, 전병 만들기를 하며 유두날의 의미에 대하여 알게한다. 유두에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가에 가서 머리를 감으면 부스럼이 없어지고, 피부가 깨끗해진다고 하여 유두연을 체험한다. 네모난 편수와 전병도 만들기 체험을 한다. 양궁장에 가서 활쏘기 체험을 직접 해보며 세계를 제패한 한국인의 양궁솜씨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표 IV-16 > 유두.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교육명	유두 놀이		
교육 목표	유두의 유래를 알 수 있다.		
교육 일시	6월 중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1시)		
교육 프로그램 명	콘텐츠	학습내용	교육일시
유두	음식	편수, 수단, 전병 만들기	1주차
	놀이	유두연, 활쏘기 체험	2주차
각국의 유월의 놀이	다른나라 유월의 문화알기 (각국 발표하기)		

활쏘기는 군대에서 항상 긴장하고 무장함으로써 유사시에 활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어 항시 훈련을 하였다고 한다. 유비무환의 한 끈을 놓지 않으려는 지혜가 있다.

3) 가을 세시풍속문화

가을 세시풍속 연구로는 칠석, 추석, 중앙절이 있으며, 칠석에는 음식, 예술,

141) 한호철, 세시풍속이야기, 지식과 교양, 241, 2016.

축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통합교육안을 제시하였고, 추석에는 의례, 음식, 놀이, 예술, 축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통합교육안을 제시하였으며, 총 8편의 콘텐츠 모형이 제시되었다<표 IV-17 >.

<표 IV-17 > 가을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내용

세시		콘텐츠	풍 속
가을	칠석	① 음식	밀국수, 밀전병
		② 예술	견우와 직녀의 노래
		③ 축제	칠성제(오작교)
	추석	① 의례	벌초, 차례(햇곡식으로 만든 술, 햅쌀밥), 성묘, 세장
		② 음식	송편, 차례음식
		③ 놀이	씨름, 농악, 널뛰기, 그네뛰기, 줄다리기, 윷놀이
		④ 예술	강강수월래, 그네뛰기
		⑤ 축제	강강수월래, 소싸움

(1) 칠석

칠석의 의미와 유래를 알고 음식, 예술, 축제체험의 통합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IV-18 >.

칠석 통합교육안 으로는 견우와 직녀의 사랑 이야기가 주제이다. 동다송 문화원에서는 기다림과 만남의 환희 공연을 칠석문화축제로 무대에 올리고 칠성제를 드리고 있다. 통합교육안에는 견우와 직녀의 사랑 노래와 시 배우기, 밀전병과 증편 만들기의 체험을 제시하였다.

<표 IV-18 > 칠석,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교육명	견우와 직녀의 사랑이야기		
교육 목표	칠석제의 유래를 알 수 있다.		
교육 일시	7월 중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1시)		
교육 프로그램 명	콘텐츠	학습내용	교육일시
칠석	음식	밀전병, 증편 만들기	1주차
	예술	견우와 직녀- 애니메이션 만들기	2주차
	축제	칠성제	3주차
오작교	사랑 이야기 - 시와 글짓기, 연극 만들기		발표

(2) 추석

한가위 또는 가배일(嘉俳日)·중추절(仲秋節)등으로 불리는 우리의 2대 명절이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듯이 풍요로운 추석을 일컫는다. 추석의 의미와 유래를 알고 의례, 음식, 놀이, 예술, 축제체험의 통합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IV-19 >. 추석의 체험교육콘텐츠 내용으로는 차례지내기, 성묘하기, 절하기, 송편 만들기, 놀이로는 농악 구경하기, 널뛰기, 윷놀이, 강강술래 노래배우기, 강강술래 가사 짓기, 소싸움 축제 참관하기가 있다.

<표 IV-19 > 추석,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교육명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교육 목표	추석의 의미와 유래를 알 수 있다		
교육 일시	9월 중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1시)		
교육 프로그램 명	콘텐츠	학습내용	교육일시
추석	의례	성묘, 차례	1주차
	음식	송편만들기, 차례상 차리기, 절하기	2주차
	놀이	농악, 윷놀이, 널뛰기, 그네뛰기	3주차
	예술	강강술래 노래 배우기	4주차
	축제	강강술래, 소싸움	
비교문화	자국의 추석은 어떠한가요?		

한가위에는 그 해에 갓 나온 햅쌀로 밥을 지어 조상님께 먼저 차례를 지내고, 고운 옷을 입고, 정성스럽게 조상님과 부모님께 절을 한다. 한국 가정의례를 체험한다. 자국의 추석과 비교문화를 통하여 문화를 공유한다.

음식체험으로는 차례상은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햇곡식과 햇과일로 차례상을 차린다. 한 해 동안 농사지은 수확물을 가장 먼저 조상들께 바치려는 마음이 담겨있다. 갓 수확한 햅쌀로 술을 빚고, 송편을 만들어 차례를 지냈다. 추석에 빚은 송편을 ‘오려 송편’이라고 한다. ‘오려’란 울벼를 뜻하는 말로 그 해 추수한 햅쌀을 가루 내어 빚은 떡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¹⁴²⁾

예술체험 내용에는 강강술래의 의미와 유래를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불러 본다. 지방마다 다른 곡조가 있음을 알게 한다. 더불어 경상도 민요 쾌지나 칭칭나네를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배워본다. 즉석에서 가사를 지어 부르기도 하고, 자국의 행사를 떠 올려 가사를 만들어 노래 불러본다. 한국의 장단을 익히고, 부녀자들의 흥미로운 놀이를 익힌다.

강강술래의 본고장 진도에 가서 직접축제에 참여한다. 지난시간에 배운 강강술래 가사를 익혀 함께 참여하여 단결된 축제속에 공동체의 신명남을 배운다. 추석의 세시풍속 농악놀이는 지역문화원에서도 세시축제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V-2] 추석의 농악놀이

4) 겨울 세시풍속문화

<표 IV-20 > 겨울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내용

세시		콘텐츠	풍속
겨울	상달	① 음식	김장하기, 붉은팥 시루떡
		② 놀이	다례, 다식만들기
		③ 예술	다례와 테이블 셋팅

142) 윤숙자·강재희, 아름다운 세시음식 이야기, 질시루, 162, 2012.

		④ 축제	각국의 찻자리 파티
	동지	① 음식	팥죽
	선달	① 의례	그믐차례, 묵은 세배, 수세
		② 음식	완자탕, 떡국, 각종 나물
		③ 놀이	널뛰기 놀이
		④ 예술	널뛰기 노래

겨울 풍속으로는 상달, 동짓달, 선달이 있다. 상달 콘텐츠에는 음식, 놀이, 예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통합교육안을 제시하였고, 동지 콘텐츠에는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달에는 의례, 음식, 놀이, 예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통합교육안을 제시하였다. 총 9편의 콘텐츠 모형이 제시되었다<표 IV-20>.

(1) 상달

상달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햇곡식을 거두게 된 것이 오직 하느님과 선조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감사하는 뜻을 전하는 때이다. 상달고사에는 햇곡식으로 술과 떡을 만들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 이리하여 상달은 풍성한 수확을 바탕으로 신과 인간이 함께 만나서 즐기는 달이 된 것이다.¹⁴³⁾

상달의 체험교육콘텐츠 내용<표 IV-21 >으로는 월동준비를 하는 한국에서는 김장하기를 한다. 한식음식의 가장 기초적인 칼질 배우기, 다양한 썰기 배우기(동그랗게 썰기, 채썰기, 어슷썰기, 크게 다지기, 잘게 다지기 등), 발효음식에 필요한 젓갈류 배우기, 각 조별 김장담그기를 하여 익히고 발효시키는 방법도 배운다. 익힌 김치는 매 수업 때마다 찬으로 내서 잘게 썰어 조금씩 시식 하도록 한다. 2주째는 한국의 차문화를 배운다. 성신 다법을 활용한 다례를 배우고, 오색다식과 꽃감 다식, 대추 다식등 자연에서 거뒀던 재료를

143) 한호철, 세시풍속 이야기, 지식과 교양, 322, 2016.

활용하여 다양한 다식을 만든다. 다식은 겨우내 차가운 곳에 잘 보관하며, 손님이 오실 때 차를 나누며 다식을 활용한다. 손님을 대접하는 다례와 다식 상차림을 배우고, 연말 행사를 치를 때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찻자리와 다화의 기본구조를 배운다. 또한 자국의 차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체험하며 문화를 공유한다.

음식체험으로는 김치는 채소를 구하기 힘든 겨울철을 위해 채소를 염장했던 데서 생겨난 음식으로, 우리 식탁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음식으로 단순한 발효 채소가 아니라 젓갈류와 갖은 양념, 향신료 등이 조화된 조상의 슬기가 담긴 건강식이다.

놀이체험으로는 다식 만들기를 체험한다. 다식에는 오색가루(흰쌀 가루, 노란 콩가루, 호박 가루, 붉은 팥가루, 청태 콩가루, 녹차 가루, 검정깨 가루 등)에 꿀을 버무려서 다식판에 넣어 찍어내면 달고 맛있는 다식이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꽃감속에 호두를 넣어서 가로로 썰어내면 꽃감속에 꽃이 핀 듯 예쁜 다식이 탄생한다. 대추씨를 발라내고 그 속에 큰 잣을 박아넣고 꿀에 조려내면 맛있고 예쁜 다식이 탄생한다. 다식을 차가운 곳에 보관하면 겨우내 찻자리에 유용한 다식이 된다.

<표 IV-21 > 상달,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교육명	한국음식 배우기		
교육 목표	상달의 유래를 알 수 있다		
교육 일시	10월 중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1시)		
교육 프로그램 명	콘텐츠	학습내용	교육일시
상달	음식	김장하기	1주차
	놀이	한국의 차문화 다례, 다식만들기	2주차
	예술	다례와 다화 꽃이 기본구조 배우기	3주차
	축제	한국의 찻자리 셋팅하기	4주차
자국의 문화이야기	자국의 가을 문화 알기 (자국의 월동 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주변을 정리하고 감사를 나누는 달이라고 하여 가장 행복한 달이라고 한다. 추수도 끝나고 월동을 준비하기 전, 가장 아름다운 계절, 행복한 계절이 상달이다.



안동 탈 페스티벌

천안 국제 흥타령

출처: 이정진 외, 한국 축제 50선, 대왕사, 2013.

【그림 IV-3】 한국의 축제

(2) 동지

동지에는 팔죽을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하여 새알이라고 하였다. 땅 밑에 저민 양(陽)의 기운을 맞이하는 달이다.

<표 IV-22 > 동지, 체험교육콘텐츠 교육안

교육명	동지 팔죽		
교육 목표	동지 팔죽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교육 일시	11월 중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1시)		
교육 프로그램 명	콘텐츠	학습내용	교육일시
동짓달	음식	동지 팔죽	1주차
새 알	나이 수만큼 새알 먹어요.		

민가에서는 붉은 팥으로 죽을 쑤고 찹쌀로 빚은 용심이를 넣어 끓인 팔죽을 먹었는데, 팥의 색이 붉어 역귀(疫鬼)를 쫓는 의미가 담겨있다. 동짓날에는 팔죽을 쑤어 대문이나 벽 등에 뿌리는데 이는 잡귀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지방에 따라서는 팔죽을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였는데, 제사에 올리는 팔죽은 새알심을 넣지 않는다고 한다.

음식체험으로 팔죽 만들기 체험을 한다. 찹쌀에 쌀을 조금 섞어서 소금과 설탕을 조금 간하여 불린다. 팥은 두 컵 정도로 물을 넉넉하게 부어 한 시간

정도 폭 끓인다. 팔이 익혀질 동안 찹쌀가루를 익반죽해서 새알심을 만든다. 멥쌀을 조금 섞으면 물러지지 않는다. 팔이 익었을 때 팔을 갈고 걸러낸다. 불린 찹쌀과 새알을 넣어 중불에서 익힌다. 개인 취향에 따라 소금이나 설탕을 넣어서 먹는다.

(3) 선달

선달의 위미를 알고 의례, 음식, 예술체험의 통합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IV-23 >. 선달의 체험교육콘텐츠 내용으로는 그믐의 묵은세배, 만둣국 만들기, 제야의 종 체험을 한다.

<표 IV-23 > 선달, 체험교육콘텐츠 통합교육안

교육명	각국의 제야 행사 나누기		
교육 목표	선달그믐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교육 일시	12월 중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1시)		
교육 프로그램 명	콘텐츠	학습내용	교육일시
선달	의례	묵은 세배	1주차
	음식	떡국, 만둣국 만들기	2주차
	예술	제야의 종	3주차
각국의 문화이야기	다른나라의 제야 문화 알기		

음력으로 선달을 납월(臘月)이라 하고, 그믐날 저녁을 제석(除夕)이라 부르는데 세제(歲除), 세진(歲盡), 제야(除夜)라고도 한다. 이는 지나가는 해의 마지막 밤을 제거한다는 의미이며, 한 해를 종결(終結)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이다. 묵은세배는 가까운 친척들을 찾아 그동안의 감사와 새로 맞을 해에 대하여 축원을 드리는 풍속이다.

모든 부정을 털어낸다는 의미에서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며, 집안 구석 구석 불을 밝혀 뜬눈으로 지새운다. 제야에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하였다.¹⁴⁴⁾

의례체험으로 일 년 동안 함께 체험해 온 학생들은 한국인의 제야의 묵은 세배를 기억하며 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다. 또한 각국의 제야의 인사를 배운다. 음식체험으로는 설달그믐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날이라고 하여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아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떡국(만둣국)을 끓여서 세찬을 먹기도 한다. 올해에 만들어 먹고 남은 음식은 해를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모두 비벼서 먹는다고 하여 골동반(骨董飯)이라고 한다. 만두를 빗어 떡국에 넣고, 골동반을 만들어먹는 체험을 한다.

예술체험으로는 설달그믐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한해를 마감하는 소감문을 발표하고,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콘텐츠를 통하여 한국사회와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얼마나 느끼고 이해했는지 이야기 나누기를 하며 일정을 마무리 한다.

본 연구에서 오덕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다섯 가지 체험교육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세시풍속문화 속에 담겨있는 주기전승적인 한국인의 삶과 역사를 이해하며,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려는 조화와 공존의 원리를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문화적인 관용과, 자신과 타인에 대해 진실할 때 화해와 대동의 보편적 윤리를 이해할 것이다.

144) 한호철, 세시풍속 이야기, 지식과 교양, 347, 2016.

V. 외국인 유학생대상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

교육콘텐츠의 가치

1. 한국인의 삶의 의미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문화체험교육에 임하는 동기와 목적, 그에 상응하는 교육방법과 교재, 교육형식이 어떻게 제공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제기에서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러한 논지에서 선행연구인 박노자(2000)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에서 “학술적 차원의 한국문화 교육은 ‘한반도’라는 한국문화의 무대와 ‘한국인’이라는 한국문화의 주인공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문화의 인류학적·세계사적 전후관계와 다양하고 발전되어 가는 한국문화 사실 자체의 연구를 동시에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¹⁴⁵⁾”는 거시적 교육접근의 관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한국문화의 복잡다단한 모습을 절대로 단순화·축소시키지 않고, 다양함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¹⁴⁶⁾고 하는 바에 근거해 볼 때, 본 논문에서 제시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의 제시는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었다.

최근 잇달아 출간되고 있는 문화교육 교재들은 언어교육의 일부로만 다루어져서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인의 정신문화의 한 분야인 세시풍속문화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존의 원리를 통해 상생(相生)하는 한국인의 삶과 역사에 대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145) 박노자, 한국문화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 11(2), 63-88, 2000.

146) 박노자, 위의 연구, 70, 2000.

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세시풍속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세시풍속은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에는 신라의 사시제, 백제의 제천과 오신제, 고구려의 동맹 등이 왕실에서 주도한 국가의례를 찾아 볼 수 있었으며, 부여의 영고, 동예의 무천, 가야의 수로왕에 대한 제사 등이 제천의식과 시기별 제 의례가 특징적이다. 고려시대에는 초기의 불교적 의례는 왕실 중심으로, 중기의 유교적 의례는 지배층 중심으로, 그리고 후기의 성리학적 의례는 민간에서 세시풍속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조선전기에는 주자 『가례(家例)』를 수용하고, 유교적 의례와 태음력중심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태양력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변화가 나타났으며, 후기의 중요한 세시일은 오늘날과 흡사한 특징을 보였다. 근대에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 세시풍속도 변화, 전통 세시풍속 쇠퇴, 설과 추석의 명절유지 등으로 세시풍속의 변화와 변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는 공식적으로는 양력사용을 권장했지만, 일반대중은 태양태음력을 공통으로 사용했고, 도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전통 세시와 충돌 등이 나타났다. 현대에는 새로운 노동 리듬에 따른 시간인식이 출현하고 있고, 현대인의 생활리듬을 규정한 일주일 등으로 세시풍속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시풍속의 삶에 대한 의미로는 계절적인 변화의 시기마다 국가적인 “제”의례와 세시명절에는 조상에 대한 제례를 각 가정마다 지내는 것, 세시풍속 음식으로 설에는 떡국, 대보름에는 �곡밥과 나물, 삼짇날에는 화전, 단오에는 찬 음식, 유두에 먹는 유두전, 밀전병, 추석이 되면 햇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 차례음식과 제철음식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려는 조화와 나눔의 기원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세시 때마다 환경적인 어려움을 해학적인 놀이문화로 승화시키는 지혜로움이 있으며,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삶 속에서 예술로 승화시키며, 사랑

과 만물평등의 가치를 실천하고, 축제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과 협동을 통하여 삶의 지혜이자 어울림의 문화를 이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에 대해 순응하는 의존적 삶의 지혜와 절기에 맞는 음식과 놀이를 통하여 일상과는 구분되는 생활의 활력과 생존력을 도모하며, 축제적인 행사를 통하여 구복과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고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재생적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인의 일상을 담은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한국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서로 다름으로서 차별화되는 이문화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과정이며, 한국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한국인의 도덕성과 윤리적인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이해하게 할 것이다.

2. 문화예술로서의 의미

‘가장 고유한 민족문화가 가장 세계적인 문화가 될 수 있다.’¹⁴⁷⁾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민족문화를 개발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해서 문화적인 소통을 한다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한다. 이는 유학생들로 하여금 타문화와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한국 문화를 세계적인 안목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진상범(2013)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은 ‘한의 정서, 신바람, 흥의 정서, 정이 많은 점, 효의 정신, 충의 정신, 희생의 정신, 유불선 그리

147) 김형민·진상범,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방안, 전북대학교 국제문화교류연구소 심포지움,(3), 4-11, 2011.

스도교가 상생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존의 문화, 오방색의 조화를 이루는 우주와 상통하는 색채가 있는 멋과 맛을 지닌 문화¹⁴⁸⁾’라고 언급하였다.

과거 한국은 농경사회였기에 모든 세시행사는 농사일에 맞춰서 행해졌다. 농사일을 시작할 때 노동요를 부르며 노랫가락에 맞춰 모내기를 하는 모습이나, 그네를 타며 부르는 노랫소리, 사물놀이를 통해 흥을 돋우고 함께 장단을 맞추며 신바람을 불러넣는 행위 등은 한국인의 문화예술적인 가치와 한국적인 고유한 정서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문화예술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바는 서구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나 음악은 인간사나 만물의 이치를 은유적으로 노래함으로써 삶의 지혜를 일깨우고 사람의性情(性情)을 순화시켜준다.¹⁴⁹⁾ 공자는 “시를 통해 정감을 고취하고 음악을 통해 덕을 성취한다.”고 했으며, “시는 정감을 고취시켜주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다.¹⁵⁰⁾”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세시풍속에서 시를 비롯하여 노래와 예술적 활동의 가치는 사랑과 만물평등의 가치를 실천하고, 문화예술로서 문화적인 소통과 삶의 긴장과 이완이라는 리듬 속에서 관용과 사랑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소통을 바탕으로 문화 간 이해는 인간의 감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인간친화적인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기존의 사고방식에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시각을 탐색하고 교류하는 것이다.

한국세시풍속문화 속에는 자연과 인간성 회복의 결합을 포괄하는 조화와 공존의 원리가 담겨있다. 한국세시풍속문화에는 제(祭)의례(儀禮)를 통하여 의존적으로 승화시키는 것과, 음식을 통하여 조화로운 모습과 자연의 섭리

148) 진상범, 한국문화의 세계와의 소통의 전략, 전북대학교 국제문화교류연구소 심포지움, (6), 4-11, 2013.

149) 정학섭, 심미의식과 도덕적 지향의 통합-퇴계의 수양여가론-, 사회사상과 문화, 23, 39-72, 2011.

150) 『論語』, 「泰伯」, 興於詩 成於樂. 『論語』, 「陽貨」, 詩可以興 可以觀

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시와 음악으로 승화시키고, 놀이와 축제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과 대동단결의 의식을 승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한국문화예술의 심미적인 가치를 통하여 한국세시풍속 문화 속에 각각의 고유한 문화의 융합과 이를 통한 소통과 교류의 가치를 알게 된다.

3. 한국생활문화의 확산의 의미

세시풍속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이다.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인 의례, 음식, 놀이, 예술, 축제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의 오덕(五德)을 느끼고 체험하며, 한국인의 윤리적 의식, 공동체적 삶, 예술을 통한 심미적인 정서를 수용하게 된다면, 유학생들이 자국에 돌아가 한국생활문화를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확산시켜줄 것이라 사료된다.

한국 세시풍속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생활문화를 담고 있는 세시풍속의 통합적 특성을 살려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콘텐츠자료를 활용하여, 체험교육콘텐츠를 제안하였다. 이는 산업적 지원 사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국가적으로도 매우 유의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예 사상, 한국의 음식, 한국인의 해학적 놀이, 한국인의 예술성, 한국의 축제 등을 살린 문화체험교육콘텐츠는 교육뿐만 아니라 식문화 산업, 관광업, 공연 산업, 방송 산업 등과 접목되어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한국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였으나, 이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외국인 대상에 따른 한국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한국문화를 세계에 좀 더 널리 보급 전파시키고, 타 문화권의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함으로써, 그들과의 상호교류

와 협력을 도모하는 데에 뜻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안목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문화강국으로의 성장을 향한 새로운 발전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재외 동포 및 재외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외국대학의 한국어학과 및 세종학당에서도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를 활용하고, 각 국가별 한국문화연구소 및 한국문화체험 전시관을 설립하여 현지 재외동포와 2세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면, 세계로 향한 한국생활문화 확산은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론 및 제언

교육부는 각 국가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글로벌 인재 유치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의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전략과 더불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요 증대를 위한 대안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재외 동포 및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목적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유학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추어 각 대학들은 국제어학원을 개설하여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문화된 한국문화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하다.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프로그램은 대학 이외에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 중에도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는 차별화, 특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의 삶을 반영한 계절의례인 세시풍속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제공된다면, 그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생활문화에 적응해 나아가는 데에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대상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에 관하여 한국인의 일상을 담은 세시풍속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콘텐츠의 필요성을 제고하며, 문헌연구와 실태파악을 토대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한국문화교육 실시에 필요한 실용적인 체험교육콘텐츠를 구안하였다.

한국세시풍속 관련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역사별·계절별·월별 특징을 분류하여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세시풍속의 이론적 고찰과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세시풍속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시대에

필요한 세시풍속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전통의 한 부분임을 재논의 하고자 이론적 고찰을 제시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시풍속은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에는 신라의 사시제, 백제의 제천과 오신제, 고구려의 동맹 등이 왕실에서 주도한 국가의례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부여의 영고, 동예의 무천, 가야의 수로왕에 대한 제사 등이 제천의식과 시기별 제 의례가 특징적이다. 고려시대에는 초기의 불교적 의례는 왕실 중심으로, 중기의 유교적 의례는 지배층 중심으로, 그리고 후기의 성리학적 의례는 민간에서 세시풍속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조선전기에는 주자 『가례(家例)』를 수용하고, 유교적 의례와 태음력중심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태양력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변화가 나타났으며, 후기의 중요한 세시일은 오늘날과 흡사한 특징을 보였다. 근대에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 세시풍속도 변화, 전통 세시풍속 쇠퇴, 설과 추석의 명절유지 등으로 세시풍속의 변화와 변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는 공식적으로는 양력사용을 권장했지만, 일반대중은 태양태음력을 공통으로 사용했고, 도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전통 세시와 충돌 등이 나타났다. 현대에는 새로운 노동 리듬에 따른 시간인식이 출현하고 있고, 현대인의 생활리듬을 규정한 일주일 등으로 세시풍속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계절별·월별 분류의 특징은 전통사회의 농경생활에서 나타난 계절별 24절기를 중심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분류하여 월별로 나뉘보면 설, 대보름, 삼짇날, 한식, 초파일, 단오, 유두, 칠석, 추석, 상달, 동짓달, 선달 절기로 분류하여 세시풍속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에 대해 순응하는 의존적 삶의 지혜와 절기에 맞는 음식과 놀이를 통하여 일상과는 구분되는 생활의 활력과 생존력을 도모한다. 축제적인 행사를 통하여 구복과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며,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재생적인 의미를 가지는 특징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관련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 서울 소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외국인대상 한국민속문화 체험현황, 한국관광공사 K-Style Hub 한국문화전시관, 각 지역문화원의 축제행사 등에서 실태를 분석하여 제시 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서울소재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제어학원의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은 전무한 실정으로 한국 생활문화를 언어의 일부로만 다루어질 뿐 체험교육은 고궁이나 박물관을 방문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한국민속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었으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차별화된 단계별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다. 한국관광공사 K-Style Hub 한국문화전시관에서 실행한 내용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식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세시풍속 음식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각 지역문화원의 축제행사도 세시풍속에 맞추어 축제를 만들어 지역홍보를 하고 있었으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이를 종합 분석하여 추출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구안하여 제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계절 분류에서 봄 세시풍속문화는 설, 대보름, 삼짱날, 한식이 있으며, 여름 세시풍속문화는 초파일, 단오, 유두가 있다. 가을 세시풍속문화는 칠석, 추석이 있으며, 겨울 세시풍속문화는 상달, 동지, 선달 등으로 하였다.

둘째, 콘텐츠별 분류에서 의례, 음식, 놀이, 예술, 축제 등 다섯 분류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다섯 분류는 오덕(五德)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전문가의 검증은 거쳐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오덕(五德)의 의미는 의례에는 예(禮), 음식에는 의(義), 놀이에는 지(智), 예술에는 인(仁), 축제에는 신(信) 등으로 하였다.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콘텐츠에서 나타난 오덕(五德)의 의미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인의 역사성, 시대성, 사상성과 삶의 전반적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에 오덕에서 예(禮)는 의례로 국가적인 “제” 의례와 조상숭배의 효(孝)의 의미, 의(義)는 음식으로 제철음식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조화와 공존의 의미, 지(智)는 놀이로 어려움을 해학적 놀이문화로 승화시키는 지혜의 의미, 인(仁)은 예술로서 희노애락(喜怒哀樂)의 노래와 춤을 수용한 사랑과 평등적 가치의 의미, 신(信)은 축제로서 공동체 의식을 깨닫고 협동하는 삶의 어울림의 의미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적 관습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사회의 적응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일상 속에 담겨있는 사상과 역사성을 습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를 제시하여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향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구안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인의 삶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과 문화예술로의 소통에 대한 의미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가 세계로 향하고, 한국생활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한국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는 일회성의 자료가 아니라 1년을 주기로 반복하며, 같은 패턴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한국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적합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둘째, 한국세시풍속체험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문화교육을 전담할 기관의 설립과 전문가 육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대상 체험교육콘텐츠는 각 국가별

언어로 된 영상콘텐츠로의 개발이 시급하다.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영상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세시풍속문화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어 교사가 한국문화를 가르치고자 한다면, 우선 한국문화교육 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길 기대한다. 다섯째, 체험교육을 진행할 때 한국어로 진행하여도 외국인 학습자의 모국어로 변환되는 기술적인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체험교육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여섯째, 정부와 학교와 민간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세시풍속문화 체험콘텐츠를 보급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후속연구로는 한국어 교사들을 위해서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에 필요한 교육연수와 교재개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대상 세시풍속 체험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개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시풍속체험교육의 효과성 분석과 세시풍속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 국내체류 외국인의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요구도 연구, 세시풍속 체험 교육이 한국문화의 이해도와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전개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原典>

『三國史記』

『三國遺事』

『洌陽歲時記』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高麗史節要』

『高麗圖經』

『三國志』

『後漢書』

『歲時風謠』

『農家月令歌』

<單行本>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편, 민속원, 200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조선전기 문집편, 민속원, 200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조선후기 문집편, 민속원 200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근대신문·잡지편, 민속원, 200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현대신문편, 민속원, 2007.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남도 세시풍속,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 세시풍속,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충청남도 세시풍속,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충청북도 세시풍속,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남도 세시풍속,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경기도 세시풍속,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도 세시풍속,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강원도 세시풍속,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총괄편 세시풍속, 2006.
국립민속박물관, 각 지방별 세시풍속, 2006.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 I,II,III,IV, 2003~ 2007.
강정원, 근대 신문·잡지 세시풍속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2006.
고영진, 한국중세예사상 연구, 한길사, 1995.
구준모 외, 산업의 발전방안, 서울, 을유문화사, 97, 2000.
김만태, 세시풍속의 기반변화와 현대적 적용, 세시풍속의 역사와 변화, 민속원, 2010.
김명자, 도시생활과 세시풍속. 한국민속학, 2005.
_____, 근대화에 따른 세시풍속의 변동과정, 세시풍속의역사와변화, 민속원, 2010.
김영태, 옛마을 세시·절기 풍속, 한국학술정보(주), 2009.
김중섭,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201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세시풍속의 지속과 변용, 채륜, 2014.
민속학회 편, 「한국민속학의 이해」, 서울, 문학아카데미, 108, 1994.
박경용, 별 총총 초가 총총, 서문당, 1980.
박종민, 고려왕실의 세시의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5), 1998.
안혜숙·주영애·김인옥, 한국 가정의 의례와 세시풍속, 신정, 2002.

유만공 저 임기중 역,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 69. 1993.

윤숙자·강재희, 아름다운 세시음식이야기, 질시루, 2012.

이광렬, 우리나라 세시풍속, 청연, 2005.

이수자. 조선 후기 세시풍속의 양상과 특징,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원, 2014.

이영혜, 아름다운 한국음식 세계를 향해 날다, 디자인 하우스, 2012.

이정진·김창수·김정환, 한국축제 50선, 대왕사, 2013.

이종철, 우리민속도감, 예림당, 2009.

임기중,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 1993.

장주근, 한국의 세시풍속, 민속원, 2013.

장현석, 충북민속예술, 일광, 2010.

정구복 외.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세시풍속 연구, 국립민속박물관, 2003.

정구복·주영하. 고려시대 세시풍속 연구. 국립민속박물관. 2003.

정승모, 한국의 세시풍속, 학고재, 2001.

조완묵, 우리민족의 놀이문화, 정신세계사, 2006.

최기영, 한국중앙 일간지에 나타난 한국현대세시풍속, 2006.

한시준. 세시풍속의 지속과 변용,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4.

한호철, 세시풍속이야기, 지식과 교양, 2016.

현경실·강향숙, 전통음악으로의 초대, 성신여대출판부, 2016.

허용호 외, 경기의 민속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15.

홍석모 저, 정승모 역서, 동국세시기, 풀빛, 2009.

홍양자, 전래동요를 찾아서, 우리교육, 2002.

< 학위논문 >

- 강순예,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적 활용,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강향숙, 전통음악과 예절 중심의 유아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곽영진, 전통놀이의 도덕 교육적 함의,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유선, 세시풍속을 활용한 박물관 가족교육프로그램 발전 방안 연구-국립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나정선,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육 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당 흥, 한·중 세시풍속 비교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민진영,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학업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박영자, 유아전통문화교육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박소원, 세시풍속을 이용한 국악교육 지도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신원기, 견우직녀 설화의 문학교육적 가치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신윤미, 세시풍속 주제 중심의 교과·통합적 창의인성교육 교수-학습법 연구,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유백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초교양과목 개설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유은목,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세시풍속 관련 음악의 지도방안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윤나라,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지역 주부들의 세시음식에 대한 인지도와 실천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윤상철, 현장학습을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법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윤애숙, 주한미군의 문화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윤옥경, 외국인 교수를 위한 한국어·한국문화교육 요구분석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이가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학 교재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이경란, 재북미 한인청소년을 위한 한국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이규찬, 외국인의 한국 전통생활문화 체험 관광에 관한 인식 연구, 가톨릭대학교 글로벌 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이명자,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경험 및 요구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이연수, 외국인대상 박물관 교육의 총체적 접근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이연정, 한식의 세계화요인이 외국인의 한국 이미지, 태도 및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이윤수, 연등축제의 역사와 문화콘텐츠적 특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이진하, 세시풍속과 연계한 유아국악교육의 지도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정남조,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 요인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최명림, 한국 세시풍속의 변화와 문화콘텐츠화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학회지>

- 강승혜, 한국어 교재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8권,251-286, 2003.
- 강현화·홍혜란, 한국문화교육 항목 선정에 관한 기초연구 -선행연구, 교재, 기관 현황조사 자료의 비교를 통하여,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36권, 1-35, 2011.
- _____,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요구조사-문화교재 개발을 위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31, 99-128, 2006.
- 고재욱, 유가윤리의 특성과 오상의 현대적 의의, 태동고전연구, (35), 147-171, 2015.
- 권오경, 한·중 열두달 세시풍속 민요 비교, 한국민요학, (32), 7-54, 2011.
- 권의웅, 문화콘텐츠 비즈니스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8집, 301, 2004.
- 권 호, 세시풍속에 나타난 세시풍속의 서술방식과 수용양상, 인문과학연구, (23), 5-25, 2009.
- 김경미, 문화교육의 도구로서의 세시풍속과 축제 그리고 대동놀이,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1차, 전국학술대회, 333-345, 2016.
- 김만태, 세시풍속의 기반변화와 현대적 변용 비교민속학 (38),317-349, 2009.
- _____ 현대 세시풍속에서 민속놀이의 존재 양상과 향후전망, 비교민속학, (42), 333-362, 2010.
- 김명자, 도시생활과 세시풍속, 한국민속학 41, 17-49, 2005.
- _____ 세시풍속의 기능과 그 변화, 민속연구, (2), 233-255, 1992.
- _____ 마을사회에서 세시풍속의 조사와 연구, 민속연구, (11), 101-132, 2002.
- _____ 세시풍속의 전승과 현대화 방안 연구, 민속연구, (13), 145-166, 2004.
- 김아현, 지역문화와 연계한 세시풍속의 교수·학습 방안, 국악교육연구, 제9권 1호, 95~126, 2015.
- 김영아, 전통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의 학습모형개발 방안 연구, 인문콘텐츠, (19), 585-600, 2010.

- 김영호, 세시풍속과 가정의례에 나타난 한국인의 신앙, 세계의 신학, (27), 162-186, 1995.
- 김월덕, 세시기를 통해서 본 세시풍속의 재구성 과 재탄생, 민속학연구, (24), 151-167, 2009.
- 김유경, 액션러닝기반 패션문화콘텐츠 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모형연구, -문화콘텐츠 및 전통문화콘텐츠 문헌연구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22), 57-66, 2015.
- 김유신, 융합 연구와 교육에서 “융합”의 의미,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1, 381-396, 2015.
- 김형민, 진상범,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방안, 전북대학교 국제문화교류연구소 심포지움, (3), 4-11, 2011.
- 김중섭,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이중언어학, (27), 59-85, 2008.
- 김효경, 조선왕실의 세시풍속의 맥락이, 역사민속학, (33), 187-233, 2010.
- _____, 조선전기 속절의 명칭과 인식체계. 역사민속학. (43), 85. 2013.
- 박경하, 한국의 문화원형콘텐츠 개발 현황과 과제, 인문콘텐츠, (3), 7-24, 2004.
- 박경환, 기록유산을 활용한 전통문화콘텐츠 개발, 국학연구, (12), 313-341, 2008.
- 박노자, 한국문화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 11(2), 63-88, 2000.
- 박재아·주영애, 외국인 학생의 한국생활문화교육 실태연구, 유라시아연구, 10(1), 433-454, 2013.
- 박종민, 고려왕실의 세시의례, 민속학연구, (10), 195-217, 1998.
- 박은정, 조선후기 세시풍속 그리고 일상, 동아시아 문화연구, (58), 13-41, 2014.
- 배재원, 세종 한국어 기반 문화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58), 33-58, 2015.
- 서영수·장두식, 서양인이 본 한국의 세시풍속, 사학지, (46), 269-293, 2013.
- 서영실·최배영, 외국인 한국어학습자들의 한국 다도교육 요구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차학회지, 13(1), 57-78, 2007.
- 설동훈, 다문화사회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다문화 사회에서의 삶과 문화, 이중언어학회, 9~21, 2009.
- 신광철,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방향, 인문콘텐츠(9), 351-370, 2007.
- 양민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국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 중국제지역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9(4), 101-126, 2006.
- _____, 세시풍속을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이해 교육방안 연구, 세계
문화비교연구, (44), 85-137, 2013.
- _____, 한국·몽골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교육 콘텐츠
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 (52), 5-34, 2015.
- 양지선, 외국인 학습자에 따른 한국문화 인식조사, 한국언어문화학회, 9(1), 129-152, 2012.
- 염원희, 크리스마스 도입과 세시풍속 과정에 대한 연구, 국학연구, (22), 299-330, 2013.
- 요위위, 한·중 단오절 세시풍속 비교연구, 동양예학, 223-257, 2012.
- 원신애, 한국의 전통문화콘텐츠와 기독교 문화콘텐츠의 조우를 통한 기독교교
육 문화콘텐츠의 개발 가능성에 관한 연구, 종교교육학 연구, (47),83-114, 2015.
- 유은목,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세시풍속 관련 음악의 지도방안 연구, 한국
국악교육연구학회, 141-141, 2011.
- 윤 영, 국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재 개발방향, 인류사회과학, 5-27,2016.
- 이경진·이재호·전정식·성민창, 전통축제 체험프로그램 유형 및 특성에 관
한 연구, 한국지역사회 생활과학회, 88-88, 2011.
- 이민영, 문화콘텐츠의 소구유형에 관한 연구, 디자인과학연구, 49, 2004.
- 이성숙, 세시풍속 및 세시음식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18(3), 179-194, 2005.
- 이승연·김희선·이동은, 국외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연구
-세종학당 체험중심문화프로그램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이중언어학 (59), 197-220, 2015.
- 이은숙,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험 중심의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고찰, 국어문학,(48), 331-353, 2010.
- 이정민, 세시풍속을 이용한 문화수업 모형 개발, -문화수업자료 개발의 원리
를 바탕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3(2), 155-179, 2007.
- 이정진, 축제이벤트 콘텐츠 개발, 인문콘텐츠, (9), 371-407, 2007.
- 이창식, 단오 문화유산과 문학콘텐츠, 강원민속학, (21), 443-472, 2007.
- 이하나, 한국 문묘제례의 전통의례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어

- 문학 국제학술포럼, (31), 237-277, 2015.
- 이혜주·최은희, 문화융합에 의한 창조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연구, 4(3), 1-30, 2013.
- 임재해, 세시풍속의 변화와 공휴일 정책의 문제, 비교민속학, (10), 21-50, 1993.
- _____, 동아시아 세 나라의 세시풍속 비교와 문화적 전통, 인문연구, (28), 359-408, 1998.
- 장미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의 생활문화교육콘텐츠 개발 및 구성, 담
화.인지언어학회, 고려대학교, 59-79, 2009.
- 장재천, 세시풍속의 사회교육적 의의, 한국사상과문화, (47), 187-214, 2009.
- 장정룡, 세시풍속과 콘텐츠, 강원민속학, (21), 473-490, 2007.
- 전경욱, 연등회의 전통과 현대축제화의 방안, 남도민속연구, (17), 329-379, 2008.
- 정구복·주영하, 고려시대 세시풍속연구, 국립민속박물관, 32, 2003.
- 정승모, 세시관련 기록들을 통해 본 조선시기 조선풍속의 변화, 역사민속학, (13), 49-69, 2001.
- 정연수, 태백시의 단오 세시풍속 연구, 한국민속학, (21), 235-275, 2007.
- 정학섭, 심미의식과 도덕적 지향의 통합-퇴계의 수양여가론-, 사회사상과 문
화, (23), 39-72, 2011.
- 조성산, 18세기후반~ 19세기 중반 조선 세시풍속서 서술의 특징과 의의, 조
선시대사학보, (60), 183-221, 2012.
- 주영애. 세시풍속과 데이시리즈 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비교, 충남대학교 유
학연구소, 유학연구 (32), 380-381, 2015.
- 진상범, 한국문화의 세계와의 소통의 전략, 전북대학교 국제문화교류연구소
심포지움, (6), 4-11, 2013.
- 천진기, 세시풍속의 미래전설, 한국문화교육, (7), 265-282, 2003.
- _____, 박물관의 조사연구, 한국박물관 학회, (14), 203-225, 2008.
- 최인하, 한·중·일 세시풍속의 비교연구를 위한 제언, 비교민속학, (12), 27-46, 2008.
- 황성모, 예절과 풍속의 현대적 의미, 정신문화연구, (11), 6-18, 1982.
- 황인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 분석, 한국언어문화학, 13(1), 163~ 183, 2016

Brooks, N. The analysis of foreign and familiar cultures. In Lafayette, R. (ed.). The Culture Revolution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Skokie, Illinois: National Textbook Company. 1975 .

Byram, M., & Fleming, M. Introduction, In Language learning in intercultural perspective; approaches through drama and ethnography, ed. by Byram, M. and Fleming, 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웹사이트>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http://www.folkency.nfm.go.kr/sesi/>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검색 및 발취: <http://www.nfm.go.kr/> accessed.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검색 및 발취: <http://www.museum.go.kr/> accessed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검색 및 발취: <http://www.gogung.go.kr/> accessed.

국제교육진흥원 - <http://www.interedu.go.kr>

국제 한국어 교육 학회 - www.iakle.org

교육인적자원부 - www.moe.go.kr

기독교 차문화 협회 - <http://www.missiontea.org>

대전광역시 중구청, <http://www.djjunggu.go.kr>

문화관광부 - www.mct.go.kr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검색 및 발취: <http://www.museum.seoul.kr/> accessed.

외교통상부 - www.mofat.go.kr

이중 언어학회 - kbs.hongik.ac.kr

재외동포재단 - www.okf.or.kr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culturecontent.com>

한국 국제 교류 재단 - www.kofo.or.kr/korean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www.kice.re.kr

한국어세계화재단 포털사이트 - www.webkorean.org
한국학술연구재단- <http://nrf.re.kr/>
한국학 중앙연구원- <http://www.aks.ac.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 <http://www.grandculture.net>
한민족 네트워크 - www.hanminjok.net
한식재단 검색 및 발취: hansik.org/kr
건국대학교(建国大学) 언어교육원 <http://kfli.konkuk.ac.kr/Foreign/intro.htm>
경희대학교(庆熙大学) 국제교육원 <http://www.iie.ac.kr/>
고려대학교(高丽大学) 한국어문화교육센터 <https://klc.korea.ac.kr/index.do>
국민대학교 국제교육원 <http://iie.kookmin.ac.kr/>
명지전문대학 한국어교육센터 <http://mjklec.mjc.ac.kr/mjcIndex.do>
서울대학교(首尔大学) 언어교육원 <https://lei.snu.ac.kr/site/kr/lei/main/main.jsp>
숙명여자대학교 어학원 <http://www.lingua-express.com/intro.jsp>
숭실대학교 어학교육원 <http://language.ssu.ac.kr/>
연세대학교(延世大学) 한국어학당 <http://www.yskli.com/>
이화여자대학교(梨花女子大学) 언어교육원
<http://elc.ewha.ac.kr/LangCenter/kor/index.jsp>
중앙대학교(中央大学) 한국어교육원 <https://korean.cau.ac.kr/index.php>
충신대학교 한국어학당 http://csklsi.ac.kr/hboard_gn/
한양대학교(汉阳大学) 국제어학원 <http://www.hyili.hanyang.ac.kr/>
홍익대학교(弘益大学) 국제언어교육원 <http://huniv.hongik.ac.kr/~korean/>
한국외국어대학교(外国语大学) 한국어문화교육원 <http://korean.ac.kr/>
숙명여자대학교 한국문화교류원 홈페이지 <http://kci.sookmyung.ac.kr>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홈페이지 <http://www.yskli.com/languages/korean>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홈페이지 <http://gsis.ewha.ac.kr/korean>

ABSTRACT

Research Study on Korean Seasonal Customs Culture Experience Education Contents for International Students

Lee, Ri-kyung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tudy is to increase the necessity of educational contents related to life culture of Korean Seasonal Customs , including daily life of Korean, applied to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Also, this research study is to develop practical experience based on educational contents which are required to be more effective Korean culture education based on reference research and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s.

Despite of demand on Korean culture experience education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e culture experience education programs were only includ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Thus, it l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experience education contents on Korean Seasonal Customs Culture based on seasonal customs of Korean's life.

The study on Korean Seasonal Customs is analyzed based on earlier

document research and advanced research which was classified by historical background as well as characteristics of each generation, season and months. Also, there were four places which were researched with reality on Korean Seasonal Customs . 1st, International Language Institutes of Universities in Seoul where cultural and experiential education program were provided was researched. 2nd, National Folk Museum with Traditional Culture Experience program for foreigners was researched. 3rd, K-Style Hub and its exhibition hall under Korea Tourism Organization was researched. At last, festivals of regional cultural center which held experience education was researched. All four were thoroughly studied and it led to develop the experience education contents for Korean Seasonal Customs Culture Educ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so, the results of my research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classified into four seasons. Each of four seasons has special experience on education contents; for spring season, Sul, Dae Bo Reum, Sam Jit Nal and Hansik. for summer season, Cho Pa Il, Dan Oh, Yu Do. for fall season, Chil Suk and Chuseok. for winter season, Sang Dal, Dong Jit Dal, Sut Dal.

Second, there are five categories under experience education contents based on Seasonal Customs; culture of ceremony, cuisine, recreation, art and festival. These five categories were approved by the experts in terms of the traditional five meanings and then reconstructed all to apply for the education program. From "Oduk" definition, all five values were reconstructed to be categorized. For ceremony, "Yea", for cuisine

“Eui”, for recreation “Gee”, for art “ In” and for festival “Sin”.

“O-duk”, five values, is to explain and make international students to understand Koreans’ history, generation, ideology and general culture of life through Korean Seasonal Customs Culture Experience Education Contents. Thu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tudy on “O-duk”, five values, are followed as follows.

1st, “Yea” is the ceremony experience that could find national ideal “Je” on each seasonal change and “Hyo”, respectful ceremony for ancestors in family.

2nd, “Eui” can be found as the origin of peaceful harmony and co-existence while sharing seasonal food as adaptation of the nature.

3rd, “Gee” insists such wisdom of transcendentalizing the environmental difficulty of ancestors’ life which was succeeded for years to a humorous recreation culture.

4th, “In” is the art experience that can be found from the realization of love and equality of the ancestors. When the ancestors live under the natural environment, they sing and dance with mixed emotions to be adapted and from this life experience, they can realize the love and equality of the world.

5th, “Sin” is to learn the wisdom of life while realizing the community from festival experience of the village. Also, it can be applied to self life to be reviewed and transcendentalize to mingle culture.

Therefore, this research study can conclude meaningful value from analysis of Korean Seasonal Customs Culture Experience Education Content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t is profound study which can help

international students to understand Korean's life and history as well as let each other to communicate through culture and art. In this sense, the research study insists to believe that Korean Seasonal Customs Culture Experience Education Contents can prosper Korean life cultures towards the world.

부 록



외국인 유학생대상 한국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외국인 유학생대상 세시풍속문화 체험교육콘텐츠

계절	절기·명절	체험교육 콘텐츠	Page	계	
봄 (I)	설	1. 의례체험	1	5	13
		2. 음식체험	2		
		3. 놀이체험	3		
		4. 예술체험	4		
		5. 축제체험	5		
	대보름	6. 음식체험	6	4	
		7. 놀이체험	7		
		8. 예술체험	8		
		9. 축제체험	9		
	삼짇날	10. 음식체험	10	3	
		11. 놀이체험	11		
		12. 예술체험	12		
	한식	13. 의례체험	13	1	
여름 (II)	초파일	1. 음식체험	14	3	
		2. 놀이체험	15		
		3. 축제체험	16		
	단오	4. 음식체험	17	4	
		5. 놀이체험	18		
		6. 전통예술	19		
		7. 축제체험	20		
	유두	8. 음식체험	21	2	
		9. 놀이체험	22		
가을 (III)	칠석	1. 음식체험	23	3	
		2. 전통예술	24		
		3. 축제체험	26		
	추석	4. 의례체험	27	5	
		5. 음식체험	28		
		6. 놀이체험	29		
		7. 예술체험	30		
		8. 축제체험	32		
겨울 (IV)	상달	1. 음식체험	33	4	
		2. 놀이체험	34		
		3. 예술체험	35		
		4. 축제체험	36		
	동지	5. 음식체험	37	1	
		6. 의례체험	38		
	섣달	7. 음식체험	39	3	
		8. 예술체험	40		
합계				38	

① 설, 의례체험



<표 I-1> 설, 의례체험

학습 주제	“바닥에 앉아서 하는 인사를 아시나요?”	
학습 목표	한국 고유의 인사법과 절을 바르게 배워 행할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교사: 관련 영상물, 돛자리, 카펫트, 차례상(포토존) 학생: 남(한복, 쾌자, 갓, 테사혜) 여(한복, 땡기, 베시땡기, 속곳, 꽃신)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복을 보여주며 알고 있는지 질문한다. (이것은 어떤때에 입는 걸까요?) 1. 입어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다. 2. 한국의 명절과 한복에 대하여 귀중한 체험으로 여기도록 한다. ■ 한국의 설날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 1. 한국의 설날을 경험해 본 적 있는가? 2. 바닥에 앉아서 하는 인사를 아시나요? 	 <p>출처:성신여대전통문화콘텐츠전공</p>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1. 차례상의 의미와 유래 2. 세장(설빔): 한복입기 3. 세배: 절 배우기 	 <p>출처:한호절,세시풍속이야기</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복 바르게 입기 1. 남자 한복 입기: 갓~ 테사혜 용어 익히기 2. 여자 한복 입기: 속곳 입는 순서, 용어 ■ 절 배우기 1. 남자의 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절 2) 큰절 2. 여자의 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절 2) 큰절 3. 흉사시 절(조문 예절) 	 <p>출처:성신여대 전통문화콘텐츠전공</p>
정리 및 평가 (10분)	1. 한복 벗는법과 관리하는 방법 익힌다. 2. 좌식과 입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한국의 입식문화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설명과 실습을 한다.	

② 설, 음식체험




< 표 I-2 > 설, 음식체험

주제	떡국을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데요~~
학습목표	한국고유의 명절인 설의 의미와 음식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떡국 재료준비, 김치, 동치미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p>“ 쌀과 밀 이야기 ” - 한국의 농사 이야기</p> <p>■ 떡국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1. 한국의 설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2. 한국의 설날 음식을 먹어본 적 있는가?</p>	
이론 (45분)	<p>■ 학습내용</p> <p>1. 설날의 의미 2. 설날의 음식은? 떡국 3. 나이 한 살 더 먹는 떡국의 유래</p>	<p>출처:문화컨텐츠닷컴</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p>■ 떡국 만들기</p> <p>1. 떡국 국물을 만든다. 2. 가래떡을 잘게 썰어본다. 여러 가지 모양3. 고명을 만든다. 4. 떡국과 만두를 함께 떠서 고명을 올린다.</p> <p>■ 식사예절</p> <p>1. 감사한 마음으로 떡국을 먹는다. 2. 수저 사용법</p> <p>■ 차 우리기</p> <p>1. 세찬, 세주를 대신하여 차를 우린다. 2. 두명씩 짝을 지어 팽주와 손님 역할한다. 3.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차를 마신다.</p>	 <p>출처: 성신여대 전통문화콘텐츠전공</p>
정리 및 평가 (10분)	<p>· 식판 정리 · 그릇은 깨끗이 닦아서 그릇장에 원위치 한다.</p>	

③ 설, 놀이체험


< 표 I-3 > 설, 놀이체험

주제	놀이 하러가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학습목표	놀이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공동체 놀이체험	
학습자료 준비물	1. 팽이돌리기- 팽이, 채 2. 제기차기- 제기 3. 옷놀이- 옷, 말판, 갈개, 바둑알 2. 널빤지, 짚방석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p>■ 팽이, 제기, 옷 등을 올려놓고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흥미로운 반응들을 들어봅니다.</p> <p>1. 한국의 설날에는 어떤 놀이가 있을까? 2. 한국 설날의 놀이를 해봅시다.</p>	 <p>출처:국립민속박물관</p>
이론 (45분)	<p>■ 학습내용</p> <p>1. 제기차기를 배워줍니다. 2. 팽이 살려내는 방법 3. 옷놀이는 옷판을 설명합니다.</p>	 <p>출처:문화컨텐츠닷컴</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p>■ 놀이 연습</p> <p>1. 제기차기는 각자 연습하고 짝을 지어 편을 묶어서 시합을 합니다. 2. 팽이돌리기- 채로 팽이를 쳐서 팽이가 살아있게 합니다. 편을 짜서 교대로 팽이를 살려봅니다. 3. 옷놀이는 옷판을 설명하고 두 조로 나누어 시합을 붙입니다.</p> <p>1) 규정 짓기 2) 가위,바위,보 로 선두를 정한다. 3) 사이사이로 끼어 앉아 차례대로 옷 던지기 4) 뒤로 가는 옷가락을 만들어 그 표한 옷가락이 나오면 뒤로 한 눈금 가는 놀이도 한다.</p>	 <p>출처:문화컨텐츠닷컴</p>
정리 및 평가 (10분)	<p>1. 조 편성하여 놀이를 하면 서로의 힘을 합쳐서 상대방을 이기려 하기도 하고, 배려와 공동체의 힘을 배우기도 합니다. 2. 우리는 하나 되는 게임으로 친해집니다. 3. 놀이를 한 후에는 정리하여 모두 제 자리에 정돈 합니다.</p>	

④ 설, 예술체험

<표 I-4> 설, 예술체험




주제	설날 노래 배우기
학습목표	설의 의미와 유래를 알고 노래를 통하여 하나됨을 배운다.
학습자료 준비물	까치설날 우리설날 노래, 악곡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p>■ 설날노랫말 익히기</p> <p>1. 한국의 설날 노래, 까치설날 노래를 배우자. 2. 자국의 설날은 어떠한가?</p>	 설날.wma < 설날 > 1. 설날이다 설날이다 우리우리 설날이다 정월이라 좋아라 우리우리 명절이다 희망찬 새아침 때때옷 갈아입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족 모두모여 떡국 먹고 새배 하네 우리 우리 설날이다.
이론 (45분)	<p>■ 학습내용</p> <p>1. 까치설날 노래 익히기 2. 자국의 설날에 대하여 이야기하기</p>	2. 설날이다 설날이다 우리우리 설날이다 정월이라 좋아라 우리우리 명절이다 팽이치고 연 날리자 웃놀이에 널도 뛰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족 모두모여 웃 나와라 모 나라와 웃음꽃이 활짝 피네 출처:국립국악원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p>■ 까치설날, 우리설날 노래배우기</p> <p>“까치까치 설날은 어젯게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p> <p>3. 자국의 설날 놀이/ 노래 발표하기</p>	
정리 및 평가 (10분)	<p>· 한국과 자국의 설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비교문화적인 안목을 키운다.</p>	
비고		

⑤ 설, 축제체험




< 표 I-5 > 설, 축제체험

주제	연 날리러가자~~ (이것은 어떻게 하는걸까?)
학습목표	연 놀이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연 만들기- 가오리연, 방패연, 다양한 연 모양 만들기, 재료- 종이, 왕대, 연실, 얼레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재료등을 올려놓고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 흥미로운 반응들을 들어봅니다. 	 <p>용마연 출처:문화콘텐츠닷컴</p>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1. 모양마다 다른 연을 들고 각자가 느끼는 데로 이야기 하기 2. 본인이 원하는 연 만들기 1) 연만들기 2) 연날리기 	 <p>창작연 출처:문화콘텐츠닷컴</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만들기 1. 연 만들 재료를 준비한다. 2. 네모연, 가오리연, 탈연 등 취향에 맞춰서 만든다. 3. 만든 연을 운동장에서 날린다. ■ 놀이 연습 1. 연을 올려서 날려봅니다 - 연이 땅바닥에 자꾸 떨어져요 ^^ 2. 짝을 지어 앞사람은 방패를 들고 뛰고, 뒷사람은 연을 뒤에서 올려서 띄어 줍니다. 3. 연이 신나게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4. 학교 운동장 여러바퀴를 돌고돌며 신명나게 놀았습니다. 	 <p>의성 국제연날리기대회 출처:이정진 외, 한국축제50선,대왕사,2013.</p>
정리 및 평가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로 멀리 보내려고 방패로 연을 당겼다 풀었다 해봅니다. 2. 바람 방향을 잘 잡아야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3. 자유롭게~~~ 	

① 대보름, 음식체험

< 표 I-6 > 대보름, 음식체험

주제	즐거운 대보름	
학습목표	정월 대보름의 의미와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1. 오곡밥- 찹쌀, 차수수, 팥, 차조, 콩 2. 묵은 나물- 말린 시래기, 호박오가리, 말린 취나물, 고구마줄기 3. 양념, 조리기구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p>■ 대보름이 뭐예요? 이야기 나누기</p> <p>1. 한국의 대보름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2. 한국의 대보름 음식을 먹어본 적 있는가?</p>	 <p>출처:K-Style Hub</p>
이론 (45분)	<p>■ 학습내용</p> <p>1. 정월 대보름의 의미 2. 정월 대보름의 음식은? - 오곡밥, 묵은 나물 3. 백가반의 뜻? - 백 집에 나누어 먹는 것이 좋다. 라는 뜻.</p>	 <p>출처:문화컨텐츠닷컴</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p>■ 오곡밥</p> <p>1. 전기밥솥에 오곡을 넣어 밥을 짓는다.</p> <p>■ 묵은 나물</p> <p>1. 말린 시래기, 호박오가리, 말린 취나물, 고구마줄기는 손질 하여 양념하여 만든다.</p>	 <p>귀밝이 술 출처:윤숙자, 아름다운 세시 이야기</p>
정리 및 평가 (10분)	<p>· 오곡밥은 반드시 묵은 나물과 김과 함께 싸서 먹는데 이것을 복을 싸서 먹는다고 하여 '복쌈', '복리'라고도 한다. · 둘러 앉아 음식 나눠먹기</p>	
비고	자국의 대보름 날 행사에 대하여 이야기 해봅시다. - 사진 자료 모음	

② 대보름, 놀이체험







< 표 I -7> 대보름, 놀이체험

주제	대보름날엔 뭐하고 놀까?	
학습목표	놀이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공동체 놀이체험	
학습자료 준비물	1. 줄다리기- 새끼 줄, 붉은 깃발, 푸른 깃발(응원) 2. 널뛰기- 널빤지, 질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p>■ 대보름날엔 뭐하고 놀까?</p> <p>1. 한국의 대보름날에는 어떤 놀이가 있을까? 2. 한국의 대보름날 놀이 경험을 해 본적 있는가?</p>	
이론 (45분)	<p>■ 학습내용</p> <p>1. 줄다리기 방법- 조편성(남,녀 비율) 2. 널뛰기 1) 두 조로 나누어 차례대로 널 뛴다. 2) 여자들은 한복을 입고 널뛰기를 하면 한복치마가 펄럭이면서 아름답다.</p>	<p>웃놀이</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p>■ 줄다리기</p> <p>1. 두 조로 나누어 차례대로 줄 선다 2. 힘을 합치기 위하여 앞사람과 딱 붙어서 줄을 당긴다. (공동체 경험)</p> <p>■ 널뛰기</p> <p>1. 리듬을 맞춰서 널빤지위에서 뛰어 오르며 함께 즐기는 놀이 2. 널빤지 중앙에 심판 한사람이 올라타서 앉으면 더욱 재밌는 풍경이 생긴다.</p>	 <p>널뛰기</p> 
정리 및 평가 (10분)	<p>· 두 조로 나누어 줄다리기를 하면 서로의 힘을 합쳐서 상대방을 이기려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동체의 힘을 배웁니다.</p>	<p>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소장 (출처: 조홍윤, 『민족에 대한 기산의 지극한 관심』, 민속원, 2004)</p> <p>출처:문화컨텐츠닷컴</p>
비고		

③ 대보름, 예술체험




< 표 I - 8 > 대보름, 예술체험

주제	사물놀이를 배우자	
학습목표	사물놀이의 의미와 유래를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팽과리, 장구, 징, 북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정월대보름 놀이 배우기 1. 정월 대보름의 의미와 유래를 알자 	<사물놀이> 
이론(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1. 지신밟기의 유래와 의미 2. 사물놀이를 배우자 	팽과리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놀이 배우기 1. 팽과리 리듬 익히기 2. 장구 리듬익히기 3. 징 4. 북 - 합주하기	장구 
정리 및 평가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놀이 악보 	징  북 출처:국립국악원  출처:삼의향기 어울림마당

④ 대보름, 축제체험

< 표 I-9 > 대보름, 축제체험

주제	대보름 달에게 무어라고 말할까?	
학습목표	달맞이 놀이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대보름 달맞이 축제에 참관하러 가자.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보름날엔 달에게 무어라 말할까? - 흥미로운 반응들을 들어봅니다. 	 <p>제주 들불축제</p>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달맞이 노래 배우기 <p>‘저 달이 둥둥 산 너머 온다 앞산 위로 달맞이 가자 저 달이 둥둥 물 속에 잠겼네 뒷 강물 속에 달맞이 가자’¹⁵¹⁾</p> <p>‘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백혔더라 은도꾸로 짝어내고/ 금도꾸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지어/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천년만년 살고지고’¹⁵²⁾</p>	 <p>김제-햇불행진</p>
실습안내 및 실(50분)	달맞이 축제에 참여하기 달맞이 사물놀이 농악놀이	 <p>김제-벽골제</p> <p>출처:이경진 외, 한국축제 50선, 대왕사, 2013.</p>
정리 및 평가 (10분)	달맞이 놀이를 통하여 무엇을 느꼈을까? 이야기 나누기	




151) 홍양자, 『전래동요를 찾아서』 우리교육, 90, 2002.

152) 홍양자, 위의 책, 48.

① 삼진날, 음식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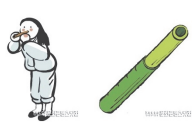
<표 I-10 > 삼진날, 음식체험

주제	봄 소풍가자~~	
학습목표	자연의 소중함을 알다.	
학습자료 준비물	1. 화전 만들기- 진달래꽃, 밀가루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p>■ 봄 소풍가서 뭘 만들어 먹을까? 이것은 무엇일까? (화전사진) 여러 이야기들을 듣는다.</p> <p>1. 삼진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p>	 <p>진달래화전 출처:문화콘텐츠닷컴</p>
이론 (45분)	<p>■ 학습내용</p> <p>1. 삼진날의 의미와 유래 2. 삼진날의 음식은? - 화전, 쭈떡, 쭈국</p>	 <p>쭈탕(애탕) 출처:K-Style Hub</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p>■ 화전 만들기</p> <p>1. 밀가루 풀을 만들어 전을 부친다. 2. 진달래 꽃 잎을 전위에 얹어 화전을 만든다. 3. 화전을 이쁘게 접시에 담아 사진으로 남긴다. 한 폭의 수채화같네.</p>	 <p>연근죽(기운 회복) 출처:한식재단<시화담></p>
정리 및 평가 (10분)	<p>· 풀밭에 나가서 화전을 만들며 자연과 하나되는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한다.</p>	
비고		

② 삼진날, 놀이체험


< 표 I -11> 삼진날, 놀이체험

주제	풀각시 놀이 하자~~	
학습목표	놀이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자연 친화적인 놀이체험	
학습자료 준비물	1. 풀각시 재료- 풀피리, 나무젓가락 2. 호드기 놀이- 버드나무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p>■ 풀각시. 호드기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은 무엇일까요? - 각국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흥미롭다.</p> <p>1. 삼진날의 어떤 놀이가 있을까?</p>	 <p>풀각시 놀이</p> <p>출처:문화컨텐츠닷컴</p>
이론 (45분)	<p>■ 학습내용</p> <p>1. 풀각시 놀이는 어떤 놀이일까? 2. 호드기 놀이는 무엇일까? 3. 우리 함께 만들어서 놀이를 해 볼까요?</p>	 <p>호드기놀이</p> <p>출처:문화컨텐츠닷컴</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p>■ 풀각시 만들기</p> <p>1. 풀피리를 나무젓가락에 둘둘 말아 각시 모양을 만든다. 2. 인형극처럼 스토리 만들어 대화하기 3. 호드기를 만들어 버들피리처럼 소리내어 보기 4. 본인이 한국의 피리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에 취한다.</p>	 <p>호드기놀이</p> <p>출처:문화컨텐츠닷컴</p>
정리 및 평가 (10분)	<p>· 풀각시(호드기) 놀이를 통해 자연과 하나되는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한다.</p>	
비고		

③ 삼진날, 예술체험

<표 I -12> 삼진날, 예술체험

주제	아름다운 시를 배우자~~
학습목표	삼진날의 의미와 유래를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삼진날 무렵> 박경용 시집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진날에 대한 놀이를 떠 올리며 시를 읊어보자. 	 <p>삼월삼진봄맞이-노래.wma <삼월삼진 봄맞이 ></p> <p>1. 애들아 애들아 삼월삼진 봄맞이 하자구나 강남 제비 봄소식을 전하려고 왔는데 연분홍 옷차림으로 환영하는 진달래꽃 얼씨구 좋구나 한데얼려 화전놀이 벌어보자</p> <p>2. 애들아 애들아 삼월삼진 봄맞이 하자구나 땀마다 나무마다 봄 입김에 앞순돈고 벌나비들 꽃밭에서 봄잔치가 한창인데 얼씨구 좋구나 한데얼려 각시놀음 펼쳐보자</p> <p>출처:국립국악원</p>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1. <삼진날 무렵> 시 배우기 2. 한글 익히기 3. 느낌으로 표현하기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진날 무렵> 시 읊기 꽃샘바람 제아무리 번덕 심술 부려도 등성이의 할미꽃 고개나 약간 숙게 할 뿐 양지 꽃 펼친 별자리 흩뜨리지는 못하지 호트러진 머리를 살레살레 내세울 뿐 제비 오는 길목 지켜 결눈질해 설레며 호드기 꿈을 그리어 물 오른 버들가지.¹⁵³⁾ 	
정리 및 평가(10분)	· 자국의 봄에 대한 시 읊어 보기	

153) 박경용, 삼진날 무렵, 셋강마을 숲동네, 84-85, 2011.

① 한식, 의례체험

< 표 I -13> 한식, 의례체험

주제	한식이 무엇인가요?
학습목표	한식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사진 및 현대의 장례문화 영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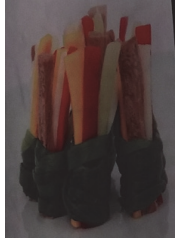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p>■ 한식이 무엇인가요? -상상하는 것을 듣는다.</p>	
이론 (45분)	<p>■ 학습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식의 유래에 대하여 설명한다. 2. 조상의 산소에서 벌초하는 것 성묘하는 것을 사진이나 영상을 통하여 보여준다.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p>■ 한국의 장례문화의 변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전에는 매장문화였으며, 조상 산소에서 벌초도 하고 성묘도 하였지만, 현대는 화장을 하므로 장례식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2. 자국의 장례문화는 어떠한가요? 3. 자국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어떻게 추억하는지 이야기 나누기한다. 	<p>벌초</p>  <p>띠풀</p> <p>출처:한호철, 세시풍속 이야기, 지식과교양, 2016.</p>
정리 및 평가 (10분)	서로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고 비교문화적인 요소들을 배운다.	

① 초파일, 음식체험

초파일에는 절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박한 음식을 대접한다. 그래서 소반이라고 한다.

< 표 II-1 > 초파일, 음식체험



주제	비빔밥은 어떻게 만들어요?	
학습목표	초파일의 음식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료 준비물	비빔밥 재료- 각종 채소류, 고추장 양념, 계란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빔밥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 외국인들의 상상력 발휘할 수 있도록 질문 <p>1. 초파일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p>	 <p>소반 출처:K-Style Hub</p>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1. 초파일의 의미와 유래 2. 초파일의 음식은? - 비빔밥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빔밥 만들기 1. 모든 야채는 다듬어서 채썰기 한다. 2. 볶거나, 데쳐서 양념을 준비한다. 3. 그릇에 골고루 이쁘게 담는다. 4. 고추장은 야채들 가운데에 얹는다. 5. 계란을 반숙하여 가운데에 올리고 고명을 올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국과 함께 먹으면 목 메이지 않는다. 	 <p>미나리강회 출처:K-Style Hub</p>
정리 및 평가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판에 음식차리기 (비빔밥, 무국, 수저) · 수저 사용방법 · 그릇은 깨끗이 닦아서 그릇장에 원위치 한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로 다른 비빔밥의 종류 · 절기별 재료가 다른 비빔밥 · 함께 식사할 때 상하의 자리배정 <식사예절> (교사- 학생) 	<p>동다송 음악 산사에 온 듯한 분위기</p>

② 초파일, 놀이체험

공동체 놀이체험이다. 탑을 돌며 소원을 빌고, 타인과 함께 상생하는 기도한다.

<표 II-2 > 초파일, 놀이체험




주제	탑돌이 하러가자~~	
학습목표	초파일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공동체 놀이체험	
학습자료 준비물	1. 편안한 복장 (혹은 전통복 차림. 각국의 전통복도 좋아요), 운동화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돌이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흥미로운 반응들을 들어봅니다. <p>1. 왜 탑돌이를 할까요?</p>	 <p>경주불국사 탑돌이 출처:문화컨텐츠닷컴</p>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p>1. 각자의 소원을 빌어봅시다. 2. 탑돌이를 통해 자국의 행사와 비교해 봅시다. 3. 3개 이상의 절을 돌면서 소원을 빌어 봅시다.(3사순례라고 한다.)</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연습 <p>1. 3사 사찰 탐방을 하여 탑돌이를 하며 소원성취를 빈다.</p>	 <p>경주불국사연등행사 출처:문화컨텐츠닷컴</p>
정리 및 평가 (10분)	한국 불교의식의 체험을 통하여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비고		

③ 초파일, 축제체험

연등축제를 통하여 대동단결의 힘을 느낀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세상이 열린다.



<표 II-3 > 초파일, 축제체험

주제	우와, 템플스테이 간다~~	
학습목표	연등놀이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편안한 복장, 한복 혹은 자국의 전통의상.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도 소원을 빌어볼까요? 연등을 달고 소원을 빌어 봅시다.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1. 템플스테이를 통하여 산사체험을 직접 느끼게 한다. 2. 자국의 템플스테이는 어떠한가? 	<p>조계사, 봉은사 연등행사 출처:문화컨텐츠닷컴</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p>연등달기 축제에 참여하기</p> <p>대동놀이가 이런 것이었구나~~!! 우와, 대단한 힘이 느껴진다.</p> <p>붉은 악마의 위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대동단결 의 힘. 이것이었구나!!</p>	<p>조계사, 봉은사 출처:문화컨텐츠닷컴</p> 
정리 및 평가 (10분)	<p>템플스테이, 연등 놀이를 통하여 무엇을 느꼈을까? 이야기 나누기</p>	<p>조계사, 봉은사 출처:문화컨텐츠닷컴</p>
비고		

① 단오, 음식체험



<표 II-4> 단오, 음식체험

주제	건강과 화평을 기원하는 떡이 있다고 합니다~~	
학습목표	단오의 음식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수리취떡, 망개떡, 수수경단 만들기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취떡, 망개떡, 수수경단 어떻게 만들까요? 	 <p>골동반 출처:한식재단</p>  <p>수리취 떡 출처:문화컨텐츠닷컴</p>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1. 단오의 유래는 무엇일까요? 2. 단오에 먹는 음식에 대하여 알아보시다.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취 떡 1. 수리는 당귀씨를 말한다. 2. 수리취를 데쳐서 멥쌀가루에 넣고 찐다. 3. 반죽을 둥글게 만들어 떡살을 박아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개떡 1. 멥쌀가루를 찌서 속에 팥을 듬뿍 넣고 망개잎에 싸서 먹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경단 1. 멥쌀가루를 빵아서 경단을 만들어 익혀낸다. 2. 경단에 수수가루를 묻혀서 먹는다. 	
정리 및 평가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리취떡, 망개떡, 수수경단을 이쁘게 차려서 손님대접하는 방법을 익힌다. 2. 손님 상 차림도 배운다. 	
비고	수리취떡 만들기 (썩떡 모양이 수레바퀴처럼 만들어졌다)	

② 단오, 놀이체험

<표 II-5> 단오, 놀이체험





주제	야~~ 단오놀이 신난다.	
학습목표	단오놀이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1. 창포, 대야, 물, 단오선 만들기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p>■ 창포를 뜯어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할까요? - 흥미로운 반응을 들어봅니다.</p> <p>1. 단오에는 어떤 놀이가 있을까? 2. 단오놀이를 해봅시다.</p>	
이론 (45분)	<p>■ 학습내용</p> <p>1. 창포물에 머리를 감다니??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반응, 이야기하기</p> <p>2. 이것은 무엇일까요? - 다양한 부채를 보여준다. - 무엇을 하는 걸까요? -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p>	<p>김준근 작 (‘단오에 산에 올라 그네 타고’,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 박물관 소장 출처: 조홍윤, 『민속에 대한 기산의 지극한 관심』, 민속원, 2004.</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p>■ 창포물에 머리감기</p> <p>1. 창포를 삶아 우려낸 물을 만든다. 2. 대야에 담아 식힌 후 머리를 감는다. - 왜 이렇게 하는가? 질의 응답하기</p> <p>■ 단오선 만들기</p> <p>1. 다양한 모양의 부채를 감상한다. 2. 부채 바람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림의 운치와 품격으로 더위를 잊은 선조들의 생활모습을 알게 한다.</p> <p>■ 그네를 타러 가볼까~~</p> <p>1. 그네에 올랐더니 그네가 이리저리 흔들거린다. 2. 겨우 그네의 중심을 잡았다. 꿈쩍을 하지 않네.. 3. 옆사람이 뒤에서 힘껏 밀어준다. 그네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치맛자락 날리며 신나게 그네가 된다.</p>	<p>출처: 문화컨텐츠닷컴</p>  <p>창포물 머리감기</p> <p>출처: 문화컨텐츠닷컴</p>
정리 및 평가 (10분)	<p>1. 그네를 타 본 사람만이 느끼는 행복감. 서로 느낌을 나누기 2. 자국에서도 그네타기와 비슷한 놀이가 있는지 이야기 해보기</p>	

③ 단오, 예술체험

<표 II-6 > 단오, 예술체험



주제	봉산탈춤 배우자~~
학습목표	탈춤의 의미와 유래를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봉산탈춤, 탈, 옷, 신발, 부채, 장구, 북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p>■ 탈에 대한 유래를 배우자</p> <p>1. 탈춤이 뭐지?</p>	
이론 (45분)	<p>■ 학습내용</p> <p>- 봉산탈춤이 뭐예요?</p> <p>1. 탈춤, 봉산탈춤 2. 탈춤의 기본 자세 배우기 3. 둘씩 짝지어 서로 대화식으로 춤을 춘다. 4. 스토리를 만들어 발표회를 가진다.</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p>■ 봉산탈춤</p> <p>나비같이 훨훨 하늘 향해 솟아올라 천사같이 고운 마음 그넷줄에 실어보자 단옷날에 언니하고 쌍그네에 올라 앉아 곱게 빛은 땡기머리 그네 위에 너풀대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봉산탈춤 보존회 출처:문화컨텐츠닷컴</p>
정리 및 평가 (10분)	<p>1. 봉산탈춤 놀이를 통하여 무엇을 느꼈을까? - 이야기 나누기</p>	

④ 단오, 축제체험

<표 II-7 > 단오, 축제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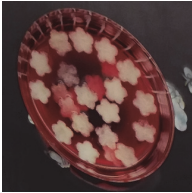



주제	씨름 할 줄 아시나요?	
학습목표	씨름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씨름축제에 참관하러 가자.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 흥미로운 반응들을 들어봅니다. 1. 자국에서도 비슷한 경기가 있나요? 이야기 해 봅시다.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1. 씨름의 유래에 대하여 알아보자. 2. 씨름과 비슷한 경기가 또 있대구요? - 자국의 경기를 이야기 해보자	전국 통합씨름대회 출처:문화컨텐츠닷컴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름 축제에 참여하기 	
정리 및 평가 (10분)	1. 자국에도 씨름과 비슷한 경기가 있나요? - 사진으로 설명하기	출처:문화컨텐츠닷컴

① 유두, 음식체험

< 표 II-8 > 유두, 음식체험

주제	네모로 빛은 여름만두 편수~~
학습목표	편수를 만들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만두피, 속재료(쇠고기, 호박, 숙주나물, 두부..)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p>■ 편수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p> <p>1. 일반적으로 만두는 겨울철에 먹는 음식으로 알고 있으나 편수는 여름에 차게 해서 먹는 음식이다.</p> <p>2. 네모진 모습이 마치 물위에 조각배가 떠 있는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¹⁵⁴⁾</p> <p>■ 오미자차에 수단을 넣어서 마시기</p> <p>1. 수단 만들기</p> <p>2. 오미자차 만들기</p> <p>3. 오미자차에 수단을 넣어 차게 마시기</p>	 <p>오미자차 출처:K-Style Hub</p>
이론 (45분)	<p>■ 학습내용</p> <p>1. 유두의 유래</p> <p>2. 유두의 음식은? 편수, 규아상, 수단, 유두면, 전병, 상화병</p> <p>3. 만드는 방법</p>	 <p>편수 출처:자하손만두</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p>■ 편수 만들기</p> <p>1. 쇠고기, 호박, 숙주나물, 두부.등을 잘 익혀서 버무려 속 재료를 만든다.</p> <p>2. 밀가루나 메밀가루를 이용하여 만두피를 만든다.</p> <p>■ 수단 만들기</p> <p>1. 쌀가루를 찌서 흰 떡을 만든 다음 손으로 비벼 작은 구슬처럼 만든다.</p> <p>2. 차게 만든 오미자 국물이나 꿀물에 넣어 차게 먹는 음료이다.</p> <p>■ 오미자차 만들어 수단을 넣어 차게 먹기</p>	 <p>구절판 출처:시화담</p>
정리 및 평가 (10분)	<p>■ 손님상 차리기, 대접하기</p>	 <p>구절판 출처:문화콘텐츠닷컴</p>

154) 윤숙자 외, 아름다운 세시음식 이야기, 질시루, 28, 2012.

② 유두, 놀이체험





< 표 II-9 > 유두, 놀이체험

주제	활쏘기를 배워 보아요.	
학습목표	유두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활쏘기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p>■ 유두연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 흥미로운 반응들을 들어봅니다.</p> <p>1. 유두에는 어떤 놀이가 있을까? 2. 유두의 놀이를 해봅시다.</p>	
이론 (45분)	<p>■ 학습내용</p> <p>1. 유두의 유래 2. 유두놀이: 활쏘기</p>	<p>고구려 무덤벽화 출처:문화컨텐츠닷컴</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p>■ 유두연</p> <p>1.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함을 씻어냈다. 2. 물맞이는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물론 부스럼을 낫게 하는 건강한 피부를 가진다고 믿었다.</p> <p>■ 활쏘기의 유래 및 실습</p> <p>1. 유비무환의 지혜를 배운다.</p>	 <p>활쏘기-김홍도작 출처:문화컨텐츠닷컴</p>
정리 및 평가 (10분)	<p>1. 유두연, 활쏘기에서 무엇을 느꼈나요? 2. 자국에서의 여름 놀이는 무엇이 있나요?</p>	 <p>유두연 출처:한호철, 세시풍속 이야기</p>
비고		

① 칠석, 음식체험

< 표 III-1 > 칠석, 음식체험


주제	밀전병 만들기 체험	
학습목표	밀전병을 만들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밀가루, 메밀가루, 부추, 풋고추, 양파, 파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전병은 어떻게 만들까요? 1.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 해본다. 	 <p>두릅메밀전병 출처:한식재단<시화답></p>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1. 밀전병 만드는 방법 2. 증편 만드는 방법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전병 만들어 식히기 ■ 증편 만들어 시식하기 	 <p>밀전병 출처:문화컨텐츠닷컴</p>
정리 및 평가 (10분)	 <p>증편</p>  <p>밀전병- 밤모양</p>	

* 출처: 본 연구자가 구성한 것임(2016.10).

② 칠석, 예술체험

< 표 III-2 > 칠석, 예술체험

주제	사랑 애(愛) 시 짓기
학습목표	칠석의 유래를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견우와 직녀의 노래 가사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p>■ 사랑 애(愛) 노래를 아시나요? 1. <견우와 직녀> ?</p>	 <p>칠월칠석제 출처:동다송문화원</p>
이론 (45분)	<p>■ 학습내용 1. 사랑 애(愛) 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 2. 견우와 직녀에 대한 사랑 이야기 들려주기 3. 견우와 직녀 시 들려주기</p> <p>“견우와 직녀의 노래”</p> <p>천 년을 오늘같이 사랑하고 싶습니다</p> <p>은하가 가로막아도 까막까치 다리 놓아 이어주는 변함없는 우리사랑 우를 행복하기 위해 일 년을 참았습니다</p> <p>365일 그 어느 하루도 소리 내어 웃어 본 적 없습니다 벌 나비 뽁뽁거리는 봄이 오면 향기 더욱 감추었습니다</p> <p>그대를 만나는 날 화안한 꽃으로 피어날 거라고 그대를 만나면 새벽마다 이슬에 씻고 씻어 정제된 향기 쌓아둔 나의 향기로 세상 가득 채울 거라고</p> <p>오늘은 그대가 내게로 오신 날 일 년 12달을 똑똑 여미기만 했던 텅 빈 이 가슴속에는 지금</p>	

< 칠석 >

일 년에 한번
은하수를
건너니,
오작교 가는 길은
아득하기만 하네.

가장 인생에서
미운 것은
시간을
재촉하는 것인데,
아름다운
기약이
또 한 해로
넘어감을
어찌해야
하겠는가?155)

	<p>오색 무지개 피었습니다</p> <p>그대와 내가 함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p> <p>무정했던 세월도 동짓달 한과도 내 뜨거운 가슴을 이기진 못했습니다 우리의 고운사랑 오롯이 하려고 일 년 내내 믿음을 씨줄하고 인내를 날줄하여 기도의 베틀에 앉아 오직 사랑만을 짚습니다</p> <p>견우여, 이제 우리 천년을 함께 할 우리들의 푸른 노래를 부릅니다 지상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영원한 사랑의 노래를...¹⁵⁶⁾</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 애(愛)를 주제로 시 지어 낭송하기 ■ 사랑 애(愛)를 주제로 애니메이션 만들기 ■ 사랑 애(愛)를 주제로 자국의 사랑이야기 나누기 	
정리 및 평가 (10분)	<p>· 나라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서로의 문화가 다름을 인정하고, 비교문화의 안목을 키운다.</p>	
비고	자국의 사랑의 날, 사랑의 시 발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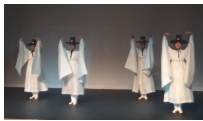
155) 김시습, 매월당 시집, 권13, 관동일록,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조선전기 문집 편, 468, 2004.

156) 문인선, 칠월칠석 문화축제, 사)동다송문화회, 2016.

③ 칠석, 축제문화

< 표 III-3 > 칠석, 축제문화체험 프로그램

주제	기다림과 만남의 환희 공연관람
학습목표	칠석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칠석문화축제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 흥미로운 반응들을 들어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 ..)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1. 견우와 직녀에 대한 사랑 이야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2. 칠성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p>사랑에(愛)날</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다림과 만남의 환희 공연(90분) - 동래학춤 선녀춤 궁중학춤 왕과 왕비춤 여명의 빛 판 굿 - 칠성제, 다례 	<p>칠성제</p>  <p>출처: 동다송문화원</p>
정리 및 평가 (10분)	자국에도 슬픈 사랑 이야기가 있대구요?	
비고		

① 추석, 의례체험



< 표 III-4 > 추석, 의례체험

주제	이것은 무엇일까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차례상 사진을 보여준다)
학습목표	한국의 추석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차례상, 음식, 한복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례상을 보여주며 알고 있는지 질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례상을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다. 2. 가족들 모두 모여 절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추석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 	 <p>추석차례상 출처:운현궁김태훈</p>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례상의 의미와 유래 - 차례상 차리기 2. 세장(설빔): 한복입기 3. 세배: 절 하기 4. 세찬: 식사 예절 	 <p>세배하기 출처:성신여대국제문 화교육원</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례상 차리기 ■ 절 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자의 절 2. 여자의 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묘하기 	 <p>중국 하북과기대 출처:성신여대국제문 화교육원</p>
정리 및 평가 (1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례상, 성묘하기, 절하기 2. 한국인의 가정예절을 익힌다. 	
비고	· 바닥에 돛자리나 방석을 준비한다.	



② 추석, 음식체험

<표 III-5 > 추석, 음식체험

주제	송편 만들기	
학습목표	한국고유의 명절인 추석의 의미와 음식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쌀가루, 솔잎, 깨, 꿀, 팥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편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한국의 추석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2. 한국의 추석 음식을 먹어본 적 있는가?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1. 추석의 의미 2. 추석의 음식은? - 송편, 차례상 음식 	<p>오려송편 출처:한식재단<시화담></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편 만들기 1. 밀가루를 반죽하여 피를 만들고 2. 피 속에 꿀에 저민 깨나, 팥을 넣는다.. 3. 송편을 솔에 찌 낸다. 솔잎을 깔고 찌면 솔향이 있어서 향긋하다. 오래보관 할 수 있어서 방부제 역할도 한다. 	
정리 및 평가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의 명절은 어떠한지 이야기 나누기 - 자국의 명절 음식에 대하여 말하기 (함께 만들어 보아요) 	<p>쭈송편 출처:문화콘텐츠닷컴</p>

③ 추석, 놀이체험



<표 III-6 > 추석, 놀이체험

주제	제기, 투호를 보여준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학습목표	명절 놀이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1. 제기차기- 제기 2. 투호놀이- 투호 3. 널뛰기- 널빤지, 짚방석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p>■ 제기, 투호 등을 올려놓고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 흥미로운 반응들을 들어봅니다.</p> <p>1. 한국의 추석에는 어떤 놀이가 있을까? 2. 한국 추석 놀이를 해봅시다.</p>	 <p>제기의 종류 출처:문화컨텐츠닷컴</p>
이론 (45분)	<p>■ 학습내용</p> <p>1. 제기차기를 배워줍니다. 2. 투호놀이를 설명합니다. 3. 널뛰기- 2조로 나누어 짝을 지어 댄다.</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p>■ 놀이 연습</p> <p>1. 제기차기는 각자 연습하고 짝을 지어 편을 묶어서 시합을 합니다. 2. 투호놀이는 설명하고 두 조로 나누어 시합을 붙입니다.</p> <p>1) 규정 짓기 2) 가위,바위,보 로 선두를 정한다. 3) 사이사이로 끼어 앉아 차례대로 투호 던지기</p>	 <p>투호놀이 출처:문화컨텐츠닷컴</p>
정리 및 평가 (10분)	조별 리그- 단합 대회	

④ 추석, 예술체험

<표 III-7 > 추석, 예술체험

주제	강강술래 노래 배우기~~
학습목표	추석의 의미와 유래를 알고 노래를 통하여 하나됨을 배운다.
학습자료 준비물	강강술래 악곡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강술래 노랫말 익히기 1. 한국의 추석 노래를 배우자.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1. 강강술래 노래 익히기 2. 자국의 추석놀이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강술래 노래배우기 <p>사랑 창창 뒷창 밖에 강강 수월래 건너 초당 내다보니 강강 사월래 범나비가 앉았길래 강강 수월래 그나비를 쳐다보니 강강 수월래 이천자 배운 글을 강강 수월래 적수 만강 다 잊었네 강강 수월래</p> <p>서당 안의 학도들아 강강 수월래 서당 밖의 학도들아 강강 수월래 선생 앓은 눈을 보라 강강 수월래 평철 타는 매눈이다 강강 수월래 우리 부모 오시거든 강강 수월래 매에 갱게 갔다 말고 강강 수월래</p> <p>달위에는 별도 총총 강강 수월래 구름속에 숨은 달은 강강 수월래 해만 뺨죽 물었구나 강강 수월래 꽃도 단포 화단 치마 강강 수월래 맵수 좋게 잘라 입고 강강 수월래 마당 좋고 동무 즐 때 강강 수월래 신명털이 하고 가세 강강 수월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칭칭가 (쾌지나 칭칭의 노래) 일부 <p>치지나 칭칭나네, 하늘에는 별도 많고, 치지나 칭칭 나네,</p>	 <p>강강술래</p> <p>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p>  <p>평택농악</p> <p>출처: 국립민속박물관</p>

시내 강변엔 자갈도 많고, 치지나 칭칭 나네,
 헌 누더기엔 이도 많고, 치지나 칭칭 나네,
 남의 집 머느리 말도 많고, 치지나 칭칭 나네,
 이내 가슴엔 수심도 많다, 치지나 칭칭 나네,
 좋고, 좋고, 좋고, 좋다.

자진 강강술래

<메기는 소리> <받는 소리>
 강 강 - 술 래 강 강 - 술 래
 뛰어 보 세 뛰어나 보 세 강 강 - 술 래

출처: 국립국악원

정리 및
 평가
 (10분)

쾌지나칭칭나네


곳거리장단 J. = 60-72 경상도민요
 <메> <받>
 쾌지나 칭 칭 나 네 - 쾌지나 칭 칭 나 네 -
 <메> <받>
 칭칭 하늘엔 관-별도 많--다 쾌지나 칭 칭 나 네 -
 <메> <받>
 이내 가슴엔 회-망도 많--다 쾌지나 칭 칭 나 네 -
 <메> <받>
 서 산-애 지-는 해--는 쾌지나 칭 칭 나 네 -
 <메> <받>
 그 뒤 라-시-잡아 댕-댕 쾌지나 칭 칭 나 네 -

출처: 국립국악원

⑤ 추석, 축제체험





< 표 III-8 > 추석, 축제체험

주제	강강술래 하러 가자~~	
학습목표	강강술래 놀이의 유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한복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강술래 행사에 참여해서 함께 즐긴다. - 흥미로운 반응들을 들어봅니다. 	 <p>진도 강강술래 전수관 (유네스코 유산)</p>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1. 강강술래 행사 참여하여 함께 즐기기 - 대동놀이의 유래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강술래 행사에 함께 참여한다. <p>한복을 입거나, 자국의 예복을 입어도 좋다.</p>	
정리 및 평가 (10분)	신나는 대동놀이	

① 상달, 음식체험



<표 IV-1 > 상달, 음식체험 프로그램

주제	김장을 해 보아요~	
학습목표	상달의 의미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김치 재료. 배추, 갓은 양념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1. 채썰기를 배워볼까요? 2. 김치속에 들어가는 재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김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발효, 저장에 대하여 배워보아요. 	 <p>발효김치의 종류 출처:국립민속박물관</p>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1. 발효음식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2. 한국인의 손맛, 김치를 배워볼까요? 3. 채썰기 시범을 보인다. 4. 모든 재료를 양념한다. 5. 포기 김치, 백 김치, 짝퉁 김치 등 만든다. 	 <p>김치 담그는 모습 출처:국립민속박물관</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를 만들기 1. 조편성하여 함께 배운다. 2.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방법부터 배운다. 3. 재료를 손질하여 채썰기 한다. 4. 양념을 만든다. 5. 재료와 양념을 섞어 소를 만든다. 6. 김치속에 재료를 넣어 통속에 보관한다. 7. 상온에서 2~3일간 둔다. (날씨에 따라 다르다) 	 <p>출처:국립민속박물관</p>
정리 및 평가 (10분)	 <p>장독대- 김치는 살아있다 *출처:국립민속박물관</p>	

② 상달, 놀이체험

< 표 IV-2 > 상달, 놀이체험




주제	다식을 만들어 보아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학습목표	다레와 다식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1. 다식 만들기- 오색 가루, 꿀 2. 다레 배우기- 찻자리 테이블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식을 올려놓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 흥미로운 반응을 들어봅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식만들기 2. 한국 찻자리를 배워봅시다.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의 다레- 동작 배우기 2. 한국의 다식- 다식의 종류 	<p>다식</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 우리기를 배웁니다. 2. 다식은 오색가루에 꿀을 묻혀서 만들어 냅니다. 3. 다식문양 설명 	
정리 및 평가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를 우려서 다식과 함께 찻상을 냅니다. 	<p>차 우리기</p> <p>출처:성신여대 전통문화 콘텐츠</p>

③ 상달, 예술체험

< 표 IV-3 > 상달, 예술체험

주제	한국의 찻자리
학습목표	한국의 멋과 맛을 알다.
학습자료 준비물	찻자리 도구, 계절 꽃(다화), 다식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찻자리 셋팅(성신다법) 1. 다례 익히기 2. 전차, 말차 우리기 3. 다화 꽃기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1. 성신다법 익히기 (다례) 2. 찻자리 꾸미기 - 전차, 말차 테이블 3. 한국의 다화 	전차 다법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 여름, 가을, 겨울 테이블 셋팅 1. 한국의 찻자리 꾸미기 2. 다화의 기본구조 3. 다식의 종류 (오색다식, 꽃감다식, 대추다식, 등..) -조별 활동 	말차 다법 
정리 및 평가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자국의 문화적인 이해를 돕는다. 	출처:성신여대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콘텐츠



한국의 찻자리와 다식





출처: 성신여대 전통문화콘텐츠전공



④ 상달, 축제체험

< 표 IV-4 > 상달, 축제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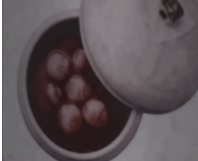

주제	사물놀이, 강령탈춤 발표
학습목표	각국의 파티를 배운다.
학습자료 준비물	각국의 파티 준비물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나라별 연중 가장 큰 파티는 무엇인가요? 발표하기. 	 사물놀이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1. 강령탈춤, 사물놀이 발표시간이다. 2. 한국의 차문화 행사를 보여준다. 2. 각 국의 파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발표한다.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론 1. 한복을 입거나, 자국의 예복을 입어도 좋다. 2. 자국의 파티복을 입어도 좋다. 	 강령탈춤
정리 및 평가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축제를 동영상을 통하여 본다. · 각 나라의 파티문화를 통하여 우리는 더 친숙해졌습니다. 	출처:국립민속박물관
비고	추억의 사진찍기	

① 동짓달, 음식체험

< 표 IV-5 > 동지, 음식체험



주제	동지 팔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
학습목표	동지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팥, 쌀가루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죽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1. 팔죽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1. 팔죽을 만들어 봅시다. 2. 자국에도 겨울철에 먹는 음식이 어떤 것이 있나요? 	<p>새알심 출처:한식재단 사진공모</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앙금 만들기 1. 팥은 오래 고아서 푹 익힌다. 2. 체에 걸러서 곱게 앙금을 내린다. ■ 새알 만들기 1. 쌀가루는 곱게 빻아서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어개어 치댄다. 2. 잘 치대어진 쌀가루를 조금씩 뜬어서 새알을 만든다. ■ 팔죽 만들기 1. 팥앙금에 새알을 하나씩 넣으며 잘 저어준다. 2. 걸죽하게 익고, 새알이 동동 뜨면 떠서 그릇에 담는다. 	 <p>팔죽 출처:K-Style Hub</p>
정리 및 평가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판에 음식차리기 (동치미와 곁들이면 더 맛있다.) · 그릇은 깨끗이 닦아서 그릇장에 원위치 한다. 	 <p>동치미 출처:한식재단</p>

① 선달, 의례체험

<표 IV-6 > 선달, 의례체험




주제	각국 제야의 풍속으로 인사해요 (묵은 세배)
학습목표	제야의 풍속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1년 동안의 한국세시풍속에 대한 각자의 소감문 적기(연필, 종이) -감사 인사하기-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p>■ 묵은세배가 뭐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2.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 할까요? 	
이론 (45분)	<p>■ 학습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롱불 오락가락 묵은세배 하는구나. 2. 묵은 세배의 유래를 이야기 한다. - 밤 늦도록 초롱불을 들고 가까운 친척들을 찾아 다니며 그동안의 감사와 새로 맞을 해에 대하여 축원을 드리는 풍속이다. 3. 제야의 풍속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4. 자국에서도 이런 풍속이 있는지 이야기 한다. 	<p>묵은 세배</p> <p>출처:문화콘텐츠닷컴</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p>■ 제야의 풍속에 대하여 각국의 이야기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국의 영상물이나 사진으로 발표를 한다. 2. 각국의 인사법으로 감사 표현한다. 	 <p>성덕대왕 종 -에밀레 종</p>
정리 및 평가 (10분)	<p>* 지난 1년간의 활동사진들을 함께 공유하며 동영상을 본다. 감사인사를 한다.</p>	<p>출처:문화콘텐츠닷컴</p>

② 선달, 음식체험

<표 IV-7 > 선달, 음식체험


주제	각국의 제야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습목표	한국 제야의 음식은 떡국이지요.
학습자료 준비물	떡국, 만둣국, 골동반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의 제야는 어떻게 지내나요? 1. 한국의 제야 음식 소개하기. 2. 자국의 제야 음식을 소개한다. 	 <p>만두 빚기 출처:문화컨텐츠닷컴</p>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1. 한국의 제야음식은 떡국이지요. 2. 자국의 제야음식은 어떤것이 있나요?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야의 중. 다함께 해요 1.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정성은 어떻게 해석해도 좋은 미덕이다. 2.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떡국(만둣국)으로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친다. 3. 각국의 제야의 풍속을 발표하며, 각국의 음식으로 함께 즐긴다. 	 <p>떡만둣국 출처:자하 손만두</p>
정리 및 평가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떡국 담는 법 · 수저 사용방법 · 그릇은 깨끗이 닦아서 그릇장에 원위치 한다 	 <p>밤새도록 만두빚기 출처:문화컨텐츠닷컴</p>

③ 선달, 예술체험

< 표 IV-8 > 선달, 예술체험

주제	제야의 종
학습목표	<선달그믐날 밤> 시를 감상한다.
학습자료 준비물	각자의 한해를 마감하는 소감문 발표

단계	체험교육 콘텐츠	활용자료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달그믐날 밤> 시 익히기 -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이론 (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선달 그믐날 밤>157) <p>그믐밤에 잠자면 눈썹이 쟈다 하신 아빠 말씀 곧이듣고 잠들지 않으려고 감기는 눈을 비비며 비비며 안간힘을 썼건만</p> <p>아침에 눈뜨자마자 거울을 들여다보았더니 아, 정말! 내 눈썹이 하얗게 세어 있잖겠니? 난 그만 분하고 억울해서 양양 울고 말았단다</p> <p>삼촌이 쫓쫓 안타까운 듯 혀를 차며 -손가락으로 눈썹을 문질러 보아라 그 말에 귀가 번쩍 띄어 눈썹을 만져 보았지</p> <p>눈썹을 하얗게 한 건 고운 밀가루였어 히히히!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웃음소리 식구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내 웃음 따라 하하하!</p> <p>그제사 정신 차리고 바깥을 내다보았더니 소담스런 눈송이가 마약 내리고 있었어 하얗게 가짜로 세었던 내 눈썹과 같은 눈이..</p>	 <p>+ 옛 보신각 동종 <보물 2호></p> <p>출처:한국학중앙연구 원</p>
실습안내 및 실습 (5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해를 마감하며 한국 세시풍속 문화체험의 소감을 이야기 한다. 2. 자국의 풍속과 비교하며 한국인과 한국사회를 더 이해할 	

	<p>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한다.</p> <p>3. 다양한 나라의 풍속도 함께 들으며,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더 넓은 문화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한다.</p> <p>4. 자국에 돌아가 한국문화를 자랑스럽게 보급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p>	
정리 및 평가 (10분)	<p>- 아리랑, 옹헤야 부르며 마무리 한다.</p> <p>한국 세시풍속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	

비고

아리랑

새마치 우리나라 민요

옹헤야

경상도민요

출처: 국립국악원

157) 박경용, 선달 그림날 밤에, 별 총총 초가집 총총, 서문당, 42-43, 1980.